

博 士 學 位 論 文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 研究

玄 平 孝

東國大學校 大學院

1 9 7 4

目 次

1. 緒 論	3
2. 動作相.....	11
2.1 序 言	11
2.2 未完了相	17
2.3 完了相	27
2.4 未完了存續相	34
2.5 完了存續相	44
2.6 動作相 形態의 特徵	50
2.7 動作相 形態의 國語史的 位置.....	52
3. 尊待法.....	56
3.1 序 言	56
3.2 對者尊待의 {-우-}	57
3.3 對者尊待의 {-ㅁ-}	64
3.4 對者尊待의 {-마슴}	68
3.5 尊待法 形態의 特徵	71
3.6 尊待法 形態의 國語史的 位置.....	75
4. 叙 法 (I).....	78
4.1 序 言	78
4.2 直說法	78
4.3 回想法	89
4.4 推測法	95
4.5 意圖法	99
4.6 叙法 (I) 形態의 特徵과 그 國語史的 位置	104

5. 叙 法(Ⅱ)	110
5.1 序 言	110
5.2 平叙法	110
5.3 疑問法	119
5.4 命令法	127
5.5 叙法(Ⅱ) 形態의 特徵과 그 國語史的 位置	130
6. 結 論	135
參考文獻	139
Summary	143

目 次

1. 緒 論	3
2. 動作相.....	11
2.1 序 言	11
2.2 未完了相	17
2.3 完了相	27
2.4 未完了存續相	34
2.5 完了存續相	44
2.6 動作相 形態의 特徵	50
2.7 動作相 形態의 國語史的 位置.....	52
3. 尊待法.....	56
3.1 序 言	56
3.2 對者尊待의 {-우-}	57
3.3 對者尊待의 {-日-}	64
3.4 對者尊待의 {-마-}	68
3.5 尊待法 形態의 特徵	71
3.6 尊待法 形態의 國語史的 位置.....	75
4. 叙 法 (I).....	78
4.1 序 言	78
4.2 直說法	78
4.3 回想法	89
4.4 推測法	95
4.5 意圖法	99
4.6 叙法(I) 形態의 特徵과 그 國語史的 位置	104

5. 叙 法(Ⅱ)	110
5.1 序 言	110
5.2 平叙法	110
5.3 疑問法	119
5.4 命令法	127
5.5 叙法(Ⅱ) 形態의 特徵과 그 國語史的 位置	130
6. 結 論	135
參考文獻	139
Summary	143

1. 緒 論

1.1 濟州島는 絶海孤島이다. 絶海孤島인 濟州島에 稀貴하고도 珍重한 古語들이 많이 간직되어 있고, 따라서 그 研究할 價値가 가장 높은 地域으로 認定되어지고 있다. 濟州島를 가리켜 古語의 寶庫니, 國語學의 開拓地니 등등으로 일컬어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學界의 常識이다. 事實 方言 중에서도 絶海孤島의 方言, 僻地의 方言에 古時代의 言語가 殘在해 있는 것이다 함은 言語地理學이 立證해 주는 바이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交通手段의 發達, 義務教育에 따르는 標準語의 普及은 山間僻村 아니 미치는 곳이 없어, 어느 地域에서나 그 地方 獨特한 方言은 急激히 消滅되어 가는 과정에 놓여 있음이 實狀이다. 허나, 오늘날까지에 있어서는 그래도 絶海孤島나 山間僻村에 古時代의 言語狀態가 많이 간직되어 있음도 또한 事實이다.

1.2 그런데 오늘날 濟州島方言(以下 '方言'이라 함)의 狀態는 그 音韻分野에 있어서는 後舌低母音인 /ɒ/音이 第二音節에서는 많이 消滅되어 버렸지만 第一音節에서는 다른 單母音에 比하여 相當한 勢力으로 아직 使用되고 있어서,¹⁾ 國語音韻史上 17世紀 前後의 狀態를 維持하고 있다고 한다.²⁾ 그러나 한편 年少層의 言語에 있어서는 前舌母音의 /ɛ/音이 /e/音과 實際 發音上 잘 區別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音韻意識에 있어서도 /ɛ/와 /e/를 別個 音素로 識別하지 못하는 傾向이 있어서 결국 /ɛ/와 /e/는 한 개의 音素로 融合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을 濟州島 方言만이 갖는 特異한 點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前舌母音에서의 두 개 音素의 하나로의 融合은 결국 「構造上的 구멍」(hole in the pattern)³⁾을 招來하고 體系上 不均衡 狀態를 면치 못하게 된다. 곧, 前

注 1: 拙稿; “濟州島方言·音小考”,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東國大, 1963, pp.627-46.

2: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研究”, 『國語學論攷』, 東洋出版社, 1960, p.279.

3: K. L. Pike; *Phonemics*, Ann Arbor, 1947, p.117.

舌母音이 二母音體系인데 對하여 後舌母音은 三母音으로 「統合되지 않는 音素」 하나가 後舌母音體系에 더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構造上的 구멍」이 되어 있는 곳에 다른 音素를 끌어 당겨서 메우던지 그렇지 않으면 「統合되지 않는 音素」를 消滅시킴으로써 體系的 均衡을 取하던지 하게 된다. 濟州島 地域의 年少層의 言語에서는 後舌母音 /ɒ/를 /o/音 혹은 /a/音에 融合시켜 나가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날 方言의 母音體系로서는 두 體系가 並存하고 있다고 하게 된다. 壯年層의 言語에 있어서의 9母音體系, 곧 「三序三系四角組織體系」와 年少層의 言語에 있어서의 7母音體系, 곧 「三序三系三角組織體系」이다. 前者는 17, 8세기의 國語母音體系와 類似한 體系라 할 수 있고, 後者는 오늘날의 標準語 母音體系보다도 더 縮小(發展?)된 體系이다. 이 두 體系가 오늘날 共時的으로 濟州島 地域 言語社會에서 行해지고 있는 것이다.

1.3 다음, 語彙分野에서의 狀態를 보기로 한다. 여기 한 가지 例로 ‘나무’(木)란 말을 들어서, 이 말이 오늘날 方言에서는 어떤 語形들로 實現되며, 그 語形들은 文獻語의 語形들과 對照하여 볼 때, 어느 時代의 말에 該當되는가를 살피고, 나아가 方言이 오늘날 國語史上 어떤 位置와 特徵을 지니는가를 考察하기로 한다.

「나무」(木)란 말은 오늘날 方言에서 「남·낭·나모·나무」등 네 語形으로 實現되고,⁴⁾ 이 네 語形이 共時的으로 使用된다. 이 네 語形 중에서 그 使用頻度는 오늘날 濟州島 言語社會에서 「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남」形이요 「나모」·「나무」形들은 드물다. 물론 이러한 頻度는 話者의 身分 또는 年齡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朝時代의 文獻은 「나모」 語形을 例證하여 준다.

이본 나모와	〈龍歌 89〉
나모 아래 안즈샤	〈月印 117〉
나모뵈초	〈訓蒙中 2〉

注 4: 拙 著; 「濟州島方言研究 第一輯 資料篇」, 精研社, 1962, p.389.

나모공이
모론 나모

〈同文類下 44〉
〈漢清文一 三・27〉

들과 같이 「나모」語形은 15세기 文獻에서부터 18세기 末葉의 文獻에 이르면서 줄곧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나모」語形은 朝鮮朝時代를 통하여 줄곧 使用되었던 語形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나모」語形이 高麗時代에도 使用되었던가 어떤가를 鷄林類事에서 들추어 보기로 한다. 12세기 初頭의 文獻⁵⁾ 鷄林類事에는,

柴曰李南木

이란 記錄이 있다. 이 「李南木」을 前間恭作은 「블나모」로 읽었고,⁶⁾ 方鍾鉉씨도 이것을 「블나모」로 읽었다.⁷⁾ 또 李基文교수는 「南木」을 「나모」의 古形 「나ㅁ」로도 「나ㅅ」으로도 읽을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하였다.⁸⁾ 이와 같이 「南木」을 「나모」, 또는 「나ㅁ」·「나ㅅ」등으로 읽고 있다. 그러나 「木」字는 /m/音에 表記된 경우도 있다.

工木達縣一云熊閃山

〈東國輿地勝覽 一三〉

多羅木只阿察 doromi-aca

〈元朝秘史卷七 p.34〉

들과 같은 記錄이 있다. 그러나, 단지 이 두 例를 가지고 「李南木」의 「木」도 /m/音에 表記된 것이라 하고, 따라서 「南木」은 單音節 語形 「남」을 表記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고 斷定을 내리는 것은 速斷일 것이다. 筆者는 여기서 이 「南木」이 「남」의 表記인지 또는 「나모」·「나ㅁ」·「나ㅅ」그 어느 것의 表記인지 斷定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것은 全國 方言의 精密한 調査와 廣範한 文獻의 考證을 요할 作業이므로 다른 機會로 미룬다.

또 鷄林類事에,

木曰南記

注 5: 高柄翊; 「鷄林類事的 編纂年代」 「歷史學報 10輯」, 서울, 1958.

6: 前間恭作; 「鷄林類事麗言攷」, 1925, p.113.

7: 方鍾鉉; 「鷄林類事研究」, 「東方學志 2輯」, 延世大, 1955, p.198.

8: 李基文; 「鷄林類事的再檢討」, 「東亞文化 8輯」, 서울大, 1968, p.222.

란 記錄이 있다. 「南記」는 主格까지 겹하여 表記해 놓은 것이라 보고 「남기」로 읽고 있다. 梁柱東博士는 이 「남기」를 「남히」의 變이라 하였는데,⁹⁾ 이것은 「남기」의 /k/영향으로 말미암아, 곧 逆同化現象으로 하여 「남」의 /ㄹ/이 /ㅇ/化한 것이 他地域에 許多히 分布되어 있는 「낭기」·「낭구」·「낭이」등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한다.¹⁰⁾ 그리고 方言의 「남」語形도 이와 系統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斷定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또 같은 文獻 鷄林類事에,

松曰餅子南

이란 記錄이 있다. 이 「餅子南」의 「南」은 分明 그 語音이 「남」일 것이다. 이 「松曰餅子南」의 「南」이 「남」語形을 表記해 놓은 것이라면 이것은 또한 分明 方言의 「남」語形과 一致되는 것이다. 10 乃至 12세기의 高麗 言語를 表記해 놓은 鷄林類事에서 오늘날의 方言 語形 그대로의 表記를 얻게 된다. 이 한 가지 例만으로서도 오늘날의 方言 語形 「남」은 高麗時代의 語形 「남」(南)이 唯獨 絶海孤島인 濟州島에 殘在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나머지 語形 「나무」는 現代 標準語가 改新派의 傳播力을 타고 들어온 말로 네 語形 중에서 맨 나중의 말이다.

以上과 같이 하여 「남」·「낭」·「나모」·「나무」 네 語形이 國語史에 서 볼 때에, 各各 그 年紀를 달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남」語形은 10세기 내지 12세기 혹은 그 以前부터 使用되던 말이고, 「낭」語形은 「남」語形 보다 後期에 생긴 말이라 할 수 있다.

「나모」語形은 朝鮮朝 初의 文獻에서부터 출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注 9: 梁柱東; 「古歌研究」, 一潮閣, 1965, pp.274, 607, 777.

10: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 上卷」, 東京, 岩波書店, 1944, pp. 333—4.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攷—餘語考—」(方言語彙 pp. 53—4.), 1942.

洪淳鐸; 「青山島方言語彙」(湖南文化研究4輯), 全南大, 1966, p.187.

崔鶴根; 「全羅南道方言研究」(韓國研究叢書17輯), 1962, p.100.

成均館大學校安東文化圈學術調查團; 「安東文化圈學術調查報告書」, 1966, p.192.

金亨奎; 「韓國方言研究」, 서울大, 1974, p.218.

그 以前, 곧 13, 4세기부터 쓰였던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語形 構成上에서 볼 때 「남」形에 名詞化 接尾辭「오」를 添加하여 派生시킨 派生語이므로 「남」·「낭」語形과는 時代的으로 差異 있는 아주 나중에 생긴 語形이라 본다. 마지막 「나무」語形은 現代語이다. 이렇게 國語史上에서 볼 때, 年紀的으로 約 近 千年間이나 間隔差가 있는 語形들이 오늘날 方言에서는 꼭 같은 共時態로 使用되고 있는 實狀이다.

方言 研究에는 여러가지 目的이 있겠지만 그 重要的한 한 가지는 大部分 埋沒되어 버린 言語 形態의 諸層位를 再建해내는 일이다. 再建하기 위해서는 그 말의 露頭를 어느 地域에서 調査해 내어야 한다. 言語는 順次로 生成하여 왔다가 死滅하여 들어 간다. 그러나 그 死滅하여 버리는 말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地域의 어느 구석에도 전혀 남아 있지 않다던가, 그 말이 派生語 따위를 派生시키지 않았다면, 그 말이 다른 말에 전혀 影響을 미치지 않았다면 하는 일은 없고, 그 地域의 어디엔가에는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이 埋沒되어 버리는 말의 흔적, 곧 露頭를 어느 地域에서 찾아 내어서 그것들의 層位를 정하여 주고 再建하여 주는 일이 오늘날 國語方言學의 緊要한 課題의 하나인 줄 안다.

音韻分野와 語彙分野에서의 오늘날 方言의 國語史上 位置와 特徵을 극히 간략하게 言及하였다. 音韻分野에서는 17, 8세기의 國語母音組織의 體系, 그리고 오늘날 標準語의 體系보다도 더 縮小된 體系, 이 두 體系가 混在해 있다. 語彙分野에 있어서는 語彙史的으로 볼 때, 約 近 千年間이나 間隔差가 있는 語形들이 오늘날 함께 共時態로 使用되고 있는 實狀이다. 물론 어느 語彙나 이렇게 史的 位置를 지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方言의 語彙體系가 이와 같이 史的 位置와 特徵을 지닌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一部 單語나마 이러한 狀態를 지닌다 함은 濟州島 方言의 한 特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4 音韻分野와 語彙分野에서의 오늘날 方言의 狀態는 이상 言及하여 온 바와 같은데, 形態分野에 있어서의 方言의 構造的 特徵과 그 國語史

의 位置 등은 어떠한 것인지, 이 方言의 形態分野, 곧 活用語尾 또는 曲用語尾들의 構造的 特徵과 그 國語史的 位置 등은 오늘날 國語方言學上 가장 緊急을 要하는 研究課題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李崇寧博士는 濟州島 方言의 格語尾가 新羅時代 言語의 格體系를 뒷받침해 준다고 한 바 있다.¹¹⁾ 新羅時代 言語를 傳해주는 記錄인 소위 「鄉歌」는 아직도 그 解讀 自體에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形편인데, 이의 解讀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도 方言研究, 특히 그 形態分野의 研究는 緊要한 課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5 本 論攷는 方言의 形態分野에 있어서 그 構造的 特徵과 國語史的 位置를 方言의 「定動詞語尾」를 통해서 考究해 보려는 것이다.

標題하여 「定動詞語尾」라 하였다. 「定動詞」(Finite Verb, Verba Finita)란 名稱은 印歐語 文法에서나 알타이語 文法에서나 흔히 쓰인다. 그러나 이 「定動詞」란 名稱이 指示해 주는 意味 內容의 限界에는 兩者 사이에 差異가 있다. O. Jespersen은,

文章의 構成力은 흔히 定動詞形(finite verb form)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語形들에서 보이지만, 그러나 barking이나 eaten(分詞)과 같은 語形에나 to bark, to eat와 같은 不定詞에서는 發見되지 않는다.¹²⁾

라고 하여 定動詞形만이 文章을 完結짓는 機能을 다하는 것임을 規定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印歐系 言語에서는 定動詞形이 文章을 完結지음에 있어서 반드시 主語의 數와 人稱에 呼應하는 人稱語尾를 갖추어야 한다.

英語에서 I give. You give. He gives. 獨逸語에서 Ich gebe. Du gibst. Er gibt. 들이 바로 代名詞(主語)에 따라 자기 人稱語尾를 取한 것들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定動詞(finite verb)를 文法的 主語에 의하여 限定해지

注 11: 李崇寧; *Ibid.*, p.307.

12: O. Jespersen;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1951, p.87.

"The sentence building power is found in all those forms which are often called 'finite' verb forms, but not in such forms as barking or eaten(participles) nor in infinitives like to bark, to eat."

고 있는 動詞의 形이라기도 한다.

그러나 알타이系 言語에 있어서는 定動詞(Verba Finita)가 文章을 完結 짓는 機能을 다함은 印歐系 言語에서와 마찬가지로이지만 主語의 數와 人稱에 呼應하는 人稱語尾를 取하는 點은 전혀 없다. 여기에 G. J. Ramstedt 의 「定動詞」에 대한 概念 規定을 보기로 한다.

印歐語에서는 人稱概念(ich, du, er 등)이 表現된 動詞形을 定動詞라고 한다. 이에 대해 알타이語에서는 이 定動詞란 名稱은 보다 넓은 意味에서 文章이 完結된 것을 나타내는 모든 動詞形에 適用할 수 있다. 알타이語의 動詞는 또한 본래 그 終止形이 전혀 非人稱의이다…………….¹³⁾

라고 하였다. 여기 이 ‘非人稱의이다’라 함은 文章에서 動詞가 主語의 人稱과 數에 呼應하는 語尾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 하여 G. J. Ramstedt는 韓國語에서의 動詞를 그 語尾活用에 따라 定動詞(Verba Finita), 副動詞(Converbalia), 動名詞(Nomina Verbalia) 등 크게 셋으로 나누었던 것이다.¹⁴⁾

筆者가 本 論致에서 標題한 「定動詞」란 바로 이 G. J. Ramstedt 등이 일컫는 「定動詞」에서 취해 온 것이다. 여기 濟州島 方言에서의 定動詞의 意味 內容의 限界를 좀 더 明確히 하기 위하여 定動詞를 副動詞와 對比시켜 보기로 한다. 첫째, 定動詞語尾가 文章을 終結시켜 주는데 반하여, 副動詞語尾는 文章 또는 單語를 連結시키는 일을 한다. 둘째, 定動詞語尾가 對話에 있어서 相對者를 높히고 낮추는 尊卑法을 表現하는데 반하여, 副動詞語尾에는 그러한 尊卑關係의 表現이 없다. 셋째, 定動詞語尾가 語末語尾 또는 先語末語尾로써 叙法 表現을 하는데 반하여, 副動詞語

注 13: G. J. Ramstedt;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I Formenlehre*, Helsinki, 1952, p.82.

“In den indoeuropäischen Sprachen werden solche Verbformen, bei denen ein Personbegriff (ich, du, er usw.) ausgedrückt ist, Verba finita genannt. In den altaischen Sprachen dagegen kann diese Bezeichnung im weiteren Sinne für alle solche Verbformen angewandt werden, die den Satz als abgeschlossen angeben. Das Verb der Altaischen Sprachen ist bzw. war ursprünglich auch in seinen finiten Formen ganz unpersönlich.”

14: G. J. Ramstedt; *A Korean Grammar*, Helsinki, 1939, pp.70-128.

尾에는 그런 表現이 없다. 네째, 濟州島 方言의 發話에서 特徵적으로 나타나는 「動作相」(Aktionsart)은 주로 定動詞語尾로써 表現되지만 副動詞語尾로써도 表現되는 경우가 있다. 要約하여 말하면 定動詞語尾란 動作相, 尊卑法, 叙法 등을 表現하면서 文章을 終結시키는 機能을 다하는 語尾이다.

위에서 規定한 方言의 定動詞語尾의 內容의 限界에 따라서, 다음, 本論에서는 動作相, 尊待法, 叙法 등의 順으로 記述하여 나가기로 한다.

1.6 本論에서 提示하는 資料는 濟州島 一圓에 걸쳐 7個 地點 내지 12個 地點에서 方言의 informant가 될 만한 native speaker(原語民)들을 調査對象으로 하여 그들의 對話, 談話에서 筆者가 客觀的 觀察方法으로 蒐集한 것들이다.

그 外에 濟州島의 說話, 巫歌, 民謠 등에서 採集하여 낸 것들도 있다. 여기 informant가 될 만한 native speaker란 그의 言語에 있어서 改新派의 影響을 별로 받지 않고, 또 外地生活을 별로 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年齡的으로도 約 60歲 정도 혹은 그 以上의 분, 말하자면 在來의 濟州島 方言을 되도록 그대로 保有, 使用하고 있는 분을 말한다. 이런 native speaker들의 對話, 發話에서 客觀的 觀察로 蒐集한 資料들을 주로 提示하되, 그들을 각기 形態素로 分析함에 있어서는 筆者 自身 原語民인만큼 原語民으로서의 內省的 觀察이 加해될 것임을 添言해 둔다.

2. 動 作 相

2.1 序 言

2.1.1 濟州島 方言의 動作相에 대하여 論하기에 앞서 이와 關聯있는 tense(時制)와 aspect(相)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일찌기 H. Sweet 는,

‘tense란 本來 時間의 區別의 文法的 表現이다.’¹⁾

라 했고, G. O. Curme 는,

‘tense란 動作 또는 狀態의 時間을 指示하기 위하여 動詞가 取하는 여러 差異있는 形態들이다.’²⁾

라고 規定하였다. 또 O. Jespersen 은,

‘여러 言語에 있어서 動詞의 形에 表現되어진 時間表示, 所謂 時制 (tense)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극히 自然한 것 같이 생각되어서 많은 文法學者들은 時制의 區別이 있는 것이 動詞의 主要한 特質이라고 생각하여 왔다.’³⁾

라 하여 tense를 ‘動詞의 形에 表現되어진 時間表示’라고 規定하였다. 이들 規定에서 보는 바와 같이 tense란 말은 보통 動詞가 表示하는 動作 혹은 狀態의 時間關係를 나타내는 文法範疇라고 하여 왔다.

그리하여 O. Jespersen 은 時間을 直線으로 나타내어서 거기에 話者가 말하고 있는 瞬間을 「現在」라 하여 一點으로 나타내고 그 前을 過去, 그

注 1: H. Sweet; *A New English Grammar Pt.I*, London, 1891, p.97.

2: G. O. Curme; *College English Grammar*, p.56.

3: O. Jespersen; *Ibid.*, p.254.

後를 未來라 하였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過去 및 未來의 一定時를 基點으로 하여 各各 그 前後를 前過去, 後過去, 前未來, 後未來라 하여 時制體系를 都合 7時制로 區分했던 것이다.⁴⁾

그런데 이런 時制體系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觀點에서 區分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그 첫째는 話者が 말하고 있는 瞬間을 中心으로 한 時間領域을 「現在」로 하고 그 以前の 時間領域을 過去, 그 以後의 時間領域을 未來라 하는 觀點인데, 이 觀點에 선다면 現在, 過去, 未來의 세 時間領域이 있을 뿐이다. 所謂 時制라는 ‘現在, 過去, 未來’의 文法範疇는 이 觀點에서 定立되어지는 것이다. 다음, 둘째의 觀點은 이 過去, 現在, 未來의 時間領域의 어느 一時點에 話者が 觀點을 두고 그 一時點에 있어서 어떤 動作이 完了되었는가, 繼續 중인가, 또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를 보는 것인데, 이 觀點에서는 動作의 樣相(Aktionsart)을 問題 삼고 있는 것이 된다. 英語의 時制體系에 있어서 所謂 ‘完了形, 進行形’ 들은 바로 이 둘째 觀點에서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 M. Deutschbein 은,

‘近代英語에서 未完了相을 나타내는 데는 -ing 에 依한 紆說法을 쓴다. 例컨대 He is writing a letter. 와 같다.’⁵⁾

고 하여 時制體系에서의 進行形을 未完了相(繼續相)이라 했고, 또 B. M. Charleston 은 英語에서 完了形을 ‘完了相’(回顧相), 進行形을 ‘繼續相’(未完了相 또는 低徊相)이라 하고 또 He was going to write. (過去), He is going to write. (現在), He will be going to write. (未來)들을 ‘前望相’(Prospective aspect)이라고 命名했던 것이다.⁶⁾ 그리하여 Charleston 은 英語의 動詞에 依하여 規定하여지는 時間關係를 把握하는데 두가지 觀點이 可能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에 依해서, 話者が 말하는 瞬間과 關聯시켜 過去, 現在, 未來 어느 時間領域에 속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注 4: O. Jespersen; *Ibid.*, pp.255-7.

5: M. Deutschbein; *System der neuenglischen Syntax*, Cöthen, 1917.

6: B.M. Charleston; *A Reconsideration of the Problem of Time, Tense and Aspect in Modern English*, English Studies Vol. XXXVI. pp.263-78.

‘時制’라고 한다면 ‘相(aspect)’은 話者が 말하는 發話의 瞬間과는 아무 關聯이 없다는 點에서 根本的으로 時制와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⁷⁾

以上에서 본 바 英語에서 動詞가 表示하는 動作 혹은 狀態의 時間關係를 나타내는 文法形態를 Jespersen 과 같이 tense(時制)로만 다루는가 하면 Deutschbein 이나 Charleston 들과 같이 tense(時制)와 aspect(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見解들이 있다. 그런데 英語에서 aspect(相)은 단지 完了形, 進行形과 같은 文法形態에 依해서만이 아니고 한 動詞가 指示하는 意味에 의하여 또는 文脈에 의하여서 나타내어지기도 한다. 濟州島 方言의 定動詞語尾를 分析하여 볼 때 다른 어느 地域의 方言語尾와도 特異하게 表現되어지는 語尾가 있다. 그것이 바로 動作主의 動作을 表示하는 先語末語尾이다. 濟州島 方言 言語社會의 言衆들은 그 言語表現에 있어서 動作主의 動作에 力點을 두어서 言述하는 傾向이 매우 심하다.

이러한 言衆들의 言語 表現方式은 動作主의 動作의 樣相을 表現함에 있어서 動作動詞 내지는 狀態動詞의 語幹에 一定한 文法形態(先語末語尾)를 添加하여 語形을 變化시킴으로써 表現한다.

이와 같이 方言에서는 動作主의 動作의 樣相이 特徵的으로 表現되어 지므로 그것을 가리켜 時相(aspect)이라 하지 않고 굳이 「動作相」(Aktions-art)이라 하여 여기 論하여 나가기로 한다.

2.1.2 文法에서의 時制는 「現在, 過去, 未來」, 이 3時制가 基本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現在가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이다. 그럼 먼저 現在라고 하는 時制의 形態素들에 대하여 吟味해 보기로 한다.

나 내일 잔다.

이 ‘잔다’의 ‘-ㄴ다’는 現在形이라고 規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文章에 ‘내일’이란 副詞가 있는 것으로 보아도 ‘잔다’는 行動은 分明 未來

注 7: B.M.Charleston; *Ibid.*, pp.263-78.

의 일임에 틀림없다.

어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 보았다.

이 ‘-는-’ 또한 現在形으로 規定하는 것이다. 이 發話에 ‘어제’라는 副詞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지나가는’의 行動은 過去의 일임에 틀림없다. 혹은 이러한 ‘간다·말한다·노래한다·낚는다’ 따위들은 現在進行形이라고 하여 다루기도 한다.⁸⁾ 또 다음과 같은 예,

해는 서쪽으로 진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들에서 ‘진다’는 아무래도 現在의 行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在란 時制에서의 概念을 擴大하여 一般的 眞理, 習慣, 制度, 史的인 것, 가까운 未來의 것들까지도 表現한다고 例外的인 規定을 내리기도 하여 왔다. 그러나 問題는 이 例外的인 用法의 것들이라고 規定하는 것들이 도리어 더 比率이 훨씬 많이 쓰이고 또 자주 쓰일 경우에 이르면 本末은 顛倒되어서 本然의 用法의 것이라고 規定되던 것이 오히려 例外的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現在라는 時制는 國語의 文法範疇로서는 그 意義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 「現在完了形」이라고 規定하는 것을 보면,

비행기가 두 채 떴다.

여보, 박(朴)님이 성공하였소.

와 같이 들고 있는데,⁹⁾ 이들 /-었-/을 「現在完了形」이라고 規定하지만, 이것은 「過去形」과 同一한 形態이다. 이와 같이 同一한 時制 形態들을 가지고 「過去」나 「現在完了」나 하여 달리 보는 것도 이에 대한 再考의 餘

注 8: 崔鉉培; 「우리말본」, 正音社, 1959, p. 439

9: 崔鉉培; *Ibid.*, pp.437-8.

地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¹⁰⁾ 또 「過去完了」形이라고 規定하는 것을 보면,

그도 같이 갔었다.
 내가 여기 그것을 두었었다.
 그도 그 때에는 동의하었었다.

와 같이 들고서 이 ‘-았(었)었-’을 過去完了의 形態素로 規定하였다.¹¹⁾ 이 ‘-았었-’形을 筆者는 앞의 /-았-/을 動作相의 「完了相」形態素로 보고 뒤의 /-었-/은 叙法の 「回想法」形態素로 보는 바이나 여기서는 장황한 言及을 피하고 다음 章으로 미룬다.¹²⁾

2.1.3 다음 方言에서의 所謂 時制라고 하는 形態素들을 보기로 한다.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言衆들 間에서 흔히 주고 받아진다.

- (1) 느 그디서 뭐 햐엎디?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¹³⁾
 (2) 나 이디서 글 보얏수다. (나 여기서 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햐엎디’의 /-엎-/ , ‘보얏수다’의 /-얏-/과 같은 形態를 ‘現在 行動이 進行되고 있을 때에 限하여 쓰일 것’이라고 그 意義를 說明하고 /-ㅁ-/을 時制를 나타내는 要素라 보아 現在形이라 하였다.¹⁴⁾ 사실 이 /-얏-~-엎-/은 ‘行動・動作이 繼續되고 있음’을 意味하는 形態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이 /-얏-~-엎-/이 쓰인다.

注 10: 「現在完了形」이라고 하는 形態素에는 그 動作이 이제 막 끝나서 그 結果가 아직 들어나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過去形」과 意義上的 差異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명확히 區分을 짓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본다.

11: 崔鉉培; *Ibid.*, p.438.

12: 이 ‘-았(었)었-’을 南基心교수는 時相形態素로 보아서 「斷續相」이라 規定하였고 (『現代國語時制에 關한 問題』「국어국문학 제55~57호」, 1972, pp.213-38), 成善徹교수는 앞의 ‘-았(었)었-’은 過去를, 뒤의 ‘-었-’은 「經驗」을 즉 ‘-았었-’이 「過去の經驗」을 表現하는 形態素라 하였다. (『문법연구 제1집」, 광문사, 1974, pp.237-69)

13: 本 論攷에서 例로 드는 方言의 發話는 표준어로 對譯을 하여 () 안에 記入하여 넣는다.

14: 李崇寧; *Ibid.*, 1960, p.313.

(3) 느네 성 언제 서웁 감시니? (너의 형 언제 서울에 가니?)

(4) 널 감수다. (내일 잡니다.)

이 (3), (4)의 問答에 있어서 ‘감시니’, ‘감수다’에서의 ‘감-’은 未來의 行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각각 그 앞에 ‘언제’, ‘내일’이란 時間副詞가 있는 것으로 보아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은 發話도 言衆들 間에서 흔히 주고 받아진다.

(5) 가의 학교레 잡십테가? (그 애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까?)

(6) 가의 학교레 잡서라. (그 애 학교에 가고 있더라.)

이 (5), (6)의 問答에 있어서 ‘잡십테가’, ‘잡서라’에서의 /잡시-/와 /잡ㅅ-/은 發話時를 基準으로 하여 그 以前 즉 過去의 行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것은 先語末語尾의 /-테-/와 ‘-서-’의 /-어-/들로 하여 그렇게 制約해지는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ㅁ-~-ㅅ-/이 ‘現在 行動이 進行되고 있을 때에 限하여 쓰일 것’ 같이 보이지만 기실 그 用法들을 보면 ‘現在의 行動에 限해서’가 아니라 過去 혹은 未來를 意味하는 形態素와 함께 過去나 未來의 行動을 가리켜 말할 때에도 쓰여지는 것임을 위에 든 (3)에서 (6)까지의 例들에서 보아 능히 알 수 있다.

이러고 보면 /-ㅁ-~-ㅅ-/의 /-ㅁ-/이 時制 現在形만을 나타내는 要素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時制 形態素로 볼 것이 아니라 달리 그 意義와 機能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2.1.4 또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를 빈번히 들을 수 있다.

(7) 난 일 하영 흥엿저. (나는 일 많이 하였다.)

(8) 나도 그 사람 보았저. (나도 그 사람을 보았다.)

이 ‘흥엿저’ ‘보았저’의 /-ㅁ-~-ㅅ-/을 過去形의 形態라 한다.¹⁶⁾

注 15: 이 ‘-테-’와 ‘-서-’의 ‘-어-’와는 回想法의 形態素들이다.

16: 李崇寧; *Ibid.*, 1960, p.314.

또 다음과 같은 發話도 빈번히 들을 수 있다.

(9) 느네덜 밥 먹어시냐? (너희들 밥을 먹었느냐?)

(10) 예, 먹어(엇)수다. (예, 먹었습니다)

이 ‘먹어시냐’ 나 ‘먹어수다’에서의 /-어-/도 在來의 時制體系에서 먼 소위 ‘過去形’이라고 일컬을 形態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發話도 아주 빈번히 쓰이는데 이들은 命令法의 言述이다.

(11) 는 이더 아자시라. (넌 여기 앉아 있어라.)

(12) 는 이더 숨어시라. (넌 여기 숨어 있어라.)

이 命令法의 言述인 ‘아자시라’·‘숨어시라’에서의 /-아-~-어-/는 (9), (10)에 든 ‘먹어시냐’·‘먹어수다’에서의 /-어-/와 同一한 形態이다. 하지만 (9), (10)의 /-어-/는 時制를 認定하는 文法體系에서는 過去形이라고 規定할지 모르지만 命令法語尾 앞에 位置해 있는 (11), (12)에서의 /-아-~-어-/를 가지고서 過去形이라고 規定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方言 語尾構成의 形態 分析上에서 볼 때 이들은 그 意義와 機能이 同一한 것이다. 方言에서의 ‘아자시라’·‘숨어시라’를 표준어는 ‘앉아 있어라’·‘숨어 있어라’라고 對譯하여 놓았지만 方言에서의 이 語尾들의 意義를 충분히 表現하여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다.

위 (7)에서 (12)까지에 例로 든 語尾 形態素 /-앗-~-엇-/·/-아-~-어-/들을 同一한 意義, 機能의 것으로 規定하기 위해서는 所謂 時制의 文法體系에서가 아니고 다른 文法範疇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닐까 한다.

2.2 未 完 了 相

2.2.1 다음에 方言 原語民들의 對話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發話들을 놓고 그것들을 分析, 考察하여 「未完了相」의 形態素를 抽出하여 보

기로 한다.

(13) 애긴 울엄저. (애기는 울고 있다.)

(14) 철순 일함엄저. (철수는 일하고 있다.)

(15) 가원 질해서 놀암저. (그 애는 집에서 놀고 있다.)

이들은 方言 言語 사회에서 아주 빈번히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發話가 言述되어지는 데는 서너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例를 (14)의 ‘철순 일함엄저’로 들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철수’가 實際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때이겠다. ‘철수’가 實際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철수’의 친구 아이가 찾아 온다거나 ‘철수’의 부모는 ‘철순 일함엄저’라고 言述하여 말할 것이다. 이것이 보통으로 있게 되는 경우의 發話이고 大部分의 發話가 이 類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위의 發話는 實際로 ‘철수’가 「일하고 있는 중」 즉 「일하는 行動을 繼續하고 있다」는 點을 言述한 것이 된다. 말하자면 「일하고 있는 그 行動·動作의 繼續」을 놓고서 ‘일함엄저’라고 言表한 것이다.

다음 둘째로는 ‘철수’의 친구가 귀찮게 자주 찾아 오는 바람에 찾아온 그 친구로 하여금 ‘철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實際로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發話(철순 일함엄저.)를 하여서 찾아 온 친구를 그저 보내 버리는 경우이겠다. 이런 경우는 바로 ‘거짓말’ 發話가 되는 것이다.

다음 셋째로는 남(他人)이 한 發話를 引用해서 傳達하여 言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表面上 同一하게 보이는 여러 發話가 그 內容 意味上에 있어서 각기 差異가 있음은 물론이고 動作主의 動作의 繼續을 나타내는데 있어서도 그 實際 行하여지는 경우와 위의 둘째, 셋째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實際 動作은 行하여지지 않았는데도 動作이 행하여진 것과 같이 하여서 그 動作을 言述한다. 表面上 同一하게 보이는 여러 發話가 그 場面的 條件에 따라 각기 그 內面意味가 差異있다 하더라도 그 여러 發話는 基本的이고도 標準의인 하나의 發話로 묶이게 된다. 거기에는 發話上 공통된 音聲的 要素가 있다고 認定하게 되며 同時に 意味上에 있어

서도 共通된 要素가 있다고 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音韻論에 있어서 한 개의 音素가 實際 發音上에서는 여러 變異音으로 產出되어지나 이들 變異音은 基本的이고도 標準的인 한 개의 音素로 묶이게 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現象이라 하겠다. 위에 例로 든 發話 ‘철순 일하엿저’는 그 여러 發話의 內容 意味는 각기 다를망정 어떤 共通的인 일정한 意義를 지닌다고 하게 된다. 그것은 곧 이 ‘철순 일하엿저’란 發話를 文字化하여 하나의 文章으로 表記하여 놓았을 때 그 文章이 지니는 意義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위에 例로 든 ‘철순 일하엿저’는 間或 거짓말로 또는 引用文으로 發話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가 現實的으로 實際 ‘철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일 때, 그 「動作의 繼續」을 놓고서 發話해진다고 볼 것이다.

2.2.2 위에 例로 든 (13), (14), (15) 各文章에 있어서 ‘애긴 울엄저.’ (애기는 울고 있다.), ‘철순 일하엿저.’ (철순은 일하고 있다.), ‘가원 질해서 놀암저.’ (그 애는 집에서 놀고 있다.)들은 모두 同一한 文型 즉 「主語 + 述語」 文型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文章에서 言述된 動作의 主體는 第3人稱者이다. 第3人稱者의 動作을 第1人稱者가 言述한 것들이다. 第1, 第2人稱者의 動作을 나타내는 위의 例들과 同一한 文型の 發話들은 없을 것인지를, 原語民들의 對話에서 들추어 내어 보면,

(16) 난 이디서 일하엿저.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다.)

(17) 난 집의서 놀암저. (나는 집에서 놀고 있다.)

위의 發話 (16)의 ‘난 이디서 일하엿저.’를 「自己 自身の 일하고 있는 動作의 繼續」을 나타낸다 할 때 그 動作은 第1人稱者의 動作이고 또 이 發話에서의 發話者도 第1人稱者이다. 또 (17)의 ‘난 집의서 놀암저.’는 發話者인 動作者가 어디 일하러 다니지도 못하고 그저 집에서 그날 그날 無爲하게 보내는 行動 즉 每日 連續的인 「노는 行動의 繼續」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이 ‘집의서 놀암저’를 反復行爲를 指示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위에 든 (16), (17)의 發話는 第1人稱者가 言述한 것인데 이런 類例의 發話 즉 第1人稱者가 자신의 行動, 動作을 言述하는 發話란 좀 드물다.

(18) 는 너의 지치게 일함저. (너는 너무 피곤하게 일하고 있다.)

(19) 는 잘도 놀암저. (너는 잘도 놀고 있다.)

이 (18), (19)의 發話와 같은 言述도 흔하지는 않다. 그것은 第2人稱者 즉 相對者의 行爲, 動作을 相對者에게 直接的으로 言述할 必要性이 없는 데서의 당연한 歸結이라 하겠다. 아무튼 (18)의 ‘일함저’와 (19)의 ‘놀암저’는 「일하는 動作의 繼續」, 「노는 行動의 繼續」들을 나타내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2.2.3 다음 또 原語民들의 對話에서 빈번히 들을 수 있는 發話로서 他動詞로 表示되는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20) 아밤은 밭 갈암저. (아버지는 밭을 갈고 있다.)

(21) 가원 밤 하영 먹암저. (그 애는 밥을 많이 먹고 있다.)

(22) 복실인 놀래 불럼저. (복실이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들 發話에서 (20)의 ‘갈암저’(耕)는 그 動作 主體인 ‘아버지’의 「밭을 가는 動作의 계속」을 나타내고, (21)의 ‘먹암저’도 그 動作 主體인 ‘그 애’의 「밥을 먹는 動作의 계속」을 나타내고, 또 (22)의 ‘불럼저’도 역시 그 動作 主體인 ‘복실이’의 「노래를 부르는 動作의 繼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은 앞에서 든 (13)에서 (19)까지의 例에서 動詞들이 각기 나타내는 「動作의 계속」과 完全 一致하는 것이다. 그 文章의 構成으로 보아서는 앞의 것이 「主+述」文型인데 대하여 이것들은 「主+目+他動」文型이지만 前, 後者들에 있어서 각기 定動詞들이 나타내는 「動作의 繼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完全 一致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20), (21), (22)의 文章에서 言述된 動作主는 모두 第3人稱者들이다.

다음 「主+目+他動」文型에서 第1人稱者 혹은 第2人稱者가 動作主인 경우의 發話를 들어 보기로 한다.

(23) 난 밥 이더서 먹₁었저. (나는 밥을 여기서 먹고 있다.)

(24) 난 놀래 불₁렀저.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23)의 ‘난 밥 이더서 먹₁었저.’란 發話는 動作主(發話者요 第1人稱者)가 지금 밥 먹는 動作을 하고 있는 중인데 相對者(말을 주고 받는 손아래 사람)는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自己 집에 와서 밥 먹기를 권할 때에 흔히 言述하여진다. 또 (24)의 ‘난 놀래 불₁렀저.’는 動作主(發話者요 第1人稱者)가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인데 친구가 들어 오면서 ‘너 뭐 하고 있니?’라고 물었을 경우 같은 때에 對答으로 言述해지는 發話이다. (23)의 ‘먹₁었저’나 (24)의 ‘불₁렀저’나 모두 第1人稱者의 「動作의 繼續」을 나타내고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25) 는 밥 잘도 먹₁었저. (너는 밥을 잘도 먹고 있다.)

(26) 는 놀래 잘도 불₁렀저. (너는 노래를 잘도 부르고 있다.)

이 (25), (26)과 같은 發話의 言述은 非生産의이다 함은 (18), (19)의 例에서 言及한 바와 같다. 또 이들 發話가 좀 感嘆의인 意味를 띠다가 혹은 肯定대고서 言述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들 (25)에서의 ‘먹₁었저’는 第2人稱者(相對者)의 「먹는 動作의 계속」을, (26)에서의 ‘불₁렀저’도 역시 第2人稱者(相對者)의 「노래를 부르는 動作의 繼續」을 나타내고 있음은 (21), (22)들에서의 ‘먹₁었저’, ‘불₁렀저’와 마찬가지로 이다.

2.2.4 以上에서 第3人稱者, 第1人稱者 및 第2人稱者의 「動作의 계속」을 平叙文을 통하여 보아 왔다. 다음은 疑問文에서 같은 動作主들의 動作을 나타내는 發話들을 들어 보기로 한다.

原語民들의 對話에서 다음과 같은 發話를 흔히 들을 수 있다.

(27) 는 공부 하₁었다? (너는 공부하고 있느냐?)

(28) 는 밥 먹₁었다? (너는 밥을 먹고 있느냐?)

(29) 느도 놀래 불₁렀다? (너도 노래 부르고 있느냐?)

(30) 는 집의서 놀^ㅁ압다? (너는 집에서 놀고 있느냐?)

이들은 모두 相對者(第2人稱者)에 대한 直接的인 질문인 것이다. 이들은 相對者(第2人稱者)의 「行動·動作의 계속」을 묻는 것이다. (27)의 「공부^ㅁ압다?」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가?」, (28)의 「밥 먹^ㅁ압다?」는 「밥을 먹고 있는 중인가?」를, (30)의 「놀^ㅁ압다?」는 「놀고 있는 중인가?」라고 各各 相對者(第2人稱者)에게 묻는 것이다.

이러한 相對者(第2人稱者)에 直接的인 質問의 發話는 方言에서는 매우 빈번히 쓰인다.

그런데 第1人稱者에 대한 質問文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第3人稱者에 대한 質問文도 /-압-~-엄-/形으로서는 言述되어지지 않는다. 단지 疑問法語尾 「-고」가 接尾될 경우에만 /-압-~-엄-/形態가 나타날 뿐이다.

(31) 이 애기도 말 졸^ㅁ압고? (이 애기도 말하느냐?)

(32) 야의도 학교에 뎡^ㅁ접고? (이 애도 학교에 다니고 있느냐?)

이들 發話에 있어서 「말 졸^ㅁ압고」, 「뎡^ㅁ접고」들은 반드시 動作이 現在 계속 중에 있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反復的인 行動을 가리켜 말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行動·動作의 계속」을 가리켜 發話해지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다.

(33) 가의 지금 공부^ㅁ압고? (그 애 지금 공부하고 있느냐?)

(34) 철수도 가의^ㅁ하고 놀^ㅁ압고?

(철수도 그 애하고 함께 놀고 있느냐?)

들과 같은 發話가 言述해진다. 이들 「공부^ㅁ압고」, 「놀^ㅁ압고」들은 現在의 「行動의 계속」을 묻는 發話들이다.

위와 같이 하여 疑問文에서도 平叙文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기 文章에 있어서 第2人稱者, 第3人稱者의 動作을 表示하는 定動詞語尾는 어느 것이나 모두 그 「動作의 繼續」을 묻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2.5 위의 各項에서 考察한 바에 의하면 平叙文에서나 疑問文에서나 各各 그 定動詞은 動作主의 「動作의 계속」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았다. 다음으로 그러면 各 定動詞에 있어서 「行動・動作의 繼續」을 나타내는 形態素는 어느 것인가를 위의 各其 發話에서 抽出하여 내어야겠다. 위에 들었던 發話들을 다시 여기 引用해가며 그 語尾 構成體를 分析하고 나아가 「動作의 繼續」을 나타내는 形態素를 抽出하여 보려 한다.

- 애¹긴 울²엄³저. (애¹기는 울고 있다.)
- 철¹순 일²하³엄⁴저. (철¹수는 일하고 있다.)
- 가¹원 질²해서 놀³아⁴엄⁵저. (그 애¹는 질에서 놀고 있다.)
- 아¹방은 밧 갈²아³엄⁴저. (아¹버지는 밧을 갈고 있다.)
- 가¹원 밥 먹²아³엄⁴저. (그 애¹는 밥을 먹고 있다.)
- 복¹실인 놀²래 불³럼⁴저. (복¹실이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들 發話에 있어서 ‘울²엄³저’의 動作主는 ‘애¹기’이고, ‘일²하³엄⁴저’의 動作主는 ‘철¹수’, ‘놀³아⁴엄⁵저’의 動作主는 ‘가¹의’, ‘갈²아³엄⁴저’의 動作主는 ‘아¹방’, ‘먹²아³엄⁴저’의 動作主는 ‘가¹의’, ‘불³럼⁴저’의 動作主는 ‘복¹실’이다. 이들은 모두 第3人稱者들이다.

그런데 위의 發話들에 있어서 ‘울고 있다’는 斷定, ‘놀고 있다’는 斷定, ‘먹고 있다’는 斷定 등 이러한 判斷, 斷定을 내리는 것은 누구일까. 그것은 動作主 自身은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發話를 言述하는 發話者이다. 그러나 發話者가 곧 判斷者로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러한 肯定的 斷定文이 나타나는 경우를 網羅하여 생각한다면 第1人稱者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發話들에 있어서는 그 判斷主는 第1人稱者라 하여 둔다. 그러면 위의 發話들은 第1人稱者(이들 發話에서는 ‘發話者’라 해도 좋음)가 각기 判斷을 내린 發話라 할 때 그 「判斷임」을 指示해 주는 形態素는 어느 것일까? 그것은 다음아닌 各 發話에 있어서 定動詞의 語末語尾 ‘-저’이다.

이 /-저/야말로 第1人稱者(發話者)의 肯定的 斷定임을 表示해 주는 形態素이다.

위의 發話を 다시 들면서 分析을 하여 보면 ‘애긴 울엄저’에 있어서 이 定動詞 ‘울엄-’까지가 動作主 ‘애기’의 動作이고 /-저/는 第1人稱者(發話者)의 肯定的 斷定을 表示하는 形態素인 것이다. 또 ‘철순 일함엄저’에 있어서도 ‘일함엄-’까지가 動作主 ‘철순’의 動作이고, /-저/는 역시 第1人稱者(發話者)의 肯定的 斷定을 表示하는 形態素인 것이다. ‘가윈 질해서 놀암저.’에 있어서는 이 定動詞 ‘놀암저’에서 ‘놀암-’까지가 動作主 ‘가윈’의 動作이고 /-저/는 역시 第1人稱者(發話者)의 肯定的 斷定을 表示하는 形態素인 것이다.

위의 各 發話에서 定動詞의 語末語尾(final ending) /-저/는 모두 이 와 같이 分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如一하게 分析하여 버리고 나면 結局 各 定動詞의 語幹과 先語末語尾(Prefinal ending) /-암-~-엄-/이 남게 되는데 이 /-암-~-엄-/이 바로 「動作의 未完了」(繼續)를 表示하는 形態素이라고 하게 된다. 즉 이 /-암-~-엄-/은 주로 動作動詞의 語幹에 接尾되어서 그 動作動詞가 指示하는 「動作의 未完了」(繼續)를 表示하는 形態素이다.

2.2.6 先語末語尾 /-암-~-엄-/이 「動作의 未完了」(繼續)를 表示한다 할 때 그 「動作의 未完了」(繼續)는 또한 「現在」의 動作이나 아니냐가 問題된다. 다음과 같은 發話에서는 이 /-암-~-엄-/이 바로 現在의 動作을 指示하는 것 같기도 보인다.

- (35) 난 감저. (나는 잔다.)
- (36) 난 밥 먹엄저. (나는 밥 먹고 있다.)
- (37) 기윈 오람저. (그 애는 오고 있다.)

이 ‘감저’·‘먹엄저’·‘오람저’들은 모두 現在의 動作들이다. 따라서 이 /-암-~-엄-/을 時制의 名稱으로 「現在」 혹은 「現在進行」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發話도 매우 빈번히 言衆들 間

에서 주고 받아진다.

(38) 느네 성 언제 서웁서 오람시니? (너의 형 언제 서울에서 오니?)

(39) 널 오람수다. (내일 옵니다.)

이 (38)과 (39)는 年上者와 年下者 사이의 問答이다. (38)의 ‘오람시니’는 앞에 ‘언제’란 副詞가 있으므로 不定時의 行動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39)의 ‘오람수다’는 또 앞에 ‘내일’이라는 副詞가 있으므로 未來의 行動에 대하여 言述한 것임이 틀림없다.

이와 같이 /-암-~-엄-/을 갖고 現在의 行動·動作에 對해서만 言述해지는 것이 아니라 未來 혹은 過去의 行動·動作에 對해서도 이 /-암-~-엄-/ 形態素로 言述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過去의 例를 역시 言衆들 간의 對話에서 들어 보면,

(40) 철순 아적의 학교래 감서라. (철수는 아침에 학교에 가고 있더라.)

(41) 가원 그더서 밥 먹엄십데다.

(그 애는 거기서 밥을 먹고 있었읍니다.)

들과 같이 (40)의 ‘감서라’는 過去에 있었던 動作主의 動作에 대하여 경험한 바를 回想하여 言述한 것이고 (41)의 ‘먹엄십데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過去에 動作主의 動作에 대하여 경험한 바를 回想하여 言述한 것이다. 이와 같이 過去의 어느 때에 있어서 어떤 動作이 繼續 중에 있던 것을 回想하고서 그 繼續的인 動作, 未完了의 動作을 /-암-~-엄-/ 形態素로서 言述하는 것이다.

2.2.7 以上과 같이 하여 現在의 어떤 繼續的인 未完了의 行動·動作에만이 아니고 過去나 未來의 어떤 繼續的인 行動·動作을 表示하는데 있어서도 이 形態素 /-암-~-엄-/으로써 言述하게 된다. 이 事實, 즉 過去나 未來의 어떤 繼續的인 行動·動作을 言述할 경우에도 /-암-~-엄-/으로써 言述한다는 事實, 이것은 /-암-~-엄-/이 바로 時制「現在」를 指示하는 形態素라고 斷定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現在·

過去·未來」는 時制의 基本的인 三區分인데 어떤 事象이 일어나는 狀態나 또는 그 움직임이 話者가 말하고 있는 時間과 同時의이면 現在가 되고 그 以前일 때는 過去라 하고 나중이면 未來라고 한다.

이러한 時制 區分의 觀點에서 본다면 (38)과 (39)의 例 ‘오람시니’, ‘오람수다’는 未來라 하여야 할 것이요, (40)과 (41)의 例 ‘잠서라’, ‘먹읍십메다’들은 過去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압-~-엄-/을 時制의 觀點에서 보아 「現在」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時制形態素들과는 다른 文法範疇의 것으로 다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위에서 (13)으로부터 (41)에 이르면서 줄곧 보아 온 바 /-압-~-엄-/은 各其 어떤 「動作의 未完了」(繼續)을 表示하는 形態素였다. 이 「動作의 未完了」(繼續)란 「動作의 樣相」의 한가지이다. 이 「行動·動作의 樣相」을 表示하는 言語形式을 文法에서는 「時相」(aspect), 또는 「動作相」(Aktionsart)이라 부른다. 時相 또는 動作相은 動詞自體의 意味, 動詞의 文脈에 따른 意味, 接尾辭 등으로 表示되어진다. 方言에서는 動作動詞의 語幹에 形態素 /-압-~-엄-/이 接尾되어져서 「動作의 樣相」을 表示하는데 이 形態素 /-압-~-엄-/이 바로 「動作相」을 나타내는 形態의 한 가지가 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方言에서의 /-압-~-엄-/이 줄곧 「動作의 未完了」(繼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를 「未完了相」(imperfective)의 形態素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기 方言에서의 /-압-~-엄-/은 動作相을 指示하는 것으로 規定하여 「未完了相」(繼續相)을 表示하는 形態素라 하여 둔다.

「未完了相」이란 어떤 「行動·動作이 繼續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樣相」을 말한다. 「未完了相」에 있어서의 行動·動作은 現在의 것에 限하지 않는다. 그것은 過去로부터 未來를 향하여 無限히 흘러가는 線上에서의 어느 時點에서 行하여지는 것이라도 無妨하다. 곧, 現在時點에서는 勿論 過去나 未來時點에서 行하여지는 바의 어떤 行動·動作이라도 그것이 繼續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樣相을 지닐 때 그것을 指稱하여 動作相體系에서 「未完了相」이라고 하게 된다. 여기 方言에서 /-압-~-엄-/을 「未完了相」을 表示하는 形態素라고 斷定하여 둔다.

2.3 完了相

2.3.1 위의 2.2에서는 方言 定動詞 語尾活用에서 「未完了相」의 形態素를 分析 抽出하여 내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方言의 定動詞 語尾活用에서 「完了相」이라 할 形態素를 抽出하여 보기로 한다. 前과 마찬가지로 方法으로 그 資料를 原語民들의 發話에서 추려 내어서 그들을 分析하고 나아가 「完了相」 形態素를 抽出하기로 한다.

(42) 철순 일하^ㅆ었저. (철수는 일을 하였다.)

(43) 가원 학교에 갔^ㅆ저. (그 애는 학교에 갔다.)

(44) 아진 오래 놀^ㅆ았저. (애기는 오래 놀았다.)

이들 發話에서 (42)의 ‘일하^ㅆ었저’는 ‘일하는 動作이 다 끝났음’을 나타내고, (44)의 ‘놀^ㅆ았저’도 ‘노는 行動을 다 마쳤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 發話의 定動詞語尾는 「動作의 完了」를 表示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發話들은 모두 「主+述」文型의 단순한 것인데, 다음에 目的語를 要하는 他動詞 構文의 例들을 들어 보기로 한다.

(45) 철순 그 책 다 읽^ㅆ었저. (철수는 그 책을 다 읽었다.)

(46) 아진 젓 하영 먹^ㅆ었저. (애기는 젓을 많이 먹었다.)

(47) 아방은 밭 다 갈^ㅆ았저. (아버지는 밭을 다 갈았다.)

이들 發話에서도 (45)의 ‘읽^ㅆ었저’는 ‘책을 읽는 動作을 마쳤음’을 나타내고, (46)의 ‘먹^ㅆ었저’는 ‘먹는 動作을 끝냈음’을 나타내고, (47)의 ‘갈^ㅆ았저’는 ‘밭 가는 動作을 마쳤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 發話에서도 定動詞 語尾는 모두 「動作의 完了」를 表示해 주고 있다.

다음 問答式 對話에서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48) 철순 학교에 나갔^ㅆ테가? (철수는 학교에 나갔니까?)

(49) 오, 나갔^ㅆ저. (오, 나갔다.)

(50) 복실이 오늘 밧되 간 뉘 흠테가?

(복실이 오늘 밧에 가서 뉘을 합디까?)

(51) 가의 밧되서 검질 메엿저. (그 애는 밧에서 김을 매었다.)

이 두 對話에서 (48)의 質問文 ‘나갓테가’와 (50)의 質問文 ‘흠테가’는 그 語尾 構成의 形態가 同一하다. 즉 疑問法의 語尾 ‘-가’는 勿論, 이에 先行된 先語末語尾 ‘-테-’도 同一한 形態로 構成되어 있다. 그런데 이 ‘-테-’는 方言의 語尾構成體에서는 回想法의 形態素로 分析되는 것이다. 回想法이란 이미 經驗이 끝난 일을 回想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미 經驗이 끝난 일에 대하여 回想시켜 質問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對答은 또한 이미 끝난 일에 대한 것이 아니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49)의 ‘오, 나갓저’와 (51)의 ‘가의 밧되서 검질 메엿저.’는 모두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對答하여 말하는 것이 된다. 그 語尾들을 分析하여 볼 것까지도 없지만 여기 잠간 考察하여 보면 (49)의 ‘나갓저’는 ‘나가는 動作이 끝났음’을 나타내고, (51)의 ‘메엿저.’는 ‘기움을 매는 行동을 마쳤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3.2 위의 (42)에서 (51)에 이르면서 考察하여 온 發話에서는 그 動作主가 모두 第3人稱者이다. 다음은 第1人稱者와 第2人稱者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52) 난 밤 하영 먹엿저. (나는 밤을 많이 먹었다.)

(53) 나도 그전 알앗저. (나도 그것은 알았다.)

(54) 난 이 집의 살앗저. (나는 이 집에 살았다.)

이들 例에서 보듯이 第1人稱者가 動作主로 되는 경우 그 ‘動作이 끝남’을 表現하는 發話는 方言에서 빈번히 言述해진다. 이들에서 (52)의 ‘먹엿저’는 위에서 說明한 바이고, (53)의 ‘알앗저’는 어떤 事象에 대하여 ‘아는 그 意識活動이 끝났음’을 나타내고, (54)의 ‘살앗저’는 過去에 얼마 동안 살다가 이제는 그 ‘사는 行동을 끝내서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55) 는 그 일 잘 하었저. (너는 그일을 잘 하였다.)
 (56) 는 그거 잘 먹었저. (너는 그거 잘 먹었다.)
 (57) 는 이제사 오랏고나! (너는 이제야 왔구나!)
 (58) 는 새옷 입었고나! (너는 새옷을 입었구나!)

第2人稱者が 動作主인 경우 發話者の 肯定的 斷定을 表示하는 ‘-저’로 終結되는 發話는 非生産的이다. 이것은 相對者(第2人稱者)의 行動·動作을 斷定하여 相對者에게 말하기는 特殊한 場面에서가 아니면 드문 일이므로서다.

(55)의 ‘는 그 일 잘 하었저’란 發話는 文章上으로는 相對者가 그 일을 잘 한 것으로 칭찬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其實 話者의 心衷인직 肯定대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56)의 ‘는 그거 잘 먹었저’도 마찬가지이다. (57), (58)은 그 語末 語尾가 모두 感嘆法으로 끝나 있는 것들이다. 發話 全體의 內面的 意味는 如何든 하고 이들 定動詞들은 亦是 모두 그 ‘行動·動作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57)의 ‘오랏고나’는 ‘오(來)는 動作이 끝났음’을, 또 (58)의 ‘입었고나’는 ‘입는 動作이 끝나서 現在 입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3.3 위에서는 主로 平叙文에서의 第3人稱者, 第1人稱者의 「動作의 完了」를 表示하는 發話들을 보아 왔다.

다음은 疑問文에서 우선 相對者(第2人稱者)에게 直接 質問하는 例들을 들어 보기로 한다.

- (59) 는 밥 먹었나? (너는 밥 먹었느냐?)
 (60) 는 그 책 다 읽었나? (너는 그 책을 다 읽었느냐?)
 (61) 느도 그거 보았나? (너도 그것 보았느냐?)
 (62) 는 그더까지 걸었 간다? (너는 거기까지 걸어서 갔나?)
 (63) 는 어디 간 오란디? (너는 어데 갔다 왔니?)

들과 같은 發話들이 日常 빈번히 주고 받아 지는데, 이들에게서 疑問法의 語尾는 ‘-다, -디’이고, 動作을 나타내는 形態들은 ‘먹언-, 익언-, 보안-’들이다. 그런데 「未完了相」에서는 平叙文과 疑問文의 先語末語尾가 모두 同一하게 /-암-~-엄-/이었는데, 本節에서는 平叙文에서와 疑問文에서 各其 그 形態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意義는 다 마찬가지로 「動作의 完了」를 나타내고 있다. (59)의 ‘먹언다’는 ‘먹는 動作을 끝냈느냐?’, (60)의 ‘익언다’는 ‘읽는 動作을 다 끝냈느냐?’, (62)의 ‘걸언 간다’도 亦是 ‘걸어서 가는 動作을 다 끝냈느냐?’는 意義를 各 各 나타내고 있다.

다음 第3人稱者의 動作을 나타내는 疑問文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64) 가의 밥 먹언가? (그 애 밥 먹었는가?)

(65) 철수도 학교에 간가? (철수도 학교에 갔는가?)

(66) 가의도 이 책 익언가? (그 애도 이 책을 읽었는가?)

들과 같이 言述되는데, 第3人稱者의 動作을 間接的으로 質問하는 發話들이다.

여기서 疑問法의 語尾는 /-가/이다. (59)에서 (63)까지의 發話는 모두 第2人稱者에게 直接으로 相對者의 動作에 對하여 質問하는 것으로 그 疑問法語尾는 /-다/로 表示되었다. 그러나 (64)에서 (66)까지의 發話는 相對者(第2人稱者)에게 第3人稱者의 動作을 間接的으로 質問하는 것인데 그 疑問法語尾는 /-가/로 表示되고 있다. 여하튼 (64)의 ‘먹언가’는 第3人稱者가 ‘먹는 動作을 마쳤는가?’, (65)의 ‘간가’는 ‘가는 行動을 끝마쳤는가?’, (66)의 ‘익언가’는 ‘읽는 動作을 끝마쳤는가?’의 意義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59)에서 (66)까지에 이르면서 各 動作動詞들은 한결같이 「動作의 完了」를 表示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고/語尾로 表示되는 疑問法이 있다.

(67) 복실이 새 옷 입었고? (복실이 새 옷 입었나?)

(68) 가의 새 신 신었고? (그 애 새 신 신었나?)

(69) 철수 어디 갔고? (철수 어디 갔나?)

이들도 第3人稱者의 行動·動作을 間接적으로 質問하는 發話들인데 이들에서는 疑問法語尾가 ‘-고’로 言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言述을 言衆들의 對話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극히 드문 것이긴 하지만, (59)에서 (66)까지의 例에서 보아 온 先語末語尾 /-안-~-언-/과는 달리 /-았-~-었-/에 疑問法語尾 ‘-고’가 接尾되어 있는 것이 特異하다고 하겠다.

이 疑問法語尾 /-고/의 用例는 新羅 時代의 所謂 鄉歌 表記에서부터 朝鮮朝 時代의 文獻上에 줄곧 보이는 바이나¹⁷⁾ 그러나 完了相이라고 할 수 있는 /-았-~-었-/에 疑問法語尾 /-고/가 直接 連結되어 있는 이 語尾構成法은 特異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 構成의 語尾로 第2人稱者의 行動·動作을 質問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70) 느도 그 사람 보았고? (너도 그 사람 보았나?)

(71) 느도 그거 먹어 보았고? (너도 그것 먹어 보았나?)

(72) 느도 방의서 공부해엿고? (너도 방에서 공부하였나?)

이와 같은 發話는 第2人稱者(相對者)에게 直接으로 質問하는 것이니 만큼 빈번히 쓰일 것 같은데, 같은 疑問法語尾 ‘-안다’ 形에 밀려서인지 特別한 場面에서 아니면 잘 言述해지지 않는 극히 드문 것이다.

2.3.4 위의 (42)에서부터 (72)에 이르면서, 각기 發話에서 그 動作主의 動作을 나타내는 動詞의 語尾들은 한결같이 ‘行動·動作의 完了’를 나타내는 것임을 보아 왔다. 다음으로 그러면 그들 動詞들의 語尾를 分析하여 어느 語尾 形態素가 「動作의 完了」를 指示해 주는가를 分析해 내어야 하겠다. (42)에서 (56)까지의 例에 있어서는 (48), (50)를 除外하고는 그 語末語尾가 全部 /-저/로 되어 있다. 이 /-저/는 앞의 節에

注 17: 毛如云遺去內尼叱古<祭亡妹歌>. 鳳凰과 麒麟과 논어 및 잇는고 <杜謠 十六·63>

서 論한 바와 같이 第1人稱者의 肯定的 斷定을 表示하는 形態素이었다. 이 肯定的 斷定을 表示하는 形態素 /-저/는 그 發話(文章)에서의 動作主가 行爲하는 動作과는 아무 相關이 없는 것임을 보았다. 다음으로 (59)에서 (63)까지의 疑問法의 發話を 보면 그 語末語尾는 거의 /-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다/는 疑問法의 語尾를 指示하는 形態素라고 斷定해 둔다. 現代 標準語에 있어서는 語末語尾 /-다/는 肯定的 斷定을 指示하는 形態素이지만 오늘날 方言의 語尾 構成體系에 있어서는 疑問法語尾인 것이다. 이것은 15, 6세기 혹은 그 以前의 疑問法語尾가 아직 方言에 남아있는 것인데, 章을 달리 하여 考察하려 한다. 다음 (64)에서 (66)까지에 든 例에서는 /-가/로 疑問法이 終結되어 있다. 이 /-가/ 또한 疑問法語尾라고 斷定을 한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빈번히 言述되어지는 語尾는 아니지만 /-고/가 있다. 이 /-고/ 또한 疑問法語尾임은 두말 할 것 없다.

이와 같이 (42)에서 (72)까지에 이르면서 例로 든 方言의 發話에서 그 定動詞의 語末語尾를 各各 分析해 버리고 나면 위에 例로 든 發話의 定動詞에 있어서는 先語末語尾만이 남게 된다. 그 先語末語尾 또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앗-~-엇-/이요, 다른 하나는 /-안-~-언-/이다. (42)에서 (58)까지와, (67)에서 (72)까지의 例에 있어서는 /-앗-~-엇-/이 語幹에 直接 接尾되어 있고, (59)에서 (66)까지의 例에 있어서는 /-안-~-언-/이 語幹에 直接 接尾되어 있다. 위에서 줄곧 追跡하여 온 「行動・動作의 完了」라는 意義를 負擔하게 되는 形態는 바로 이 두 /-앗-~-엇-/과 /-안-~-언-/ 밖에 없다. 여기서 이 두 /-앗-~-엇-/과 /-안-~-언-/은 「行動・動作의 完了」를 表示하는 形態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動作의 完了」는 「動作의 樣相」의 한 가지이다. 곧, 「動作의 樣相」中の 「完了相」이 된다.

方言에서 /-앗-~-엇-/과 /-안-~-언-/이 「動作의 完了」를 表示한다고 할 때 그것은 곧 「完了相」이 되는 것이라 본다. 여기 方言에서 /-앗-~-엇-/과 /-안-~-언-/을 「完了相」을 表示하는 形態素라고 斷定하여 둔

다.

2.3.5 위의 2.3.4에서 ‘먹었저·먹었다’를 分析, 規定하였다. 그리하여 이 /-았-~-었-/과 /-안-~-었-/을 「完了相」을 表示하는 形態素라고 斷定하였다. 이렇게 分析되고 보니 이 「完了相」의 /-았-~-었-/과 /-안-~-었-/은 前節 2.2에서 考察한 ‘먹었저, 먹었다’의 先語末語尾 /-았-~-었-/과 相應하여 對立關係에 있음을 豫見케 한다. 위에서 들었던 例에서 平叙法과 疑問法만을 여기 다시 列擧하여 對照시켜 보려 한다.

未完了相

<平 叙>

먹었저 (食)

보았저 (見)

놀았저 (遊)

받았저 (受)

들었저 (入)

막았저 (防)

닫았저 (閉)

完了相

<平 叙>

먹었저

보았저

놀았저

받았저

들었저

막았저

닫았저 等

未完了相

<疑 問>

먹었다 (食)

보았다 (見)

놀았다 (遊)

받았다 (受)

들었다 (入)

막았다 (防)

닫았다 (閉)

完了相

<疑 問>

먹었다

보았다

놀았다

받았다

들었다

막았다

닫았다 等

들과 같이 無數히 그 對立되는 動詞를 對照시켜 볼 수 있다. 前節 2.2에서와 本節에서 分析하여 온 바이지만 /-았-/ 對 /-았-/ , /-았-/ 對 /-안-/의 整然한 對立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 動作主의 動作을 指

示하는 「未完了相」과 「完了相」은 이와 같이 方言의 定動詞 活用語尾에서 整然한 體系로 對立되어 있는 것이다. 標準語에서 近者에 時相에 關하여 言及되는 바를 보면 ‘-고 있다’를 繼續相의 形態素로, ‘-아 있다’를 完了相의 形態素로 보고 있다.¹⁸⁾ 또 ‘-었다’形을 完了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標準語에서의 繼續相 ‘-고 있다’形 對 完了相 ‘-었다’形의 對立狀況에 比하면 方言에서의 /-았-~-었-/對 /-았-~-었-/의 對立狀況은 놀라울 정도로 整然한 바 있다. 우선 動作相 形態素의 語形構成法부터가 전혀 判異하다. 標準語에는 完了相 ‘-었다’에 對立되는 繼續相의 形態가 ‘-고 있다’이다. 이 /-었-/對 /-고 있-/의 對立狀況은 그 語形 對應에 있어서 매우 整然치 못하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方言에서는 公교롭게도 動作相 形態素를 表示하는데 /m/을 援用하게 된 것이 하나의 長點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 /m/으로써 「繼續」의 意義를 나타내게 되므로 自然 「完了」의 意義를 나타내는 /n/, /t/와 對立의 雙을 짓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 /m/의 援用은 濟州島 方言의 動作相 語尾體系에서 文法範疇를 確立시켜 주고 方言 語尾活用の 한 가지 特徵을 지워 준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2.4 未完了存續相

2.4.1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들이 아주 빈번히 言衆들 間에서 주고 받아진다.

- (73) 자원 그 일로 즈들암시네. (저 애는 그 일로 근심하고 있다.)
- (74) 가원 아직 잠시키여. (그 애는 아직 자고 있겠다.)
- (75) 훈저 일어나라, 헤 트엄시네. (얼른 일어나거라, 헤 뜨고 있다.)

이들 發話에서 그 動作을 言述한 動詞들의 先語末語尾는 모두 同一한

注 18: 張奭鎭; “時相의 樣相: 繼續・完了의 生成의 考察”, 『語學研究 9-2』, 서울大, 1973, pp.58-72.

形態를 하고 있다. (73)의 ‘즈들암시네’는 그 基本形이 ‘즈들다’이고, (74)의 ‘잠시키여’는 ‘자다’가 基本形이며, (75)의 ‘트엄시네’는 역시 ‘트다’가 그 基本形이다.

이들 基本形의 語幹에 接尾되어 있는 形態들이 한결같이 /-암시-~-엄시-/이다. 이 /-암시-~-엄시-/가 과연 어떤 意義를 지닌 形態素일까? 이 /-암시-~-엄시-/는 두 개의 形態素로 處理될 것인지 또는 單一形態素로 될 것인지 등이 疑問이다. 우선 이러한 發話가 言述되어지는 場面부터 생각해 보기로 한다. (73)에서는 動作의 主體인 ‘자의’가 어떤 일로 해서 매우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즉 心的 苦悶을 表面에 들어내어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중’인 때에 發話者는 그 表情과 行動을 보고서 ‘자원 그 일로 즈들암시네.’란 發話를 하게 된다. 心的 苦悶을 表面에 들어 내어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狀態가 存續되어 나감이 바로 ‘즈들암시네’를 發話하게 하는 要因이 되는 것이다. (74)의 ‘잠시키여’는 또 그 애의 늦잠 자는 습성으로 보아서 아직 이 시간에는 그대로 ‘잠을 자는 상태가 存續되고 있을 것’이라고 推測하여 말하는 것이다.

(75)의 ‘트엄시네’는 아이가 해가 뜰 무렵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아서 ‘해가 뜨고 있는 상태가 存續되고 있음’을 알려서 빨리 일어나기를 재촉하는 것이다. (73)의 ‘즈들암시네’나 (74)의 ‘잠시키여’나 (75)의 ‘트엄시네’나 어느 動詞에 있어서나 그 ‘動作이 行해지고 있는 상태가 存續되어 나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動作이 行하여 지고 있는 상태가 存續되어 나감’을 表示하는 語尾가 바로 세 動詞의 語幹에 共通으로 接尾되어 있는 /-암시-~-엄시-/가 아닌가 한다. 세 動詞가 共通으로 表示하는 바 ‘行動·動作이 行하여 지고 있는 狀態가 存續되어 나감’이란 意義를 /-암시-~-엄시-/가 지닌다 할 때, 이 /-암시-~-엄시-/는 單一形態素로 보게 되는 것인지, 혹은 더 分析하여 그 意義를 밝힐 수 있을 것인지를 보아 가기로 한다.

/-암시-~-엄시-/에 있어서 /-암-~-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앞의 2.2에서 仔詳히 論한 바와 같이 方言 特有의 形態素 즉 國語史上에도 별

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濟州島 方言에서 獨特하게 形成되어진 語尾인데 그것은「動作의 樣相」中에서도「未完了相」을 表示하는 先語末語尾의 形態素이다. 다음 ‘-시-’인데 이것은 方言 言衆들 間의 發話에서 매우 빈번히 들을 수 있는 存在의 意義를 지닌 語尾이다. 15세기 末의 文獻에도 나타나며(벼슬 향야쇼문 <杜初廿一·45>), 高麗 歌謠에도 나타난다(넛 나를 닛고 신더 <動動>). 國語史上에서 볼 때 이 ‘시-’는 ‘이시다’ 語形과 併存하여 오다가 ‘이시다’ 形이 優勢해져서 오늘날 ‘있다’ 形에 固定되어 있고 ‘시-’ 形은 廢語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方言에서는 ‘이시다’ 語形보다 ‘시다’ 語形이 優勢해져서 오늘날 方言의 發話上에서도 아주 빈번히 쓰여 이 語辭의 發音으로 하여금 方言은 한 가지의 그 特色을 들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問題는 이 ‘시다’ 語辭가 오늘날 方言에서는 獨立形態(집의 사름 시냐? 그더 시라.)로서만이 아니고 依存形態(누게 먹어시니? 학교에 간 오라시냐?)로서도 아주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方言에서 이 ‘시-’는 語彙性和 文法性 兩面性を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獨立語辭로서 述語가 되기도 하고 또 活用上에서 先語末語尾로서의 어떤 機能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의 特性을 規定하여 볼 때 /-암시-~-엄시-/의 ‘시-’는 어느 쪽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問題이다. 語彙項目的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文法性的인 것, 곧 先語末語尾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또 先語末語尾의 것으로 보되 形態 分析上 獨立的인 것이냐? 아니면 다른 形態素에 融合되어 있는 것이냐 등이다. /-암시-~-엄시-/의 ‘시-’가 語彙項目的인 것이 못됨은 더 말할 것 없다. 그것은 위의 세 發話에 나타나는 ‘시-’가 語幹과 /-암-~-엄-/을 前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先語末語尾 /-암-~-엄-/에 接尾되어 있으므로 語尾 活用上에서의 形態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보아 올 때 ‘시-’는 /-암-~-엄-/과 分離될 수 있는 獨立形態일 듯하다. (73)의 ‘즈들암시네’가 ‘즈들암저’로, (74)의 ‘잠시키여’가 ‘잠고나’로, (75)의 ‘트엄시네’가 ‘트엄저’로와

같이 語尾가 活用되어서 發話되어지는 것을 보아서도 능히 /-암-~-엄-
-/과 /-시-/사이를 分析, 分離하는 것은 可能하다. 허나 이 /-시-/가
分析되어 진다 하여 그것을 先語末語尾로서 獨立形態일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왜냐면 /-시-/가 語幹에 直接 連結되어지는 경
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는 /-암-~-엄-/- /-아-
~-어-/ 外의 다른 先語末語尾 形態素와는 連結이 되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또한 問題는 있는 것이다. /-시-/가 다른 先語末語尾와는 連
結되지 않고 오직 /-아-~-어-/와 /-암-~-엄-/- 밑에만 連結되어지는
것, 이것이 /-시-/가 /-암-~-엄-/-과 分離, 分析되면서도 또한 이/-암-
~-엄-/-에 連結시켜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方言에서 ‘먹엄
시나· 먹어시라· 먹어시나· 보암시라· 보암시나· 보아시나· 보아시라’
등등으로는 活用이 되지만 ‘먹시저· 보시저· 먹시라· 보시라’ 등의 活
用은 없다. 따라서 ‘잠시키여’· ‘즈들암시네’ 등에서의 /-암시-/는 語
尾 活用上에서는 하나의 單位로 하여 다루어 나가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73)의 ‘즈들암시네’는 ‘걱정 근심하고 있는 상태가 存續
되어 나감’을 나타내고, (74)의 ‘잠시키여’는 ‘자고 있는 상태가 存續
되어 나감’을 나타내고, (75)의 ‘트엄시네’는 ‘해가 뜨고 있는 상태가
存續되어 나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세 動詞가 한결같이 ‘어떤
行動·動作이 行하여지고 있는 狀態가 存續되어 나감’의 意義를 지닌
形態는 바로 /-암시-~-엄시-/이다. /-암시-~-엄시-/는 ‘行動·動作이
行하여지고 있는 狀態가 存續되어 나감’이란 意義를 表示하는 形態素라
할 수 있다.

위에 든 發話들은 모두 第3人稱者들의 動作을 나타낸 것들이다. 다음
第2人稱者의 動作을 나타내는 發話들을 들어 보기로 한다.

- (76) 는 잘 먹엄싹게. (너는 잘 먹고 있는데.)
- (77) 느도 잘 먹엄서고나! (너도 잘 먹고 있더구나!)
- (78) 그 때 느도 보암서라. (그 때 너도 보고 있더라.)

들과 같이 發話되어지는데, 이런 第2人稱者의 動作을 나타내는 言述은 극히 드물다.

다음은 第1人稱者의 動作을 나타내는 發話를 보기로 한다.

(79) 난 저래 잠시키여. (나는 저리로 가고 있겠다.)

(80) 난 이디서 지드림시키여.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81) 난 밥 먹엄시쿠다. (저는 밥을 먹고 있겠습니다.)

이 第1人稱者의 動作을 나타내는 /-암시-~-엄시-/에는 모두 意圖를 나타내는 叙法 形態素가 後接되어 있음이 그 特色이다.

즉 (79)의 ‘잠시키여’나 (80)의 ‘지드림시키여’나 (81)의 ‘먹엄시쿠다’나 모두 話者(第1人稱者) 스스로의 어떤 行動이나 動作이 아직 끝나지 않아 繼續하고 있는 狀態 그대로 存續시켜 나가겠다는 話者 스스로의 意圖의 言述이다.

2.4.2 前項 2.4.1에서는 平叙文에서의 動作者의 動作을 나타내는 /-암시-~-엄시-/의 例들을 보아 왔다. 다음은 質問, 應答文에서 /-암시-~-엄시-/가 動作을 나타내는 경우의 發話들을 들어 보기로 한다.

(82) 자의 어디 잠시니? (저 아이는 어디로 가고 있니?)

(83) 밧디 잠수다. (밭에 가고 있습니다.)

(84) 철수 뭇 햄시니? (철수 뭇을 하고 있니?)

(85) 글을 익엄수다.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들 發話는 問答 對話들이다. 對話의 場面으로서 年上者와 年少者가 어떤 場所에 함께 있는데, 그 앞을 第3人稱者(자의)가 지나간다. 그때 年上者인 話者(第1人稱者)가 年少者에게 發話한 것이 이 (82)이다. (82)에서나 (83)에서나 動作者는 第3人稱者(자의)이다. 또 (84)와 (85)에 있어서는 역시 年上者와 年少者가 함께 있는데 年上者가 ‘철수’가 뭐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發話해진 것이 (84)이다. 年少者가 그에 應答한 것이 (85)이다.

그런데 (82)나 (84)와 같은 疑問文이 發話해지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두어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어디로 가는 行動을 繼續하고 있는 중인데 그 가는 곳이 어디 인지를 몰라서 묻는 경우와, 둘째는, 어디 가는 것을 보고 그 가는 行動이 못마땅스러워서 言述해지는 경우이다.

(84)에 있어서도 動作者(철수)가 무엇을 하고 있기는 分明한데, 그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몰라서 묻는 경우와, 動作者(철수)가 무엇을 하는 것이 못마땅스러워서, 또는 動作者(철수)를 불려도 대답을 안해 주어서 發話를 하는 경우와이다. 이들 疑問文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의 發話에서나 그 動作者의 ‘動作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 繼續하는 狀態가 存續되어 나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곧 (82)의 ‘잠시니’는 動作者 ‘자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 狀態의 動作을 存續시켜 나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84)의 ‘햄시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動作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 繼續되는 狀態를 存續시켜 나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82), (84)는 第3人稱者의 動作에 대한 質問이다. 다음 第2人稱者 및 第1人稱者의 行動에 대한 問答 發話를 對話에서 들어 보기로 한다.

(86) 어디 잠수가? (어디 가십니까?)

(87) 그자 놀았저. (그저 놀고 있다.)

(88) 누언 잠수가? (누워 주무십니까?)

(89) 이디 누엄서. (여기 눕고 있네.)

(86)은 年少者と 年上者가 路上에서 서로 만났을 때 年少者가 年上者에게 대한 人事로 하는 發話이다. 또 (88)은 초저녁밤에 年上者의 집에 年少者가 찾아 갔는데 방안에 불은 켜 있지 않고 한적한 때 이런 發話를 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예에 있어서나 動作者인 相對方이 行하는 그 動作이 未完了狀態에서 存續되어 나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여기 이 ‘잠수가’ · ‘잠수가’의 ‘-수-’이

다. 이 ‘-수-’에 대한 例를 더 들어서 보아 가기로 한다.

- (90) 는 어디 감디? (너는 어메 가고 있니?)
- (91) 학교에 감수다.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 (92) 는 집의서 뽏 허염디? (너는 집에서 뽏 하고 있니?)
- (93) 난 일 헤염수다. (저는 일 하고 있습니다.)
- (94) 는 언제 떠남디? (너는 언제 떠나니?)
- (95) 널 떠남수다. (내일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 發話는 모두 問答 對話이다. (91)의 ‘감수다’, (93)의 ‘일 헤염수다’, (95)의 ‘떠남수다’들은 語末語尾 바로 앞에 ‘-수-’를 前接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세 發話는 年少者로서 年上者에 대한 應答이다. 앞에 든 發話 (86), (88)이 年少者가 年上者에게 質問하는 發話임에 反하여 이들은 應答하는 發話인 것이다.

- (96) 오늘 또 올다? (오늘 또 오겠나?)
- (97) 예, 오쿠다. (예, 오겠습니다.)
- (98) 느도 갈다? (너도 가겠나?)
- (99) 예, 나도 가쿠다. (예, 저도 가겠습니다.)
- (100) 느 어느거 먹을디? (너는 어느것 먹겠니?)
- (101) 나 이거 먹쿠다. (저는 이것 먹겠습니다.)

이들 對話에 있어서는 年上者에 대하여 年少者가 應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年少者가 應答하는 發話 (97), (99), (101) 發話에서는 語末語尾 바로 앞에 ‘-쿠-’를 前接시키고 있다. 이 ‘-쿠-’가 나타나는 例를 다시 좀더 들어 본다.

- (102) 오늘 밧되 가쿠가? (오늘 밧에 가겠습니까?)
- (103) 오, 가키여. (오, 가겠다.)
- (104) 이거 먹쿠가? (이거 잠수시겠습니까?)

- (105) 오, 먹키여. (오, 먹겠다.)
 (106) 언제 떠나쿠가? (언제 떠나겠습니까?)
 (107) 모리 떠나키여. (모래 떠나겠다.)

이들 對話에서 (103), (105), (107)들은 모두 그 形態가 同一한 ‘-키여’로 言述되어 있다. 이 ‘-키-’는 표준어 ‘-겠-’에 해당되는 意圖法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 ‘-키-’는 話者의 意圖를 나타낸 叙法의 것이다. 그런데 (102), (104), (106) 들에서는 그 語尾가 ‘-쿠가’로 終結되어 있는데, 이 /-가/는 疑問法語尾이고, ‘-쿠-’가 問題이다. ‘-쿠가’의 ‘-쿠-’는 표준어 ‘-겠-’에 해당되는 意圖法の 것이다. 이와 같이 ‘-쿠-’도 ‘-키-’도 마찬가지로 意圖를 나타낸다 하면 ‘-키-’는 ‘-키-’全體가 곧 不可分의 單一形態素로, 또 ‘-쿠-’는 ‘-쿠-’全體가 單一形態素로 意圖法の 것이라 할 것인지?

方言에서 體言이 叙述語로 쓰일 때 ‘물이여·집이여’ 등과 같이 쓰이는데, 이 ‘물이여’의 /-이-/를 叙述格語尾라고 한다. 이에 비추어 위에서 例로 든 ‘가키여·먹키여’들의 語尾도 ‘ㄱ+이여’로 分析이 可能的 것이 아닌지, 이렇게 分析이 되면 /-ㄱ-/만이 意圖法の 形態素라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쿠-’도 더 分析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ㄱ+우’와 같이 分析이 된다. 이 때 /-ㄱ-/이 意圖法 形態素이고, /-우-/는 別個의 形態素인 것이다.

例 (102), (104), (106)은 모두 年少者가 年上者에게 그 意志를 묻는 發話들이다. 이 年上者에 대한 質問에는 國語 言語社會의 慣習에 따라 尊待 語法을 쓰게 된다.

- (108) 저디 걸어 가는 전 뵈고? (저기 걸어가는 것은 뵈냐?)
 (109) 저진 췌우다. (저것은 췌입니다.)
 (110) 어드래 잠디? (어매로 가고 있니?)
 (111) 집더래 잠이우다. (집으로 가는 췌입니다.)

이 (108)에서 (111)까지는 年上者와 年少者間의 對話이다. (108)과 (110)은 年上者가 年少者에게 묻는 發話이고, (109)와 (111)은 年少者가 年上者에게 應答하는 發話이다. '이 年少者가 年上者에게 應答하는 發話에서는 그 語末語尾 바로 앞에 /-우-/가 接尾되어 있다. 이 /-우-/가 바로 方言에서 「對者(相對者) 尊待」를 表示하는 形態素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쿠다'의 '-쿠-'를 'ㄱ+우'로 分析함이 正當한 分析이 있음을 알게 된다.

위의 (86)에서 (95)까지의 例로 든 發話에서 나타났던 '감수가·감수다·잠수다·잠수가·혜염수다·떠남수다' 등 아주 方言에서 빈번히 쓰이는 이 '-수다'의 '-수-'도 또한 그 分析이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즉 '쿠다'의 '-쿠-'가 'ㄱ+우'로 分析되는 것에 비추어 이 '-수-'도 능히 'ㅅ+우'로 分析될 것으로 보인다.

(86)의 '감수가', (88)의 '잠수가' 등은 모두 年少者가 年上者에게 묻는 發話이므로 相對者를 尊待하는 마음에서 의례 尊待法을 쓰게 되었을 것이요, (91), (93), (95)에서도 마찬가지로 尊待法을 쓰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먹임수다'는 '먹임ㅅ+우다'로, '감수다'는 '감ㅅ+우다', '혜염수다'는 '혜염ㅅ+우다', '떠남수다'는 '떠남ㅅ+우다'로 各各 分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를 'ㅅ+우'로 分析하고 나면 /-우-/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對者(相對者) 尊待」를 表示하는 形態素라고 하지만 나머지인 /-ㅅ-/가 무엇인가를 다음 밝혀야 할 차례이다.

(112) 어디 감시니? (어데 가고 있니?)

(113) 집의 감수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114) 비 오람시냐? (비 오고 있냐?)

(115) 예, 비 오람수다. (예, 비 오고 있습니다.)

이들 發話에서 볼 때 質問의 發話는 '감시-'·'오람시-' 등과 같이 /-시-/로 言述되어 지는데, 應答의 發話에서는 '감수-'·'오람수-'와 같이 '-수-'로 言述되어 지고 있다. 또 그것을 표준어로 바꿔 놓는다면 '감

시-’는 ‘가고 있-’에 해당되고, ‘감수-’는 ‘가고 있음-’에 해당이 되는데, 이들 ‘감시-’와 ‘감수-’(‘수’의 ‘우’는 尊待 形態素)은 同一한 意義를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오람수-’는 ‘오람ㅅ+우-’이다. 이렇게 ‘-수-’를 ‘-ㅅ+우-’의 合成이라고 본다면 혹시 文獻上으로 그런 類例가 있는지, 15세기 末葉 文獻에 다음과 같은 例들이 있다.

벼슬하야 쇼몬

〈杜初 二一・45〉

브터 술 짜히 업도다

〈杜初 二五・12〉

이 두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오’는 結合하여 ‘쇼’로 合成되었고, ‘시+우’는 結合하여 ‘슈’가 되었다.

이러한 例로 보면 方言에서의 ‘먹엄수다’·‘오람수다’의 ‘-수-’도 ‘시+우’의 合成이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슈’로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單母音化했다는 것은 아마 國語에서 /s/音系 音과 口蓋母音 /j/와가 結合하여 重母音을 이룰 경우 單母音化하여 버린 경우와 同軌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例와 對照하여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러함을 깨닫게 한다.

(116) 가의 놀암서라. (그 애는 놀고 있더라.)

(117) 고장 하영 피염서라. (꽃 많이 피고 있더라.)

(118) 사름 하영 모염서라. (사람 많이 모이고 있더라.)

이들 發話에서의 ‘놀암서라·피염서라·모염서라’의 ‘-서-’는 ‘시+어’의 合成으로 分析되는 形態들이다.

‘시+어’의 合成이므로 ‘서’가 되어야 할 것인데도 오늘날 ‘-서-’로 發音되어지고 있고, 한편 또 ‘-슈-’가 일찍 單母音化하여 ‘-수-’가 되어 버린 데는 尊待法의 形態素 /-우-/와의 形態上 統一에서도 ‘-슈-’의 ‘-수-’化를 일찍부터 제촉하였을 것이다. 여하튼 ‘먹엄수다·보암수다’들의 ‘-수-’는 ‘ㅅ+우’로 分析이 되어지는데 그럼 이

/-스-/은 어떤 形態素일까? 이것은 위에서 누누히 考察하여 본 바와 같이 /-시-/의 異形態라고 하게 된다. /-시-/에 대해서는 2.4.1에서 論한 바다.

2.4.3 以上 장황하게 /-암시-~~-엄시-/에 對하여 論하여 왔다. /-암시-~~-엄시-/는 그 어느 發話에서나 動作主의 動作의 樣相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樣相은 單純한 未完了(繼續)를 意味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動作의 未完了의 狀態가 存續되어 나감’을 意味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動作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 繼續하는 狀態가 存續되어 나감’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여기 /-암시-~~-엄시-/는 ‘動作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 繼續하는 狀態가 存續되어 나가고 있는 樣相’을 나타내 준다고 그 意義를 規定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암시-~~-엄시-/를 「未完了存續相」의 形態素라고 하여 둔다.

2.5 完了存續相

2.5.1 위의 2.4에서는 方言의 動作 形態素 「未完了存續相」을 抽出하여 내어 考察하였다. 여기서는 이 「未完了存續相」과 對立 關係에 있다고 할 만한 動作相 形態들이 方言의 定動詞 語尾活用에서 찾아질 것인지 어떤지를 言衆들의 發話를 통하여 보아 가기로 한다.

(119) 칠순 집의 가_ㅅ신게. (칠수는 집에 가 있네.)

(120) 느 일 다 하_ㅅ여실다? (너는 일을 다 해있겠느냐?)

(121) 복실인 다 먹_ㅅ여십데다. (복실이는 다 먹어 있음데다.)

이들 發話 (119)의 ‘가_ㅅ신게’, (120)의 ‘하_ㅅ여실다’, (121)의 ‘먹_ㅅ여십데다’ 들에 있어서 各其 動作을 表示하는 先語末語尾는 同一하다. 즉 (119)의 ‘가_ㅅ신게’는 先語末語尾가 ‘-아시+ㄴ-’이고, (120)의 ‘하_ㅅ여실다’는 先語末語尾가 ‘-아시+ㄴ-’이고, (121)의 ‘먹_ㅅ여십데다’에 있어서는 그 先語末語尾가 ‘-어시+ㅅ데-’들이다. (119)의 /-ㄴ-/은 直說

動作相

法の形態素이고, (120)의 /-ㄹ-/은 意圖法の形態素이며, (121)의 ‘-ㄴ데-’는 對者尊待 形態 /-ㄴ-/과 回想法의 /-데-/이다. 이들의 各形態素를 제하여 버리면 나머지는 先語末語尾 /-아시-~-어시-/이다. 그런데 이 /-아시-~-어시-/는 어떤 意義를 갖는 것인가 하면 표준어로 對譯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 듯이 ‘어떤 動作이 完了되어서 그 完了된 狀態가 存續되어 나감’을 意味해 주는 것이다. (119)의 ‘집의 가신게’는 ‘집에 가아 있네’로 ‘가는 行動이 完了되어 存續하여 있다’이고, (120)의 ‘일 하여실거여’도 ‘일을 다 하였을거야’로 ‘일하는 動作을 다 끝마쳐서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 되며, (121)의 ‘먹어십테다’도 ‘먹어서 있었읍니다’로 ‘먹는 動作을 다 끝마쳐서 있었읍니다’로 된다. 말하자면 /-아시-~-어시-/가 ‘어떤 動作의 完了狀態가 存續되어 나간다’고 그 意義를 規定해 볼 수 있겠다.

위에 든 發話의 例는 모두 第3人稱者의 動作을 表示한 것들이다. 다음에 第2人稱者 및 第1人稱者의 動作을 表示하는 發話들을 들어 보기로 한다.

(122) 는 집의 가^ㅅ신게. (너는 집에 갔던데.)

(123) 느도 하^ㅅ영 먹^ㅅ어선게. (너도 많이 먹었던데.)

(124) 느도 잘 놀^ㅅ아신게. (너도 잘 놀았는데.)

이들 發話에 있어서 (124)의 ‘놀아신게’는 (119)에서 例로 들었던 定動詞의 語尾(가신게)와 同一한 形態이다.

(122)와 (123)은 또한 그 先語末語尾가 서로 同一하다. (123)의 ‘먹어선게’는 ‘먹었던데’로 표준어 對譯을 하여 놓았다. 그러나 方言에서의 그 意義를 충분히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 動詞에서 先語末語尾는 ‘-어+선-’이다. 다음에 다른 例들을 들고 吟味해 나가기로 한다.

(125) 가의도 먹^ㅅ어^ㅅ신가? (그 애도 먹었는가?)

(126) 가의도 먹어^ㅅ신가? (그 애도 먹었던가?)

이 두 예에서 (125)의 ‘먹어^ㅅ신가?’는 ‘먹는 動作을 다 끝나쳐서 그 끝마친 狀態가 그대로 存續되어 있는가’이다.

그러나 (126)의 ‘먹어^ㅅ신가’는 過去 어느 때를 標準하여 ‘過去의 그 때에 있어서 먹는 動作을 끝나쳐서 그 끝마친 狀態가 그대로 存續되어 있던가’이다. 말하자면 (125)는 直說法의 것이요, (126)은 回想法의 것이다. 그럼 이 (126)에서 回想法의 形態素는 어느 것일까? ‘먹어^ㅅ신가’의 ‘-서-’全體인가?

여기 다시 方言의 例를 들어서 보기로 한다.

(127) 가의도 가^ㅅ냐? (그 애도 가더냐?)

(128) 가의도 먹어^ㅅ냐? (그 애도 먹더냐?)

이들 ‘가^ㅅ냐’는 이미 지난 過去의 行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다. 過去 어느 때를 표준하여 그 때에 動作者(가의)가 어떤 行動을 하였던가, 어떤가를 相對者(第2人稱者)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過去 어느 때에 相對者가 經驗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相對者로서는 自己의 過去의 經驗을 回想하여 應答하게 되므로 이것을 筆者는 回想法이라 規定하여 둔다.

다시 말하여 ‘가^ㅅ냐’ · ‘먹어^ㅅ냐’의 /-아-~-어-/를 回想法의 形態素라 하여 둔다. 다시 發話의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129) 가의도 밥 먹어^ㅅ라. (그 애도 밥을 먹더라.)

(130) 가의도 보아^ㅅ라. (그 애도 보더라.)

이들 發話의 例에서 보다시피 ‘먹어^ㅅ라’는 ‘먹더라’로밖에 對譯을 달리 할 수가 없으며, ‘보아^ㅅ라’도 역시 ‘보더라’로밖에 더 分析이 안되는 것이다. 현대 표준어 문법에서는 이 ‘-더-’를 「回想時制」라 하여 다루기도 하고¹⁹⁾, 또 「過去未完」이라 하여 다루기도 한다.²⁰⁾ 허나 方言의

注 19: 崔鉉培; *Ibid.*, p.443.

20: 李熙昇; 「새 고등문법」, 一潮閣, 1957, p.72.

文法體系에서는 이를 時制로 볼 것이 아니라 叙法으로 보아야 하며, 또 표준어에서도 叙法으로 보는 일이 전혀 없는 바도 아니다.²¹⁾ 다음의 예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131) 누게 기영 존더니? (누가 그렇게 말하더니?)

(132) 누게 기영 존아니? (누가 그렇게 말하더니?)

이 (131)과 (132)을 對照하여 그 意義를 分析하여 보면 (131)의 ‘존더니’나 (132)의 ‘존아니’나 다 마찬가지로 이미 지나간 過去의 누구의 言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다. 過去 어느 때를 표준하여 그 때에 어느 누가 말한 것을 그 말한 자가 누구냐고 相對者에게 묻는 것이다. 過去에 누가 말한 것을 回想하여 말하게 되므로 이것을 回想法이라 하게 되는데, 이 回想法의 形態素는 (131)에서는 ‘존더니’의 /-더-/이고 (132)에서는 ‘존아니’의 /-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發話에 있어서 (131)의 言述보다는 (132)의 言述이 훨씬 方言의 純粹感이 있다. (131)은 어딘가 生硬한 感を 면치 못하게 한다. ‘존더니’보다는 ‘존아니’가 方言으로서의 言述이 自然스럽고 純粹해 보인다. (131)의 發話는 어딘가 混成된 感を 준다. (131)의 言述이 이렇게 混成 感を 주고 또 生硬한 感を 면치 못하는 理由는 어디 있을까? 그것은 현대 표준어 문법에서 回想法의 形態素라고 일컬어지는 /-더-/ 때문이 아닌가 筆者는 생각한다. 이 回想法의 形態素 /-더-/가 方言 語法에 나중에 混入되어 들어 온 것이 아닌가. 그 /-더-/가 方言에 混入되어 들어 오기 전에 方言의 語尾體系에는 回想法 表示의 機能을 擔當하는 形態素가 있었는데, 나중에 改新派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回想法形態素가 들어 왔던 것이며, 또 들어 와서 元來의 回想法의 形態素와 交替되어 그 자리에 끼어 들어가 言述된 것이 바로 이 (131)의 發話가 아닌가 여겨진다. (131)의 發話가 (132)의 發話보다 方言으로서의 純粹한 感이 없고 生硬한 感を 면치 못하는 것은 이러한 新入者 때문이 아

注 21: 高永根; 「現代國語의 叙法體系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 15), 서울大, 1965. p. 23

닌가 한다. 그렇다면 在來의 回想法 表示의 機能을 擔當해 온 形態素는 어느 것일까? 그것은 ‘존더니’와 꼭 같은 位置에 配列되어 있는 /-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方言에서는 在來에 回想法 表示의 機能을 擔當하는 形態素였다 할 것이다. ‘존더니’에서 /-더-/의 位置에 /-아-/가 配列되어 들어 잠으로써 方言의 發話는 한층 더 純粹感을 주게 되고 生硬한 感도 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여 위에 例로 든 (128)의 ‘가외도 먹어냐?’의 /-어-/ (130)의 ‘가외도 보아라’의 /-아-/ 등의 /-아-~-어-/가 方言의 文法體系에서는 回想法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표준어의 文法體系에서는 ‘먹어라·보아라’와 같이 /-아-~-어-’가 命令法의 語尾와 함께 쓰이지만, 方言에서는 回想法의 形態素로 쓰이고 命令法의 語尾와 함께 쓰이지는 않는다.

이제 위에서 例로 든 (122)의 ‘는 집의 가선게.’의 ‘가서-’, (126)의 ‘가외도 먹어선가?’의 ‘먹어서-’들을 分析하여야겠다. 이들 ‘가서-, 먹어서-’의 ‘-서-’가 問題인데, 이것은 2.4節에서도 잠깐 비쳤던 바와 같이 ‘ㅅ+ㄱ’로 分析되는 것이다. 이 /-ㄱ-/는 앞에 ‘존더니’·‘꼴아니’에서 仔細히 論한 바와 같이 回想法의 形態素 /-아-/의 異形態이다. 그러므로 표준어 對譯에 있어서도 (122)의 ‘는 집의 가선게.’를 ‘너는 집에 갔던데’로, (126)의 ‘가외도 먹어선가?’를 ‘그애도 먹었던가?’로 하여 이 /-아-~-어-/를 표준어에서 回想法의 形態素라고 하는 /-더-/로 옮겼던 것이다. 또 /-ㅅ-/에 對해서도 2.4節에서 論한 바인데 그것은 /-시-/의 異形態였다.

이와 같이 /-ㅅ-/을 /-시-/의 異形態라고 한다면 ‘먹어ㅅ-’의 /-ㅅ-/는 ‘먹어서-’의 /-시-/의 異形態라고 하게 된다.

2.5.2 다음 方言의 問答 對話의 疑問法을 통해서 /-아시-~-어시-/의 形態를 分析해 내고 그 意義를 規定하여 보려 한다.

(133) 철수도 학교에 갔수까? (철수도 학교에 갔음니까?)

(134) 오, 갓저. (오, 갓다.)

(135) 가의도 밥 먹었수가? (그 애도 밥을 먹었습니까?)

(136) 오, 먹었저. (오, 먹었다.)

이들 發話 (133)과 (135)는 年少者가 年上者에게 하는 質問文이다. 따라서 尊待 表示의 形態素가 나타나 있다. (133)과 (135)의 ‘갓수가 · 먹었수가’의 語末語尾 /-가/ 바로 앞에 前接되어 있는 ‘-수-’의 /-우-/가 對者尊待 形態素이고, /-스-/은 2.4節에서 規명한 바와 같이 /-시-/의 異形態이다. 이와 같이 分析하여서 (133)의 ‘갓수가’에서 /-앗스-/을 또 (135)의 ‘먹었수가’에서 /-엇스-/을 얻게 된다. /-앗스-/形態는 2.5.1에서 分析하였던 /-아시-~-어시-/ (또는 /-아스-~-어스-/)와 同一한 形態들이다. 즉 이 /-앗스-~-엇스-/은 「完了相」의 形態素 /-앗-~-엇-/에 ‘-시-’가 直結되어 있다. 그럼 이 形態 /-앗스-~-엇스-/의 意義는 무엇일까? (133)의 ‘갓수가’는 ‘가 있습니까’이다. 즉 ‘가는 行動을 끝나쳐서 그 끝마친 狀態대로 있습니까’이다. (135)의 ‘먹었수가’도 ‘먹었습니까’인데, 이것도 ‘먹는 動作을 끝나쳐서 그 끝마친 狀態대로 存在해 있습니까’이다.

위의 (133)과 (135)에서는 第3人稱者의 動作 表示로서 /-앗스-~-엇스-/를 보았는데, 다음 第2人稱者의 動作 表示로서 그 例를 보기로 한다.

(137) 그거 보아수가? (그것 보았습니까?)

(138) 그 일 다 하여수가? (그 일 다 했습니까?)

이 두 發話는 모두 年上者에게 그 年上者의 行爲에 대한 質問이다. 따라서 疑問法語尾로 終結되어 있고 그 語末語尾의 바로 앞에는 對者尊待 形態素 /-우-/가 前接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보아수가, 하여수가’는 둘 다 /-아스-~-어스-/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이 /-아스-~-어스-/ 形態는 ‘먹어서라’ · ‘보아서라’ 들에서의 /-아스-~-어스-/ 形態와

同一한 形態인 것이다. (137)의 ‘보아수가’는 ‘보아서 있습니까’로 ‘보는 行動을 끝마쳐서 그 끝마친 狀態대로 存在해 있습니까?’이다. 또 ‘햐여수가’는 ‘햐여서 있습니까’로 ‘하는 行動을 다 끝마친 狀態대로 存在해 있습니까?’이다. 위에서 보아 온 例들에 의하면 어느 動詞의 動作表示에 있어서나 ‘그 動作이 完了되어서 그 完了된 狀態대로 存續되어 나가고 있음’을 意味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하여 動作表示의 先語末語尾 /-아시-~-어시-/ (異形態 /-앗스-~-엇스-/ · /-아스-~-어스-/)는 ‘動作의 完了된 狀態가 存續되어 나가고 있는 樣相’을 表示한다고 그 意義를 規定하게 된다. 여기서 이 /-아시-~-어시-/를 「完了存續相」의 形態素라고 하여 둔다.

2.6 動作相 形態의 特徵

2.6.1 濟州島 方言의 特徵은 여러 面에서 指摘할 수 있다. 緒論에서 言及했 듯이 音韻分野에서나 語彙分野에서나 各其 特徵의인 面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形態分野에서는 더욱 더 그러한 것 같다. 本章에서 論하여온 動作相 또한 그 特徵의인 存在가 아닐 수 없다.

2.6.2 動作相의 形態가 다른 地域의 形態들과는 判異하다. 「未完了相」(繼續相)의 形態에 있어서 /m/音을 援用하고서는 「完了相」의 形態와 相互 對立이 되게 하는 點도 이 方言만이 갖는 特徵이라 하겠다. 표준어에서도 近者에 ‘누워 있다’의 /-어 있-/ , ‘먹었다’의 /-엇-/을 「完了相」이라고 하는데, 이에 對立的 存在라고 할 만한 「未完了相」(繼續相)으로는 ‘먹고 있다’의 /-고 있-/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면 ‘먹엄저’ 對 ‘먹엇저’와, ‘먹엄시-’ 對 ‘먹어시-’ (또는 ‘먹엇스-’) 등으로 그 形態의 形成上에서부터 /-엄-/ 對 /-엇-/ , 또는 /-엄-/ , /-엄시-/ 對 /-어시-/ , 또는 /-엇스-/와 같이 雙을 지어 對立을 시켜 나가고 있다. 또 「未完了相」(繼續性)과 「完了相」은 표준어 등에서도 認定이 되는 바이지만 方言에는 特異하게도 「未完了存續相」과 이에 對立 關係

動作相

에 있는 「完了存續相」이 있다. 이들은 16, 7세기 文獻語에서도 그 相의 存在를 認定하게 되는 하지만 方言에서와 같이 體系의으로 示顯시켜 주지는 않는다. 여기 方言의 動作相 形態들(위에서 考察하여 온 것에 限함)을 一括하여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動作相	變異形態	基本形態
未完了相	/-압-~-엄-/	{-압-}
完了相	/(-앗-~-엇-)∞(-안-~-언-)/	{-앗-}
未完了存續相	/(-압시-~-엄시-)∞(-압스-~-엄스-)/	{-압시-}
完了存續相	/(-아시-~-어시-)∞(-앗스-~-엇스-)∞(-아스-~-어스-)/	{-아시-}

2.6.3 濟州島 方言 社會의 言衆들의 言語 表現에서는 動作에 力點을 두어서 言述해지는 傾向이 매우 심한 것 같다. 그것은 動作動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狀態動詞로 言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狀態動詞라고 일컬어지는 動詞를 몇몇 들어 보면,

未完了相	完了相
보 _ㅅ 압저(見), 보 _ㅅ 압다, 보 _ㅅ 압디	보 _ㅅ 앗저, 보 _ㅅ 압다, 보 _ㅅ 압디
들 _ㅅ 엄저(聞), 들 _ㅅ 엄다, 들 _ㅅ 엄디	들 _ㅅ 엇저, 들 _ㅅ 언다, 들 _ㅅ 언디
닭 _ㅅ 압저(類似), 닭 _ㅅ 압다, 닭 _ㅅ 압디	닭 _ㅅ 앗저, 닭 _ㅅ 압다, 닭 _ㅅ 압디
느 _ㅅ 낌저(感), 느 _ㅅ 낌다, 느 _ㅅ 낌디	느 _ㅅ 졌저, 느 _ㅅ 꼴다, 느 _ㅅ 꼴디
ㅁ _ㅅ 졌저(持), ㅁ _ㅅ 졌다, ㅁ _ㅅ 졌디	ㅁ _ㅅ 졌저, ㅁ _ㅅ 졌다, ㅁ _ㅅ 졌디
알 _ㅅ 압저(知), 알 _ㅅ 압다, 알 _ㅅ 압디	알 _ㅅ 앗저, 알 _ㅅ 압다, 알 _ㅅ 압디 등

들과 같다. 뿐만 아니라 形容詞들도 動作化하여 言述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未完了相	完了相
밝 _ㅅ 압저(明)	밝 _ㅅ 앗저
돛 _ㅅ 압저(溫)	돛 _ㅅ 앗저
크 _ㅅ 엄저(大)	크 _ㅅ 엇저
어두 _ㅅ 엄저(暗)	어두 _ㅅ 엇저

노랑헛저 (黃)	노랑헛저
퍼렁헛저 (靑)	퍼렁헛저
벌경헛저 (赤)	벌경헛저 등

이와 같이 狀態動詞만이 아니고 形容詞까지도 動作化하여 言述해진다
는 것은 아마 이 方言만이 가지는 特異한 點이 아닐까 한다.

2.7 動作相 形態의 國語史的 位置

2.7.1 위에서 論한 語尾 즉 「未完了相」의 形態素 /-암-~-엄-/은 文
獻上 例를 찾을 수 없다. 이 「未完了相」의 形態素 /-암-~-엄-/이 存在
하지 않으므로 「未完了存續相」의 形態素 /-암시-~-엄시-/ 또한 文獻上
에서 存在하지 않을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아마 이 形態들은 濟州島
方言 特有의 動作相 形態素들이 아닌가 한다.

이 形態素 /-암-~-엄-/이 있음으로 하여 濟州島 方言에서의 動作相이
다른 어느 地域 方言의 것보다도 그 存在를 特徵的으로 하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2.7.2 다음 「完了相」의 形態素 /-앗-~-엇-/은 文獻에서 그 例를 들
추어 보아야겠다. 이 /-앗-~-엇-/ 形態素의 例를 더듬어 보기에 앞서
「完了存續相」의 形態素로 規定한 /-아시-~-어시-/의 文獻語의 語尾들을
먼저 알아 보기로 한다. 이 /-아시-~-어시-/ 形態의 構成은 起源의으로
는 副動詞語尾(副詞形, 連用形) /-아-~-어-/에 存在辭의 語幹 ‘시-’가 連
結되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構成의 形態素는 回顧的으로 追跡을 하
여 올라 갈 수 있을 것 같다. 新羅時代의 彗星歌에,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

란 句節이 있다 하나, 이 ‘浮去伊叱一’을 어떻게 읽을까가 問題인데,

이 ‘-去伊叱-’을 ‘-가이시-’의 表記라 할 수 있다면²²⁾ 이것은 方言의 /-아시-~-어시-/와 거의 同一한 形態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重要的 資料가 아닐수 없다. 다음 또 新羅時代의 怨歌에,

汝於多支行齊教因隱

이란 句節이 있다. 이 ‘行齊教因隱’을 ‘니저이신’으로 읽고 있는데²³⁾ 이것도 方言의 /-아시-~-어시-/와 同一한 形態이다. 이들 例로 보아 方言의 /-아시-~-어시-/는 方言에서 特異하게 形成되어진 語尾 形態가 아니라 新羅時代에서부터 쓰여 오던 語尾 形態가 오늘날 濟州島 方言에 비록 그 變形으로나마 殘在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또 15세기의 文獻語에는,

罪를 니저 다시 브려시니	〈龍歌 121〉
하늘히 일위시니 天下蒼生을 니즈시리잇가	〈龍歌 21〉
마초매 밧글 꾸뭇을 마초하야시니	〈杜謠一九・29〉
如來 種種 神力을 뵈야시든	〈月印曲 43〉

이와 같이 許多한 例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브려시니, 일위시니’에서의 ‘-시-’를 主體尊待의 形態素로 보는 듯하나²⁴⁾ 이런 副動詞語尾에 連接되어 있는 ‘-시-’를 筆者는 存在辭에서 文法形態化하여 가는 것으로 보는 바이다.²⁵⁾ 이에 대한 規明은 장황한 論說을 요할 것이므로 別稿로 미룬다.

다음 17세기 文獻인 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에서 보기로 한다.

내 물 자바실쳐시니	〈老諺 上 33〉
우리 부러 와시니	〈老諺 上 36〉
우리 밥이 닳어시니	〈老諺 上 36〉

注 22: 李承旭; 「國語文法體系의 史的 研究」, 一潮閣, 1973, p. 189

23: 梁柱東; *Ibid.*, pp. 619—20

24: 許 雄; 「註解龍飛御天歌」, 正音社, 1956, p. 133, p. 333

25: 李熙昇; “存在詞‘있다’에 對하여”, 『서울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 第三輯』, 1956, p. 43

더 人家牆壁을 보니 다 문혀더시니 <朴諺 上 10>
 못 항여시니 아직 일럿더라 <朴諺 上 48>

들과 같이 그 例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위의 例들에서 볼 때 /-아시-~-어시-/ 形態는 8, 9세기에서부터(혹은 그 이전부터) 17세기에 이르면서(혹은 그 후까지도) 줄곧 國語史上 쓰여졌던 動作相 形態素임을 알 수 있다.

2.7.3 다음은 「完了相」의 形態素 /-았-~-엇-/의 例를 文獻上에서 알아 보기로 한다.

물 띠엿든 갑술 <朴諺 上 11>
 사랏거든 이받고 <三綱行實圖 32>
 種子를 머거 마초앗느니 <圓覺經諺解 上 43>
 네 아리 西湖入경에 내려 왔노다 <朴通 上 67>
 內監논 죄스왔논 허근 臣下라 <內訓 一 39>
 今世에 더리 自在함을 어덧느니 <朴諺 上 28>

이들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았-~-엇-/形態素는 15세기 後期의 文獻에서부터 이후 줄곧 나타나고 現代語 /-았-~-엇-/에 그 語形이 굳혀지고 있다. /-아시-~-어시-/와 /-았-~-엇-/의 語形 變遷 過程을 /-아-이시-~-어-이시-/에서 /-애시-~-에시-/와 /-엇-~-엇-/으로 변해지고, 다시 /-아시-~-어시-/와 /-았-~-엇-/으로 변해진 것이라 한다²⁶⁾. 이 語形 /-아시-/와 /-았-/을 同一 言語社會에서 同時に 변해진 것이라고 꼭 斷定할 수는 어렵겠지만, 그 語形이 變遷되어 내려온 時期에는 時代的으로 差異가 있다 하더라도 同一 言語社會에서 共時的으로 두 語形이 同時に 使用되어질 수 있음은 우리가 推測하기에 어렵지 않다.

여기 오늘날 方言에서 動作相 形態素로 「完了存續相」의 /-아시-~-어시-/와 「完了相」의 /-았-~-엇-/ 두 가지 形態素가 共存하고 또 共時的으로 使用된다 함은 國語史上에서 보아도 容認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리하여 오늘날 濟州島 方言에서 動作相 形態素로서 「完了存續相」에 /-아시-~-어시-/ 「完了相」에 /-았-~-엇-/ 두 가지 形態素를 위에서

注 26: 梁柱東; *Ibid.*, p.599

論한 바와 같이 各各 設定하였던 것이며, 또한 이들과 對立關係에 있는 「未完了存續相」의 /-았시-~-었시-/ , 「未完了相」의 /-았-~-었-/ 두 가지 形態素도 또한 各各 設定하게 되었던 것이다.

2.7.4 以上과 같이 하여 오늘날 濟州島 方言에서 共時的으로 使用되는 두 가지의 動作相 形態素 /-아시-~-어시-/와 /-았-~-었-/을 文獻語의 語尾와 對比시켜 볼 때, /-았-~-었-/은 15세기에서 17,8세기까지 出貢 쓰여져온 形態인데, 方言 /-았-~-었-/의 國語史的 位置를 16,7세기로 推定하려 한다. 또 方言 /-아시-~-어시-/는 新羅時代의 言語表記에서부터 17,8세기에 이르면서 出貢 쓰여 온 語尾임은 2.7.2에서 보아 온 바다. 이 新羅時代인 8,9세기로부터 17,8세기 사이에서 方言 /-아시-~-어시-/ 形態는 어디 位置할 것인가 疑問인데 여기서 方言 /-아시-~-어시-/의 國語史的 位置를 12,3세기로 推定하여 두려 한다.

2.7.5 以上에서 方言의 定動詞語尾로 表示되는 動作相의 「完了存續相」의 形態 /-아시-~-어시-/와 「完了相」의 形態 /-았-~-었-/을 놓고 오늘날 方言의 그 國語史的 位置를 各各 12,3세기와 16,7세기로 推定하였는데, 이와 같이 약 5,6백년의 年紀差를 둔 「完了存續相」과 「完了相」이 오늘날 方言에서 共時的으로 使用되고 있다. 이 5,6백년의 年紀差를 둔 語尾 形態들이 共時的으로 使用된다는 것은 濟州島 方言의 特異한 現象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3. 尊 待 法

3.1 序 言

3.1.1 한 言語共同體에 있어서 그 言衆들 相互間에는 年齡의 上下, 地位의 等差, 身分의 高低 등이 있게 된다. 그들 言衆이 말을 주고 받을 때에는 이러한 年齡의 上下關係, 身分의 高低關係에 따라서 話者는 尊卑意圖를 머금고 言語表現을 하게 되는 言語도 있고, 그렇지 않은 言語도 있다. 國語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年齡의 上下關係, 身分의 高低關係를 감안하여 話者는 언제나 尊卑意圖를 머금고 發話를 해야 하고, 또한 話者의 發話上에는 언제나 그러한 關係가 두드러지게 表現되어 나타난다. 다시 말하여, 國語의 모든 言語表現에는 年齡의 上下, 身分의 高低 등에서 오는 相對的 對人關係가 그대로 反射되어 나타난다. 對話者間의 發話上에 있어서 이러한 相對的 對人關係가 反射되어 나타나는 言語表現 일체를 包括하여 여기서 「尊卑法」이라 하여 둔다.

3.1.2 尊卑法도 다른 文法形態와 마찬가지로 時代가 바뀔에 따라 變遷해지고 地域을 달리 함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濟州島 方言에서는 이 尊卑法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아 가기로 한다.

그런데 尊卑法은 濟州島 方言에서는 語彙로써 體言으로 나타내는 경우와 用言 謙讓辭로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活用語尾로써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本論攷는 活用語尾에 대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活用語尾로써 表示되는 尊卑法에 한하여 考察하여 나가게 된다. 또 活用語尾(先語末語尾)로써 表示되는 尊卑法이라 하더라도 尊待·下待 등 全般에 걸쳐 論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서는 尊待法에 대해서만 考察하여 나가기로 한다.

3.2 對者尊待의 {-우-}

3.2.1 濟州島 方言 言衆들 間の 對話에서는 ‘-수-·-쿠-’의 先語末語尾들이 아주 흔하게 쓰여진다.

- (1) 난 집의 감수다. (저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 (2) 애기 밥 먹엄수다. (애기 밥 먹고 있습니다.)
- (3) 그 사람 바당의서 고기 나잡수다.
(그 사람은 바다에서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 (4) 자의 지봉 우의 올랏수다. (저 아이 지붕 위에 올랐습니다.)
- (5) 그 사람 빙 다 좋앗수다. (그 사람 빙 다 좋았습니다.)
- (6) 난 밭되서 일했수다. (저는 밭에서 일했습니다.)

들과 같이 動作相 形態素 /-암-/·-/ -앗-/ 등 다음에 ‘-수다’形이 자주 言述해진다. 또 다음과 같이 ‘-쿠-’ 先語末語尾도 번번히 쓰인다.

- (7) 난 집의 가쿠다.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 (8) 난 이디서 놀암시쿠다. (저는 여기서 놀고 있겠습니다.)
- (9) 날 비 오쿠다. (내일 비 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빈번히 言述해지는 ‘-수다·-쿠다’形들은 어떤 意義를 가진 形態인가. 다음에 言衆들 對話에서 그 意義를 推察하여 보기로 한다. a.를 年上者, b.를 年下者로 한다.

- (10) a. 는 어디 감디? (너는 어데 가고 있니?)
b. 학교에 감수다.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 (11) a. 가의 똥 하염시니? (그 아이 똥하고 있니?)
b. 집의서 공부 하염수다.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2) a. 애기 잠시냐? (애기 자고 있냐?)

b. 예, 잠수다. (예, 자고 있습니다.)

이들 (10)~(12)까지의 對話에서 年下者인 b.의 對答이 한결같이 ‘-수다’ 形으로 되어 있다. 年下者가 年上者에 對하여 應答하는 言述에 ‘-수다’ 形이 쓰여지고 있음을 이들 對話의 應答에서 보아 알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年上者와 年下者의 對話에서 보면,

(13) a. 느도 갈다? (너도 가겠니?)

b. 예, 나도 가쿠다. (예, 저도 가겠습니다.)

(14) a. 널 비 오크냐? (내일 비 오겠냐?)

b. 예, 비 오쿠다. (예, 비 오겠습니다.)

(15) a. 느 어느거 먹올디? (너 어느 것 먹겠니?)

b. 이거 먹쿠다. (이것 먹겠습니다.)

이들 例 (13)~(15)까지의 對話에서도 年下者인 b.의 應答이 한결같이 ‘-쿠다’ 形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위의 (10)~(12)까지 例에서의 ‘-수다’ 形이 言述하여진 場面과 같은 條件, 즉 ‘年下者가 年上者에 對하여 應答한다’는 同一한 條件에서 發話하여진 形態들이다.

3.2.2 다음은 對話의 場面, 즉 話者와 聽者間의 年齡, 位置를 바꾸어서 對話를 進行시켜 보려 한다.

(16) a. 아버지 오늘 밧디 가쿠가? (아버지 오늘 밧에 가겠습니까?)

b. 오, 가키여. (오, 가겠다.)

(17) a. 성님 뭇 먹쿠가? (형님 뭇을 먹겠습니까?)

b. 나 아무 거나 먹키여. (나 아무 거나 먹겠다.)

(18) a. 성님 널 뭇 ㅎ쿠가? (형님 내일 뭇을 하겠습니까?)

b. 집의서 쉬키여. (집에서 쉬겠다.)

이 (16)~(18)까지의 例에서는 年下者인 a.의 年上者 b.에 대한 質

問이 한결같이 ‘-쿠가’ 形으로 되어 있다. 年下者가 年上者에게 對하여 質問하는 發話에서 그 末尾에 ‘-쿠가’ 形을 한결같이 쓰는 것은 위의 (13)~(15)例에서 年下者가 年上者에 대하여 應答을 하는 言述에 ‘-쿠다’ 形을 쓰는 것과 그 發話들이 이루어지는 人的要件은 같다. 즉 (13)~(15)에서는 年上者 對 年下者, (16)~(18)에서는 年下者 對 年上者の 問答으로 그 묻고 대답하는 者の 位置가 서로 바뀌졌을 뿐 그 人的 要件은 同一하다는 것이다. 앞의 (10)~(12)에서 든 ‘-수다’의 例에 있어서도 對話의 場面, 즉 話者와 聽者間의 年齡, 位置 등을 바꿔 놓으면 (13)~(15)例 對 (16)~(18)例와 마찬가지로 結果가 될 것이다.

- (19) a. 어드레 갑수^ㅁ가? (어디로 가십니까?)
 b. 밋더레 갑저. (밭에 가고 있다.)
- (20) a. 가의 뭐 함염수^ㅁ과? (그 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b. 집의서 일 함염저. (집에서 일하고 있다.)
- (21) a. 애기 잘 놀암수^ㅁ과? (아이 잘 놀고 있습니까?)
 b. 오, 잘 놀암저. (오, 잘 놀고 있다.)

역시 年下者 a.의 年上者 b.에 대한 質問이 한결같이 ‘-수과’, 또는 ‘-수가’ 形으로 나타나 있다. (16)~(18)에서의 例 ‘-쿠가’ 形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狀況에서 表現된 形態이다.

다음으로 이 ‘-수가’·‘-쿠다’ 또는 ‘-수다’·‘-쿠가’들의 形態分析을 하여 보면, ‘-수다’·‘-쿠다’의 ‘-다’는 더 말할 것도 없이 平叙法語尾이고, ‘-수과’·‘-쿠가’의 ‘-과’·‘-가’들은 疑問法語尾인 것이다. 여기 ‘-과’는 ‘-가’가 앞의 ‘ㄷ’ 母音의 影響을 받고 해서 圓唇音化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現象은 다른 言語에도 있는 것이다.”

3.2.3 이렇게 分析하여 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수’·‘-쿠’ 인데 이것이 各各 單一形態素일 것인지 疑問이다.

注 1: 市河三喜; 『英語學辭典』, 東京, 研究社, 1956. p. 556.

다음 方言의 對話 例들을 들면서 이들을 推察해 보기로 한다.

- (22) a. 느 뭐 흘디? (너 무엇을 하겠니?)
 b. 나 공부 하쿠다. (저 공부하겠습니다.)
 (23) a. 오늘 일기 어떠^하코? (오늘 일기가 어떠할꼬?)
 b. 오늘 비 오^쿠다. (오늘은 비가 오겠습니다.)
 (24) a. 그 일 느도 헤지커까? (그 일 너도 헤지겠나?)
 b. 예, 나도 헤지^쿠다. (예, 저도 헤지겠습니다.)

(22)의 a.는 年上者가 年下者의 意思를 打診하는 質問이요, b.는 a.에 대한 應答으로 年下者가 意思를 言述한 것이다. (23)의 a.는 年上者가 年下者에게 ‘오늘 일기가 어떻겠느냐?’고 묻는 것이고, b.는 이에 대한 應答으로 ‘비가 오겠습니다’고 推測하여 말한 것이다. (24)의 a.는 年上者가 年下者에게 그 能力을 다짐하여 묻는 것이고, b.는 역시 a.에 대한 應答으로 ‘할 수 있습니다’고 그 可能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22)의 b.에서는 話者의 ‘意思·意圖’를, (23)의 b.에서는 話者의 ‘推測’을, (24)의 b.에서는 話者의 ‘能力·可能’을 各各 表現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意圖·推測·可能’을 指示하는 形態素는 어느 것일까? 위의 動詞 ‘하^쿠다·오^쿠다·헤지^쿠다’들에서의 語幹과 語尾를 分析하여 버리면 ‘-쿠-’가 남는다. 그럼 이 ‘-쿠-’가 ‘意圖·推測·可能’을 指示하는 單一形態素일까? 다시 다음의 例에서 보아 가기로 한다.

- (25) 난 집의 가^키여. (난 집에 가겠다.)
 (26) 오늘 비 오^키여. (오늘 비 오겠다.)
 (27) 그전 나도 헤지^키여. (그것은 나도 헤지겠다.)

여기 (25)~(27)에서의 ‘가키여’는 ‘가겠다’로 自己의 意圖를, ‘오키여’는 ‘비가 오겠다’로 推測을, ‘헤지키여’는 ‘하여지겠다·할 수 있겠다’로 可能을 各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意圖·推測·可能’을 指示하는 形態素는 ‘-키-’에 있다고 하게 된다. 그럼 이 ‘-

키-'는 과연 單一形態素일까? 方言에서 體言이 叙述語로 쓰일 때 '웨
여·뵈이여'라고 쓰이는데, 이 '뵈이여'의 '-이-'를 叙述格語尾라 한
다. 이에 비추어 '오키여·가키여'의 '-키여'는 '-ㄱ+이여'로 分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이 '-키여'를 '-ㄱ+이여'로 分析할 때
'-ㄱ-'만이 '意圖·推測·可能'을 指示하는 形態素라 하게 된다. 이
렇게 '-키-'를 分析하여 '-ㄱ-'만이 '意圖·推測·可能'을 指示하는 形
態素라 할 때 위의 (22)~(24)에서 分析하여 놓은 '-쿠-'는 어떠한 것
인가? 이것도 또한 다시 分析될 어떤 形態素들의 複合이 아닐까? 다
음에 다시 方言에서의 例를 求하여 이를 規明하여 보기로 한다.

- (28) a. 어두운디 어디 잠이우과? (어두운데 어디 가십니까?)
b. 집더래 잠이여. (집에 간다.)
- (29) a. 그되서 뭐 흠이우과?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b. 그자 놀압저. (그저 놀고 있다.)
- (30) a. 낭 싱금이우과? (나무를 심으십니까?)
b. 오, 낭 싱겹저. (오, 나무를 심고 있다.)

이 (28)~(30)까지의 對話들은 年下者와 年上者 間의 問答이다. 各例
의 a.는 年下者가 年上者에게 묻는 것이고, b.는 年上者가 年下者의 물
음에 대한 應答이다. 이들 疑問文에 있어서 그 疑問法語尾는 '-과'인
데, 語幹은 모두 動名詞形이다. 나머지는 '-우-' 뿐인데, 이것이 바로
年下者가 年上者에게 問答할 때 쓰여지는 尊待 表示의 形態素인 것이다.

이제 위의 (22)~(24)에서 考察하다가 둔 '-쿠-'를 分析 規明할 段階
에 이르렀다.

이 '-쿠-'는 (25)~(27)에서 分析 規明한 바와 同一하게 分析이 되
는데 그렇게 해서 分析할 때, '-쿠-'는 '-ㄱ+우-'로 分析된다. 여기의
'-ㄱ-'은 '意圖·推測·可能'을 指示하는 形態素임은 (25)~(27)에서
이미 밝혀졌다. 이제 그 나머지는 '-우-'인데, 이것은 (28)~(30)에서
規明한 바의 /-우-/ 形態素와 同一한 것이다. 그것은 이 問題의 /-

우-/가 (22)~(24)의 例 各 b.에서 보면 年下者가 年上者에게 應答하는데 쓰여졌기 때문이다. 이 年下者가 年上者와 對話할 경우에는 그것이 質問의 경우이건 應答의 경우이건 언제나 이 /-우-/를 쓰므로, 이것은 尊待 表示의 形態素라 하게 된다.

다음은 (10)~(12)에서와 (19)~(21)에서 다루다가 둔 ‘-수-’에 대하여 分析 考察하여야겠다. (10)~(12)에서는 年下者인 b.가 年上者에 대하여 應答하는 言述에 ‘-수다’ 形을 쓰고 있고, (19)~(21)에서는 年下者인 a.가 年上者에 대하여 質問하는 發話에서 그 末尾에 ‘-수가’ 形을 쓰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語末語尾의 ‘-다’, ‘-가’ 들은 各各 平叙法語尾, 疑問法語尾로 分析된 바도 있다. 여기 남은 것이 ‘-수-’인데 이것이 單一形態인지 혹은 어떤 形態들의 複合이 아닌지를 다음 方言에서의 例를 들면서 規明하여 보기로 한다.

- (31) 난 이디서 밥 먹엿수다. (저는 여기서 밥 먹고 있습니다.)
- (32) 가의 공부 하엿 흥엿수다. (그 아이 공부 많이 하였습니다.)
- (33) 그 사람 나도 보아수다. (그 사람을 나도 보았습니다.)

앞의 2章 「動作相」에서는 이러한 動詞의 先語末語尾를 動作相의 變異 形態 /-엄스-/ · /-엇스-/ · /-아스-/들로 分析 抽出하여 내었던 것이다. 先語末語尾 ‘-엄수-’ · ‘-엇수-’ · ‘-어수-’ 들에서, /-엄스-/ · /-엇스-/ · /-아스-/들을 分析 抽出하여 버리면 그 나머지는 /-우-/뿐이다. 이 /-우-/는 (28)~(30)에서 規명한 /-우-/와 同一한 尊待表示의 形態素이다. 위의 (10)~(12)와 (19)~(21)에서 年下者가 年上者와 對話할 경우에 言述해진 /-우-/ 先語末語尾도 (28)~(30)에서 規명한 /-우-/와 同一한 尊待 表示의 形態素인 것이다.

3.2.4 以上과 같이 하여 ‘-수-’와 ‘-쿠-’는 궁극적으로 /-스-/ (存在辭 ‘시-’의 變異形態)와 /-우-/ , /-쿠-/와 /-우-/로 各各 分析되 어졌다. 이 /-우-/는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尊待表示의 形態

素이다. 對話에 있어서 年下者가 年上者를, 下位者가 上位者를, 또는 同位者, 同年輩일지라도 話者가 相對者를 尊待하려고 하는 意向을 가질 때, 이 /-우-/는 使用되는 것이다. 이렇게 對話에 있어서 相對者를 尊待한다는 意味를 취하여 여기서 이 /-우-/를 「對者尊待」形態素라 하여 둔다.

이 「對者尊待」를 「相對尊待」²⁾ 或은 「聽者尊待」라기도³⁾ 한다. 「相對尊待」라 하면 「相對的인 尊待」로 誤認되기도 쉽고, 또 「聽者尊待」라 해도 ‘聽者’는 特定人에 限定되어진다고만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서 話者와 ‘맞대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킨다는 意味에서 「對者尊待」라 하는 바이다.

3.2.5 위에서 發話의 例 (1)~(33)에 이르면서 考察하여 온 바와 같이 方言에서 動詞의 語末語尾 바로 앞에 놓이는 /-우-/는 ‘相對者를 尊待하는 形態素’라 規定하여 왔는데, 이를 다시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는 이 /-우-/ 語尾가 어떤 意義를 表示하는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平 叙 法 :

尊卑法 語例	하 라 體(下待)	하 여 體(平待)	훈 서 體(尊待)
語 例	먹키여 놀암시키여 오랏저 먹어시네	먹크라 놀암시크메 오라서 먹어시메	먹쿠다 놀암시쿠다 오라수다 먹어수게

疑 問 法 :

尊卑法 語例	하 라 體(下待)	하 여 體(平待)	훈 서 體(尊待)
語 例	갈다 먹어실레 먹어시니 오람시나	가젠・가크라 먹어시크라 먹어서 오람서	가쿠가 먹어시쿠가 먹어수가 오람수가

注 2 : 許雄 ; 「中世國語研究」, 正音社, 1963, pp. 21—76

3 : 成者徹 ; 「國語待遇法研究」 「忠北大論文集第4輯」, 1970, pp. 35—57

濟州島 方言에서 尊卑法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라體」, (下待), 「하어體」(平待), 「훈서體」(尊待), 등 三元的 對立體系를 이룬다고 筆者는 보는 바인데, 여기 이 三元的 對立에서 「尊待」(훈서體)의 語尾에는 先語末語尾로서 /-우-/가 介在되어 있다. 그것은 平叙法, 疑問法 두 叙法에서 그 「尊待」(훈서體)의 語尾에만 /-우-/가 介在되어 있다. 「下待」나 「平待」에는 /-우-/가 介在되는 일이 없는데, 오직 「尊待」의 語尾에만 /-우-/가 介在된다는 것은 이 /-우-/가 바로 尊待表示의 形態임이 分明하다. 事實, 앞에서 發話 (1)~(33)에 이르면서 본 바와 같이 이 /-우-/가 語末語尾 바로 앞에 位置할 경우에는 언제나 相對者를 尊待하는 그런 意義를 나타내는 發話이었는데, 여기 위에 든 尊卑法體系의 표에서 보는 바 「尊待」系列에 있어서 各 語例의 語尾는 한결같이 相對者를 尊待하는 言述인 것이다.

위와 같이 하여 여기 다시 {-우-}는 相對者를 尊待하는 形態素, 즉, 「對者尊待」形態素임을 再闡明하는 바이다.

3.3 對者尊待의 {-우-}

3.3.1 方言 言衆들의 對話에서 다음과 같은 語尾들은 아주 흔하게 쓰인다.

- (34) 훈저재게 집의 갑서.
(여서 빨리 집에 가십시오.)
- (35) 철순 일 잘 훈메다.
(철수는 일을 잘 합니다.)
- (36) 이 애기 말 잘 놀음네다.
(이 애기는 말을 잘 합니다.)

이들 發話에서 (34)의 ‘갑서’는 年下者 或은 下位者인 話者가 年上者 或은 上位者에게, 또는 相對者를 尊待할 意向을 가진 話者가 그 相對者에게 命令하는 것이고, (35)의 ‘훈메다’는 年下者 或은 下位者인 話者

가 年上者 或은 上位者에게, 또는 相對者를 尊待할 意向을 가진 話者가 그 相對者에게 過去에 自己가 經驗했던 일을 回想하여 言述하는 것이고, (36)의 ‘꼴읍네다’도 亦是 年下者 或은 下位者인 話者가 年上者 或은 上位者에게, 또는 相對者를 尊待할 意向을 가진 話者가 그 相對者에게, 動作主인 애기의 말하는 것을 指定하여 直接的으로 言述하는 것이다.

어느 發話에서나 마찬가지로 年下者인 話者가 年上者에게, 或은 下位者인 話者가 上位者에게, 또는 相對者를 尊待할 意向을 가진 話者가 그 相對者에게, 命令 또는 言述하는 것인데, 이 語尾들을 分析하여 보면 (34)의 ‘잡서’에서 /-서/는 命令法語尾라 볼 수 있고, (35), (36)의 語尾 /-다/는 平叙法語尾이다. 그리고 (35)의 ‘흠메다’의 /-메-/는 回想法의 形態이고, (36)의 ‘꼴읍네다’의 /-네-/는 直說法의 形態이다.⁴⁾ 이제 여기 남은 形態는 語幹(또는 媒介母音을 介在시키고서)에 連結되어 있는 /-ㅁ-/이다. 이 /-ㅁ-/이 바로 年下者 或은 下位者가 그 年上者 或은 上位者에게, 또는 相對者를 尊待할 意向을 가진 話者가 그 相對者에게, 問答할 경우에 쓰여지는 것이므로 相對者를 尊待하는 形態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다음의 對話들에서 보아 가기로 한다.

- (37) a. 그 사람도 밥 먹읍메가?
(그 사람도 밥을 먹읍디까?)

b. 오, 먹어라.
(오, 먹더라.)

- (38) a. 널 다시 읊네까?
(내일 다시 읊니까?)

b. 예, 오라 봅서
(예, 와 보십시오.)

注 4: 高永根; *Ibid.*, pp. 12-24

이들 發話는 a.와 b.사이의 問答이다. (37)에서의 對話는 年下者 對 年上者, 혹은 下位者 對 上位者 間的 問答이다. 그래서 a.의 ‘먹읍네가’는 年下者 或은 下位者가 過去에 있어서의 主體의 動作에 對하여 相對者에게 回想시켜 묻는 것이고, b.의 ‘먹어라’는 年上者 或은 上位者가 主體의 動作에 對하여 過去 經驗했던 바를 回想하여 對答하는 것이다. 여기서 年下者 혹은 下位者가 年上者 혹은 上位者에게 質問하는 경우에 ‘-네가’ 語尾를 쓰고 있다. 이 年下者 或은 下位者가 年上者 或은 上位者에게 問答할 경우에 있어서는 大概是 相對者를 尊待할 意向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네가’는 相對者에게 過去 經驗한 일에 대하여 質問하는 尊待表示의 疑問法이 아닌가 하게 된다. 다음 發話 (38)은 a.의 ‘읍네까’나 b.의 ‘오라 봄서’가 모두 語幹과 語尾 사이에 /-ㄷ-/을 介在시키고 있다. 이 /-ㄷ-/의 介在를 위에서 推定하여 오는 바와 같이 尊待表示의 語尾라 하게 된다면 이 (38)은 그다지 親近하지 아니하면서도 서로 禮節을 지켜야 할 두 사람 사이의 對話이다. 말하자면 이 (38) 問答에 있어서 各其 話者는 相對者가 自己보다 文字 그대로 「年上・上位・尊貴」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要因에서 또는 發話時의 狀況에서 서로 相對者를 尊待하여야겠다는 心理狀態가 이렇게 質問과 應答에 있어서 서로 尊待表示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3.3.2 위의 發話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方言에서 動詞의 語尾에 /-ㄷ-/을 介在시킨 形態는 어떤 尊待를 表示하는 語尾라 하게 되는데, 다음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 이 /-ㄷ-/語尾의 意義를 推察하여 보기로 한다.

平 叙 法 :

尊卑法 語例	하 라 體	하 여 體	훈 서 體
語 例	먹나 오라라 놀암서라	먹으메・먹네 오란게 놀암선게	먹읍네다 읍네다 놀암십메다

疑問法:

尊卑法 語例	하 라 體	하 여 體	ஹ 서 體
語 例	보안다 가느냐 먹엄서니	보안 가는가 먹엄선고	봄테가 갑베까 먹엄십테가

命令法:

尊卑法 語例	하 라 體	하 여 體	ஹ 서 體
語 例	먹으라 보라 놀암시라	먹어 보아 놀암서	먹읍서 봄서 놀암십서

請誘法:

尊卑法 語例	하 라 體	하 여 體	ஹ 서 體
語 例	가자 더끄자 글라	가줘 더끄줘 글어	갑줘 더꿍줘 글읍서

이 表에서 보면 方言에서의 尊卑法體系 「하라體」(下待), 「하여體」(平待), 「ஹ서體」(尊待) 등 三元的 對立에서 最上位인 「尊待」의 語尾에는 先語末語尾로서 /-ㅂ-/이 介在되어 있다. 그것은 平叙法, 疑問法, 命令法, 請誘法 등 어느 叙法에서나 그 「尊待」의 語尾에 /-ㅂ-/이 介在되어 있다. 「下待」나 「平待」의 語尾에는 /-ㅂ-/이 介在되는 일이 없는 데, 오직 「尊待」의 語尾에만 /-ㅂ-/이 介在된다는 것은 이 /-ㅂ-/이 바로 尊待表示의 形態임이 分明하다. 그리고, 이 /-ㅂ-/이 相對者를 尊待한다는 것은 (34)~(38)의 發話에서 이미 보아 온 바이다. 이리하여 方言에서 이 {-ㅂ-}을 相對者를 尊待하는 形態素, 즉, 「對者尊待」形態素라 規定하게 된다.

3. 4 對者尊待의 {-마씀}

3. 4. 1 方言의 發話에는 다음과 같은 語尾 形態가 言述되어지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다.

(39) a. 이젠 집의 가라.

(이제는 집에 가거라.)

b. 이젠 집의 가^ㅁ마씀?

(이제는 집에 가거라 말입니까?)

(40) a. 이젠 느 헛엇저.

(이것은 너가 하였다.)

b. 그거 나 헤서^ㅁ마씀?

(그것을 저가 했다 말입니까?)

(41) a. 철순 학교에서 오라라.

(철수는 학교에서 오더라.)

b. 철순 학교에서 오라서^ㅁ마씀?

(철수는 학교에서 왔다 말입니까?)

이들 각 b.의 發話에 있어서는 定動詞의 語末語尾에 /-마씀/이 添付되어 있다. 이 語尾에 /-마씀/이 添付되어서 形成되어진 語尾는 어떤 意義를 갖는 것인지? (39) b.의 ‘이젠 집의 가 마씀?’이란 發話는 바로 (39) a.의 發話 ‘이젠 집의 가라.’에 對한 反問이다. 따라서 ‘가 마씀’은 ‘가거라 말입니까?’로 對譯된다. (40) b.의 ‘그거 나 헤서마씀?’도 (40) a.의 ‘이젠 느 헛엇저’에 對한 反問이고, (41) b.의 ‘철순 학교에서 오라서마씀?’도 亦是 (41) a.의 ‘철순 학교에서 오라라.’에 對한 反問이다.

이렇게 定動詞의 語末語尾에 /-마씀/을 添付함으로써 反問의 疑問法語尾를 形成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末尾에는 反問의 音調型

尊待法

이 붙게도 된다. 그런데 이렇게 定動詞의 語末語尾에 /-마씀/ 添辭⁵⁾가 添付되어서 形成되는 語尾는 尊卑法體系에서 어느 系列에 屬하는 것인지를 다음에 알아 보기로 한다.

3.4.2 여기 먼저 /-마씀/ 添辭가 添付되어 있는 定動詞語尾의 尊卑法體系的 表를 提示하여 보기로 한다.

平叙法:

尊卑法 語例	하 라 體	하 여 體	흥 서 體
語 例	먹엄저 오라라 보앗저	먹엄취 오란게 보앗취	먹엄취마씀 오란게마씀 보앗취마씀

疑問法:

尊卑法 語例	하 라 體	하 여 體	흥 서 體
語 例	보아냐 먹언다 오크냐	보아 먹언 오카	보아마씀 먹언마씀 오카마씀

이들 平叙法, 疑問法 外에 命令法, 感嘆法語尾 등에서도 /-마씀/ 添辭가 添付되는 일이 있으나, 여기 더 例示하지 않기로 한다.

위의 表에서 보여 주는 /-마씀/ 添辭가 添付되어 있는 語尾들을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이 /-마씀/이 添付되어 있는 語尾들은「흥서體」系列에 屬하고 있는데, 그 語尾의 形成을 보면 모두「하여體」語尾에 /-마씀/ 添辭가 添付되어 있을 뿐이다. 平叙法의 尊待法 語尾 ‘먹엄취마씀, 오란게마씀, 보앗취마씀’ 들에서 各各 그 添辭 /-마씀/을 빼 버리면 나머지는「하여體」語尾 그대로이다. 또 疑問法에서도 그 尊待法 語尾 ‘보아마씀, 먹언마씀, 오카마씀’ 들에서 各各 그 添辭 /-마

注 5: 方言의 發話에서 語詞의 末尾에 添付되는 ‘-마씀, -게, -양, -예, -이’ 따위들을 「添辭」라 부르기로 한다.

ㅅㅅ/을 떼어 버리면 나머지는 疑問法의 「하여體」語尾 그대로이다. 이것으로 볼 때 이 /-마ㅅㅅ/ 添辭가 添付되면 尊卑法體系에서 「흠서體」(尊待)에 屬하고, /-마ㅅㅅ/ 添辭를 떼어 버리면 그대로 尊卑法體系의 「하여體」(平待)에 屬하게 되니, 이 /-마ㅅㅅ/ 添辭가 바로 「尊待」를 表示하는 形態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事實, 方言의 發話에서는 이 /-마ㅅㅅ/을 定動詞의 「하여體」語尾에 添付시켜 言述을 함으로써 相對者를 尊待하게 된다. 이리하여 方言에서는 이 {-마ㅅㅅ}도 相對者를 尊待하는 形態素, 즉, 「對者尊待」形態素라 規定하게 된다.

3.4.3 다음에 소위 「主體尊待」(或은 尊敬法)의 形態素라고 일컬어지는 /-시-/에 對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 「主體尊待」의 /-시-/는 濟州島 方言의 元來의 尊待法으로서는 잘 안쓰였던 것이다. 近者에 표준어의 影響을 받아서인지 主體의 動作을 나타내는 動詞의 語幹에 /-시-/를 插入시켜 言述하는 傾向이 있기는 하다.

(A)	(B)
잡서	가 ^ㅅ ㅅㅅ
먹음서	먹 ^으 ㅅㅅ
놓서	노 ^ㅅ ㅅㅅ
더꺾서	더 ^끄 ㅅㅅ
반음서	반 ^으 ㅅㅅ
들어음서	들 ^{어오} ㅅㅅ

여기 (A) 系列의 語尾가 在來의 方言 命令法이고, (B) 系列의 語尾는 近者에 새로 생겨지는 「主體(對者)尊待」의 命令法이다. 이렇게 새로 생겨지는 尊待法은 方言에서 二重 尊待法의 複合形態까지 形成시키고 있다. 여기 든 例들에서 보더라도 이 ‘-ㅅㅅ’은 ‘-시+ㅅㅅ’로 分析이 되는 바 /-시-/는 動作 主體를 尊待하는 形態, /-ㅅㅅ-/은 相對者(이들 例에서는 相對者인 同時에 主體)를 尊待하는 形態로 二重 尊待法의

複合形態이다.

(42) 아버지 오ㅅㅅ수다.

(아버지가 오십니다.)

(43) 언제 서월 가ㅅㅅ수과?

(언제 서울에 가십니까?)

(44) 선생님 나가ㅅㅅ수다.

(선생님이 나가십니다.)

이들 發話에서 ‘오ㅅㅅ수-’, 가ㅅㅅ수-’의 ‘-ㅅ-’은 ‘-ㅅ+ㅅ-’으로 分析되어지는데 動作 主體로 尊待하는 /-ㅅ-/와 動作相의 形態 /-ㅅ-/의 結合이다. 그리고 ‘-수-’는 存在辭 ‘ㅅ-’에서 文法形態化하여 버린 /-ㅅ-/의 異形態 /-ㅅ-/와 方言에서 相對者를 尊待하는 /-우-/ 形態와가 結合된 것이다. 그리하여 ‘오ㅅㅅ수다’는 尊待法上 「主體尊待」의 /-ㅅ-/와 「對者尊待」의 形態 /-우-/와가 複合된 二重 尊待法の 形態이다. 이러한 主體를 높이는 /-ㅅ-/는 앞으로 표준어의 영향 밑에 濟州島 地域 方言의 尊待法에 상당한 比重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方言 言衆들의 發話에서 자주 쓰여져 갈 것임에 틀림없다.

3.5 尊待法 形態의 特徵

3.5.1 오늘날 濟州島 方言에서 定動詞語尾로써 表示되는 尊待法の 形態는 3.2~3.4에서 考察하여 온 바와 같이 세 가지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相對者를 尊待하는 「對者尊待」 形態이어서, 오늘날까지 濟州島 方言에서는 「主體尊待」를 表示하는 方法은 確立되어 있지 못하다. 國語 尊待法史上에서는 일찍부터 使用되어 온 「主體尊待法」이 方言 言衆들의 言語生活에서는 아직까지 確立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方言 尊待法の 特徵을 말해 주는 것이라겠다. 이 方言에서 「主體尊待法」이 確立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方言 言衆들의 意識構造와 또 이 地域의

社會構造와도 關聯되는 問題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장황한 論說을 要할 것이므로 別稿로 미룬다.

3.5.2 方言에서 「客體尊待法」은 몇몇 謙讓語로 表示해지고 있다.

- (45) 이거 좇당 안네라.
(이것을 좇다가 드러라.)
- (46) 이거 아바님안티 드립네까?
(이것을 아버지께 드립니까?)
- (47) 강 선생님안티 솔와 불라.
(가서 선생님께 사뢰어 버려라.)

이들 發話에서 (45)의 ‘안네라’는 ‘주라’의 謙讓語인데 話者가 相對者 보고서 第三者인 客體에게 ‘좇다 드러라’고 命令하는 것이고, (46)의 ‘드립네까’는 /드리-/로써 客體인 아버지께 尊待를 表示하고 있고, /-히-/으로써 相對者에게 尊待를 表示하고 있는 二重 尊待法의 것이다. (47)의 ‘솔와’는 元來 ‘솔’ (白)에서 轉變된 副動詞語尾인데 이 /솔-/이야 말로 新羅, 高麗時代로부터 「客體尊待」를 表示하는 形態였던 것이다.⁶⁾ 그런데 이러한 客體尊待의 表示는 活用語尾로써가 아니라 語辭로써 하여지는 것이므로 本攷에서 다룰 바가 아니다. 여기 더 이상 論及을 하지 않기로 한다.

3.5.3 方言의 「對者尊待」表示의 形態素 {-히-}은 오늘날 표준어 등에서도 ‘갑니다, 합니다’와 같이 相對者尊待의 形態素로 쓰여지므로 여기서 特記할 것이 못된다. 勿論 이 濟州島 方言에서 {-히-}과 표준어 등에서의 {-히-}이 通時的으로 보아 同一 時代의 것으로 論해질 것이 아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方言에서의 {-히-} (습·줍·옴·옴)이 元來는 「對者尊待」를 表示하는 形態素였던 것은 아닐 것이다.

方言에서 「對者尊待」를 表示하는 形態素로는 따로 {-우-}가 있는 것

注 6: 許雄; *Ibid.*, pp. 53—57

으로 미루어 보아서 {-히-} (습·줍·옴·움) 形態素가 方言에서도 元來는 「客體尊待」를 表示하는 形態素로 쓰여 오다가 어느 時期에 이르러 「對者尊待」形態素로 쓰이게 된 것이라 본다.⁷⁾

3.5.4 오늘날 方言에서의 「對者尊待」形態素 중에서도 가장 일찍부터 「對者尊待」를 表示하여 온 形態素가 {-우-}이다. 이 {-우-}는 方言에서 아득한 옛적부터 「對者尊待」를 表示하는 形態素로 쓰여 왔던 것임이 틀림없다. 文獻語의 尊待法에서 볼 때 元來 「對者尊待」를 表示하는 形態는 {-이-}와 {-쇼셔}였다.⁸⁾ 15, 6세기의 文獻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聖孫을 내시니이다	〈龍歌・8〉
내 佛性을 보이다	〈牧牛子修心訣・6〉
小人이 브리여 잇노이다	〈朴通上・58〉
날회여 말호리이다	〈朴通上・59〉

이들 文獻語에서의 ‘-이다’가 相對者들 尊待하는 語尾이다. 新羅의 鄉歌에는 ‘-音如’로 表記되어 있다.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獻花歌〉
國惡太平恨音叱如	〈安民歌〉

이 ‘-音如’를 ‘-이다’로 읽고 있다.⁹⁾ 이것은 15, 6세기의 語形 그대로이다. 이 文獻語의 「對者尊待」를 表示하는 {-이-}에 該當되는 形態素가 方言에서는 {-우-}이다. {-이-}가 新羅時代 (아니 그 이전)로부터 16세기까지 줄곧 「對者尊待」形態素로 쓰였지만 方言에서는 {-우-}가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對者尊待」의 形態素로 쓰여 오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 {-우-}가 方言에서의 세 가지 「對者尊待」形態素 중에서도 가장 일찍부터 쓰여 왔던 것임을 文獻語의 尊待法 表記에 對

注 7: 許雄; *Ibid.*, pp. 64-70

8: 許雄; *Ibid.*, pp. 21-27

9: 梁柱東; *Ibid.*, p. 242

比시켜 보아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다.

3.5.5 「對者尊待」形態素 {-마씀}은 方言에서 形成되어진 特異한 尊待法 語尾이다. 年代的으로도 세 形態素 중 가장 나중에 「對者尊待」形態素로 轉用되어진 形態素가 아닌가 한다. 前時代로부터 쓰여 오는 「對者尊待」形態素 {-우-}와 {-되-}이 있는데도 다시 {-마씀}까지 「對者尊待」形態素로 轉用하기에 이르는 데는 그만큼 理由가 있었을 것인데, 그 理由를 筆者는 두 가지 面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마씀}이 「對者尊待」形態素 {-우-}나 {-되-}이 接尾되어 있지 않은 用言의 語尾에 添付되어서 反問의 疑問法으로 쓰이다가 차츰 平叙法에도 援用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方言의 用言에 따라서는 活用語尾가 尊卑法體系에서 「하라體」(下待)와 「하여體」(平待)는 있는데 「흡서體」(尊待)는 없어서, 이 「흡서體」의 語尾를 채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構造上的 구멍」(hole in the pattern)¹⁰⁾을 메우기 위해서, 形成되어 나온 語尾가 바로 「하여體」 語尾에 {-마씀} 形態素를 添付시켜 「흡서體」(尊待) 즉 「對者尊待」形態素로 轉用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다른 또 한 가지는, 近代語, 現代語로 내려 오면서 尊待法은 客體尊待, 主體尊待보다도 場面에 應하는 對者尊待法을 훨씬 자주 쓰게 되는데, 이 點에서 또한 새로이 「對者尊待」形態素를 形成시켜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마씀} 添辭를 援用하여서 「對者尊待」形態素로 轉用시킨 데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理由에서가 아닌가 한다.

3.5.6 方言에서 「對者尊待」의 形態素로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는 語末語尾 바로 앞에만 位置해서 적어도 定動詞의 語幹에 直接 連結되어지는 일이란 없고, {-되-}은 動詞의 語幹에 直接 連結되어진다. 또 {-마씀}은 語末語尾의 末尾에만 添付된다. 이와 같이 이 세 形態素는 語幹 또는 先語末語尾와의 配列 順序에 있어서 그 列素(taxeme of order)를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서 各各 別個의 形態素이다 함은 두말

注 10: K. L. Pike; *Ibid.*, p. 117

할 것도 없다.¹¹⁾ 이상과 같이 하여 方言의 定動詞語尾로써 表示되는 尊待法の 形態素는 「對者尊待」의 形態素 {-우-}, {-되-}, {-마씀} 세 가지 뿐이다.

3.6 尊待法 形態의 國語史的 位置

3.6.1 앞의 3.2와 3.3 그리고 3.4 節에서 {-우-}, {-되-}, {-마씀}들을 各各「對者尊待」形態素로 規定하였다. 이들 形態素가 文獻語에서도 나타나는가 어떤가를 들춰 보고 또 그 史的 位置는 어떠한가를 推察하여 보기로 한다.

3.6.2 對者尊待 形態素 {-우-}는 文獻上에서 별로 그 例를 보지 못한다. 新羅의 鄉歌 表記에 ‘古如’ 語形이 나타나는데, 或이면 方言의 ‘쿠다’ 語形은 이것과 連脈을 같이 하는 것이나 아닌지?

民是愛尸知古如	〈安民歌〉
國惡支持以支知古如	〈安民歌〉
道修良待是古如	〈祭亡妹歌〉

이 ‘知古如’를 梁柱東博士는 ‘알고다’로 읽고, 「民是愛尸知古如」에서의 ‘知古如’의 意義를 ‘……「알고다」의 古代 原語는 마땅히 「알겨오다」임에 願望의 뜻은 없고 多少 將然의 語感を 가진 「可知矣」의 義의 敬語體에 不外한다. ……」라고 說明하였다.¹²⁾ 小倉博士는 ‘知古如’를 亦是 ‘알고다’로 읽고 ‘-고다’는 文句의 끝에 붙이는 助詞라고만 하였을 뿐 별로 說明이 없다.¹³⁾

또 ‘待是古如’를 ‘기드리고다’로 읽고 있는데,¹⁴⁾ 이것은 方言의 ‘기드리쿠다. 지드리쿠다’와 같은 意義의 語形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 위의 解讀 ‘알고다’도 方言의 ‘알쿠다’와 같은 意義의 語形이라 해 볼 수

注 11 : L. Bloomfield; *Language*, New York, 1933. p. 166

12 : 梁柱東; *Ibid.*, pp. 270—273

13 : 小倉進平; 「鄉歌及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1929. p. 166

14 : 梁柱東; *Ibid.*, p. 560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고-’의 /-ㄱ-/이 後世에 내려 오면서 氣音化하여 /-ㅋ-/으로 되었고, 또 母音 /-우-/로 되었을 뿐이다. 이 梁柱東博士의 說明, 즉, ‘知古如’의 ‘-고다’를 將然의 敬語體라 한 것은 바로 濟州島 方言에서의 ‘-쿠다’의 意義 그대로이다.

앞의 3.2.1~3.2.4에서 ‘-쿠다’의 ‘-쿠-’를 分析하여 ‘ㅋ+우’로 하였고, /-ㅋ-/은 意圖・推測・可能을 意味하는 形態라 하였는데, 이 意圖・推測・可能이 將然의 뜻을 지니는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리고 {-우-}는 「對者尊待」를 表示하는 形態素(敬語體)라는 것도 이미 밝혔다.

이와 같이 新羅時代의 言語 表記인 ‘知古如’ ‘待是古如’와 方言의 ‘알쿠다’, ‘지드리쿠다’와가 서로 그 義意가 같고 또 그 語形構成이 同一하다는 것은 特記할 事實이다. 言語地理學의 理論에서 볼 때 絶海孤島나 山間僻地에 가장 오랜 層位의 言語 形態가 殘在하는 것이므로 이 新羅時代의 言語 表記인 ‘知古如’, ‘待是古如’와 方言의 語形과가 一致하다는 事實은 首肯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方言의 語形과 新羅時代의 言語 表記의 語形과가 一致하다는 事實을 認定하게 된다면 方言에서 이 「對者尊待」 形態素 {-우-}는 8, 9세기의 文獻語의 語尾에 該當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어찌까지나 推測에 不過한 것으로 다만 여기서는 提示에 그쳐 두기로 한다.

그리고, 語尾 ‘-우다’는 咸鏡道 等地에서도 使用해진다고 한다.¹⁵⁾ 만일 이 咸鏡道에서의 ‘-우다’도 新羅時代의 言語 形態의 表記인 ‘-고다’ 形의 殘影이라 할 수 있다면 濟州島와 咸鏡道, 즉, 韓國의 南北 兩端에 新羅時代의 言語 形態를 保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6.3 다음은 {-다} 形態素를 더듬어 보려 한다. {-다}은 中世語

注 15: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下卷」, 東京, 岩波書店, 1944. p. 332

16: 許雄; *Ibid.*, pp. 28-47, pp. 62-70

17: 李崇寧; “謙讓法研究”, 「亞細亞研究 Vol. 5. No. 2」, 1962

“敬語法研究”, 「震檀學會報第25・26・27合併號」, 震檀學會 pp. 311-366

安秉禧; “主體謙讓法의 ‘습’에 對하여” 「震檀學會報第22號」, 震檀學會, 1961, pp. 105-26

의 客體尊待法¹⁶⁾或은 主體謙讓法¹⁷⁾의 形態素 {-습-}의 後身이다. 이 客體尊待法의 形態이던 {-습-}이 17세기에 들어서자 相對者尊待의 形態素로 變하였던 것이다.¹⁸⁾ 17세기의 文獻 중 尊待法이 가장 많이 反映되어 있는 「捷解新語」에서 몇몇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샤 ㅎ읍소	〈捷解一·6〉
다시 보옵새	〈捷解一·23〉
몬져 드러주옵소	〈捷解一·24〉
자네 마땅홀대로 ㅎ읍소	〈捷解六·24〉

들과 같이 ‘ㅎ읍소’ 語形이 매우 빈번히 나타난다. 이 ‘ㅎ읍소’ 語形이 縮約되면 ‘홉소·홉서’ 語形들이 되겠는데, 濟州島方言의 ‘홉서’ 語形도 ‘ㅎ읍서’ 語形에서 縮約되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더더구나 方言에서는 語形의 短縮 現象이 심하므로 이럴 可能性이 더욱 濃厚하다. 여하튼 方言에서 「對者尊待」를 表示하는 形態 /-읍-/이 쓰이지 않고 오직 /-ㅅ-/만이 語幹에 直結되어서 쓰인다 함은 이것이 17세기 形態라기보다도 더 내려 온 時期의 形態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ㅅ-} 形態素를 놓고 그 國語史的 位置를 말한다면 ‘ㅎ읍소’ 語形의 例를 많이 보여 주는 捷解新語 時代에서 더 내려 온 18세기라 하는 편이 옳지 않을까 한다.

3.6.4 다음에 [-마씀]은 앞의 3.5.5에서 말한 바와 같이 濟州島方言에서 獨特게 形成되어진 「對者尊待」의 形態素이다. 이것이 文獻上에서 나타나지 않음은 두말 할 것도 없다.

3.6.5 이상과 같이 하여 方言의 定動詞語尾로 表示되는 「對者尊待」의 形態素를 놓고 오늘날 方言의 國語史的 位置를 推定하려고 할 때 3.6.2와 3.6.3에서 밝힌 바와 같이 8,9세기에서부터 18세기에 이르는 約 千年 間의 間隔差를 둔 形態들이 共時的으로 오늘날 方言에서 使用되고 있다 할 것이다.

注 18: 許雄; *Ibid.*, pp. 64—75

4. 叙 法(Ⅰ)

4. 1 序 言

4.1.1. 言語는 話者와 聽者 사이에 서로 그 意思를 傳達하고 理解하는 데 있다고 하게 된다. 그 意思를 傳達함에 있어서는 자연히 거기에는 直接的으로나 間接적으로 發話(文章)의 內容에 對하여 話者の 心的態度가 敘述語의 語形變化上에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發話의 內容에 대하여 話者の 心的態度가 表現되어지는 것을 文法에서는 叙法(mood)이라 한다.¹⁾ 國語에서는 이런 叙法이 語末語尾로써 表現되어짐은 勿論이고, 先語末語尾로써 表現되어지기도 한다. 先語末語尾로 表現되어지는 叙法은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意圖法 등으로 나타나고, 語末語尾로 表現되어지는 叙法은 平叙法, 疑問法, 命令法, 請誘法, 感嘆法 등으로 나타난다. 이 두 系列의 叙法을 (Ⅰ), (Ⅱ)로 나누고, 먼저 先語末語尾로 表現되어지는 叙法에서부터 考察하여 나가기로 한다.

앞의 2. 3. 章에서와 마찬가지로 native speaker(原語民)들의 發話를 들면서 그 發話上에서 나타나는 定動詞의 先語末語尾로써 表示되는 叙法形態素들을 分析, 考察하여 나가기로 한다.

4. 2 直 說 法

4.2.1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들을 아주 빈번히 들을 수 있다.

(1) 이 애진 말 쏬나.

(이 애기는 말을 한다.)

(2) 이 강생인 아무거나 잘 먹나.

(이 강아지는 아무것이나 잘 먹는다.)

注 1 : O. Jespersen;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1924, p. 313

(3) 그 사람은 잘 웃나.

(그 사람은 잘 웃는다.)

이들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方言의 發話에서는 ‘-나’ 語尾가 語末에서 빈번히 쓰인다. 그런데 方言에서의 ‘-나’의 用法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나는 用言의 語幹이 子音으로 끝난 單語에만 接尾되어서 發話를 終結시키는 平叙法으로서의 活用이고, 다른 하나는 用言의 語幹이 母音으로 끝난 單語에겐 子音으로 끝난 單語에겐 두루 接尾되어서 發話를 終結시키는 疑問法語尾로서의 活用이다. 이 疑問法은 주로 同年輩 사이에서 쓰이는데, 이것은 아마 改新派의 물결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는 平叙法語尾의 形態만을 살피기로 한다.

平叙法語尾로 쓰인 ‘-나’가 單一形態素인지, 또는 複合形態素인지가 의문이다. 여기서 이 ‘-나’를 複合形態素로 分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本項에서 또 하나의 論題로 내세운 ‘-나다’ 語尾와 對比시켜 볼 때 더욱 이 ‘-나’를 두 形態素로 分析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한다. 그럼 먼저 ‘-나다’ 語尾의 例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4) 우리 성 날 서월 간나.

(우리 형 내일 서울에 간다.)

(5) 가의 저녁의 온나.

(그 아이 저녁에 온다.)

(6) 철순 학교에 멩긴다.

(철수는 학교에 다닌다.)

이들은 아주 빈번히 들을 수 있는 發話들이다. 이들 發話에서 語幹과 語末語尾 /-다 / 사이에는 /-ㄴ-/이 介在되어 있다. 이 /-ㄴ-/이 어떤 意義, 機能을 가진 形態素가 될 것인지가 疑問이다.

國語文法에서 時制體系를 文法範疇로 認定하는 見解에서는 ‘온다, 간다, 멩긴다’ 들에서의 /-ㄴ-/을 時制上에서 「現在形」의 形態素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國語文法에서 이런 /-ㄴ-/이나 ‘먹는다, 죽는다’ 따위

에서의 /-는-/을 時制「現在形」으로 認定할 수 없음은 위의 2章「動作相」序言에서 이미 論한 바이다.

國語(方言)의 活用語尾에서는 先語末語尾가 表示하는 文法範疇의 하나에 叙法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인데, 그 叙法 中에 話者가 「動作主의 動作·性質·狀態를 指定하여 直接 말하는 叙法」이 있다. 이 叙法을 筆者는 여기서 「直說法」이라 하여 둔다. 이제 發話의 例를 들면서 이 直說法의 意義를 吟味해 보기로 한다.

(7) 오늘밤 비 온다.

(오늘밤에 비가 온다.)

(8) 오늘밤 비 오카?

(오늘밤에 비가 올까?)

(9) 오늘밤 비 오키여.

(오늘밤에 비가 오겠다.)

이들 發話에 있어서 (7)의 ‘비온다’는 그 活用語尾가 ‘-는다’로 言述되어 있고, (8)의 ‘비 오카?’는 ‘-카’로 言述되어 있고, (9)의 ‘비 오키여’는 ‘-키여’로 言述되어 있다. (7)의 ‘비온다’는 話者가 보기에 는 오늘의 氣象狀態로 보아서 오늘밤 틀림없이 비가 오겠다고 判斷되어서 그 ‘비오겠다’는 점을「指示 認定하여」言述한 것이요, (8)의 ‘비 오카’는 話者가 보기에 오늘밤 비가 올 것인지 어떤지를 잘 判定을 내릴 수가 없어서 疑訝를 품는 態度의 言述이요, (9)의 ‘비오키여’는 話者가 보기에 오늘의 氣象狀態로 보아서 오늘밤 비가 올 것으로 짐작이 되어서 그렇게「推測하여」言述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는다’는 話者가 事態를 指示 認定하여 言述하는 것임에 反하여 ‘-키여’는 事態를 推測하여 言述하는 것이다. 그 事態는 時間上 現在·過去·未來 어느 時點에서의 일이든 無妨하다. 다만 話者가 그 事態를 어떤 心的態度로 把握하여 言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는다’를 話者가 어떤 事態, 즉, 動作主의 動作·性質·狀

態를 指定하여 直接 말하는 것이라 할 때, 이것은 위에서 規定한 바 그대로 「直說法」이 되는 것이다. 直說法이란 話者が 어떤 事態, 즉, 動作主의 動作·性質·狀態를 指定하여 直接 말하는 叙法이다. 그럼 ‘-ㄴ다’에서 直說法을 表示하는 形態素는 어느 것일까?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ㄴ다’의 /-ㄴ-/이다.

이 /-ㄴ-/이 바로 話者が 어떤 事態, 즉, 動作主의 動作·性質·狀態를 指定하여 直接 말하는 意義를 지닌 形態素인 것이다. 위에서 論하여 온 바 ‘온다, 간다, 땡긴다’ 들에서의 /-ㄴ-/을 直說法의 形態素로 規定하게 됨은 다음의 發話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認定할 수 있는 것이라겠다.

(10) 철수 학교에 땡기느냐?

(철수 학교에 다니느냐?)

(11) a. 예, 땡깁네다.

(예, 다닙니다.)

b. 오, 땡긴다.

(오, 다닌다.)

이 發話 (10)과 (11) a. b.는 第3人稱 動作主의 動作에 대한 問答이다. 그런데 發話 (10)에서 ‘땡기느냐’의 /-느-/를 直說法의 形態素의 基本形이라고 한다.²⁾ 同一한 事實 內容의 動作을 놓고 그 묻는 言述이 直說法으로 表現되었을 경우, 그에 대하여 對答하는 言述 또한 直說法으로 表現되어지는 것이 一般的인 경향이겠다. 發話 (11)a.의 ‘땡깁네다’의 /-네-/는 事實 直說法의 形態이다. (11)b.의 ‘땡긴다’ 語形은 그 語幹이 ‘땡기-’이요, 語末語尾는 /-다/ 뿐이다. 이 語幹과 語末語尾와의 사이에 介在되어 있는 /-ㄴ-/의 그 意義와 機能은 (11)a.의 /-네-/와 同一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본다면 /-ㄴ-/이 直說法의 形態임을 여기서 再認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간다, 온다, 땡긴다’ 들의 語幹과 語末語尾 사이에 介在되어 있

注 2: 高永根; Ibid., p. 24

는 形態 즉 先語末語尾 /-ㄴ-/을 直說法의 形態라고 規定하는 바이다.

이제 돌아 가서 ‘-나’ 語尾를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여기서 語幹과 /-다/ 語尾와의 사이에 /-ㄴ-/이 介在되는 말과 ‘-나’ 語尾의 말을 對比시켜 본다.

‘-ㄴ다’ 語尾	‘-나’ 語尾
본 _ㄴ 다(見)	잡 _ㄴ 다(執)
잠 _ㄴ 다(寢)	먹 _ㄴ 다(食)
준 _ㄴ 다(授)	돕 _ㄴ 다(助)
행 _ㄴ 다(行)	듣 _ㄴ 다(聞)
복 _ㄴ 다(棄)	물 _ㄴ 다(會)
드 _ㄴ 다(率)	밟 _ㄴ 다(踏)

들과 같이 많은 例들을 볼 수 있는데, 어느 例에서나 ‘-ㄴ다’ 語尾는 語幹이 母音으로 끝난 말에 連結되어 있고, ‘-나’ 語尾는 語幹이 子音으로 끝난 말에 連結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ㄴ다’의 語尾나 ‘-나’의 語尾나 實際 方言의 發話에서 同一한 意義, 機能을 지녀서 言述을 終結시킨다. 이와 같이 ‘-ㄴ다’와 ‘-나’가 同一한 意義, 機能을 지닌다 할 때 ‘-ㄴ다’의 /-ㄴ-/ (直說法의 形態)에 該當될 形態는 ‘-나’에 있어서 ‘-나’의 /-ㄴ-/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ㄴ다’의 /-ㄴ-/을 直說法의 形態라고 한다면 ‘-나’에 있어서의 /-ㄴ-/도 마찬가지로 直說法의 形態라고 하게 된다.

그럼 다음에 發話의 例를 들고 ‘-나’의 言述을 吟味해 보기로 한다.

- (12) 이 개는 아무거나 잘 먹_ㄴ다.
(이 개는 아무것이나 잘 먹는다.)
- (13) 그 학생 책 많이 읽_ㄴ다.
(그 학생은 책을 많이 읽는다.)
- (14) 이 애진 걸을 잘 걸_ㄴ다.
(이 애기는 걸음을 잘 걸는다.)

이들 發話에 있어서 話者는 動作主의 動作을 指示 認定하여 直接 言述하고 있는 것이다. (12)의 ‘이 개는 아무거나 잘 먹나.’는 動作主인 개가 아무것이나 잘 먹는다고 그 動作을 指示 認定하여 言述하고 있고, (13)의 ‘그 학생 책 많이 읽나.’도 그 학생의 책을 많이 읽는 動作을 指示 認定하여 言述하고 있고, (14)의 ‘이 애기 걸음 잘 걸나.’도 애기가 걸음을 잘 걸는다고 그 動作을 指示 認定하여 言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 語尾는 話者가 動作主의 動作에 대하여서 그것을 指示 認定하여 直接 言述하는 것을 表示하는 것이다. 그럼 ‘-나’ 語尾에서 話者가 動作主의 動作을 指示 認定하여 直接 言述하는 그 意義를 지닌 形態는 어느 것일까? 그것은 ‘-나’ 전체일 수는 없고 ‘-나’의 /-ㄴ-/이 話者가 動作主의 動作을 指示 認定하여 直接 言述하는 形態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나’의 /-ㄴ-/은 ‘-ㄴ다’의 /-ㄴ-/과 꼭 같은 意義, 機能을 지닌 것이라 하게 된다. 그리하여 ‘-나’의 /-ㄴ-/만을 直說法의 形態라고 規定하고 /-아/는 平叙法語尾라고 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하여 語尾 /-나/는 直說法의 形態 /-ㄴ-/과 平叙法語尾의 形態 /-아/와의 結合이라고 보는 바이다.

위에서 考察하여 온 바와 같이 우리는 方言 定動詞의 活用語尾 ‘-ㄴ다’와 ‘-나’를 分析하여 同一한 意義, 機能의 直說法 形態 /-ㄴ-/을 얻는 바이다.

4.2.2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 (15) 철순 이더서 밥 먹네.
(철수는 여기서 밥을 먹네.)
- (16) 그 사람이 몬저 오네.
(그 사람이 먼저 오네.)
- (17) 애긴 방의서 놀암네.
(애기는 방에서 놀고 있네.)
- (18) 넌 공부 하영 흥엿네.

(너는 공부를 많이 하였네.)

方言에서 이 ‘-네’ 語尾의 發話가 아주 빈번히 言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平交間 즉 同年輩들 사이에서는 주고 받아진다. 그런데 (15), (16)에서 ‘-네’가 語幹에 直接 連結되어 있고, (17), (18)에서는 語幹과 ‘-네’와의 사이에 先語末語尾 /-암-/ , /-엇-/이 介在되어 있다. 여기 語幹과 ‘-네’와의 사이에 介在되어 있는 先語末語尾 /-암-/ , /-엇-/들은 2章에서 規명한 바 「動作相」의 形態들이다. 그럼 위의 發話들에 있어서의 ‘-네’ 語尾는 어떤 意義, 機能을 지닌 形態인지 吟味하여 보기로 한다.

發話 (15)의 ‘철순 이더서 밥 먹네.’는 話者が 第3人稱者(철순)의 動作을 놓고서 그것을 ‘밥을 먹고 있다’고 指示 認定하여 直接 言述을 한 것이요, 發話 (16)에 있어서도 第3人稱者의 現實의인 그 動作을 놓고서 그것을 ‘오고 있다’고 指示 認定하여 直接 言述한 것이요, 發話 (17)에 있어서도 第3人稱者의 現實의인 動作을 놓고서 그것을 ‘놀고 있다’고 指示 認定하여 言述한 것이다. 發話 (18)의 ‘넌 공부 하영 하였네.’에 있어서도 話者は 相對者의 動作을 놓고서 그것을 ‘많이 하였다’고 指示 認定하여 言述한 것이다. 위의 네 發話는 어느 것이나 모두 話者が 第3人稱者 또는 第2人稱者(相對者)의 動作을 놓고 그것을 指示 認定하여 言述한 것이다. 이와 같이 話者が 動作主의 動作·性質·狀態를 指定하여 直接的으로 言述하는 것이 直說法인데, 이들 發話에 있어서는 ‘-네’의 /,-ㄴ-/이 直說法을 表示하는 形態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에/를 平叙法 語尾라 하게 되는데, 이 /-에/는 起源的으로 /-ㄴ-/의 /-ㄹ-/와 平叙法 語尾 /-이/와가 化合(amalgam)하여 된 것이라 본다.³⁾ 위와 같이 定動詞의 活用語尾 ‘-네’를 分析하여 直說法의 形態 /-ㄴ-/을 얻는다.

4.2.3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를 아주 빈번히 한다.

注 3 : E. A. Nida ; *Morphology*, Ann Arbor, 1963, p. 76

(19) 철^ㅅ순 공부 잘 ^ㅅ홉네까?

(철수는 공부를 잘 합니까?)

(20) 이 애^ㅅ긴 밥 잘 ^ㅅ먹읍네다.

(이 애기는 밥을 잘 먹읍니다.)

(21) 이 물^ㅅ은 잘 ^ㅅ돌읍네다.

(이 물은 잘 됩니다.)

이들 發話는 年少者가 年上者에게, 下位者가 上位者에게, 또는 話者가 相對者에게 尊待意向은 가질 때 그 相對者에게 對해서 言述하는 경우에 言述해진다. (19)에서는 語幹에 ‘-ㅅ네까’가 直接連結되어 있고, (20)과 (21)에서는 그 語幹이 子音으로 끝난 말이어서 거기에 媒介母音을 介在시키고서 ‘-ㅅ네다’가 連結되어 있다. 그런데 年少者가 年上者에게, 下位者가 上位者에게 言述하는데 있어서는 國語社會의 慣習, 또는 發話 場面的 狀況에 따라 尊待法을 쓰게 되는 것인데, 위의 發話들 ‘홉네까, 먹읍네다, 돌읍네다’ 들에서의 語幹에 直接 또는 媒介母音을 介在하고서 連結되어 있는 /-ㅅ-/이 바로 方言에서의 尊待를 表示하는 形態인 것이다.⁴⁾

이 /-ㅅ-/은 원래 「客體尊待」의 形態이던 ‘-습-’이 轉變해서 된 것인데, 國語文法史上에서는 17세기 이후에 相對者尊待의 形態로 轉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ㅅ-/이 오늘날 方言에서도 「對者尊待」形態로 쓰이고 있는 것임은 3章에서 이미 論한 바이다. 그리고 ‘-ㅅ네까’의 /-네-/는 元來 ‘-느이다’의 ‘-느이-’가 化合해서 된 것이다. 이 ‘-느이-’의 /-이-/ 또한 원래 相對尊待의 形態이었던 것이다.⁵⁾ 相對者를 尊待하는 形態로 쓰이던 /-이-/가 先行語尾와 化合됨에 따라 그 機能을 喪失하여 버리고 그 形式도 ‘-닉-’에서 ‘-닉-’ 또는 ‘-네-’로 變해지면서 이제는 /-닉/, /-니-/ , /-네-/ 全體로써 어떤 叙法의 形態로 機能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注 4 : 許 雄; *Ibid.*, pp. 62—76

5 : 許 雄; *Ibid.*, pp. 70—76

그럼 다음으로 方言에서의 ‘-네까’의 /-네-/는 어떤 意義, 機能을 지닌 形態가 될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위에 例로 든 發話(19)의 ‘철순 공부 잘 하네까?’란 言述은 話者가 철순의 공부하는 行動을 指定하여 相對者에게 묻는 것이고, (20)의 ‘이 애진 밤 잘 먹읍네다.’도 애기의 밤을 먹는 行動을 ‘잘 먹읍니다’고 指示 認定하여 말한 것이고, (21)의 ‘이 뭉은 잘 돌읍네다.’도 말이 뛰는 行動을 ‘빠르게 잘 뛸니다’고 指示 認定하여서 말한 것이다. 어느 發話에서나 話者가 動作主의 動作을 指定하여 直接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直說法이 되는 것이다. 이들 發話에서 直說法의 機能을 지닌 形態가 ‘-네까’, ‘-네다’의 /-네-/인 것이다. 위와 같이 하여 方言 定動詞의 活用語尾 ‘-네까’, ‘-네다’를 分析할 때 直說法의 形態 /-네-/를 얻는 바이다.

그런데 方言에서 이 ‘-네다’ 語形이 年少層의 發話에 있어서는 ‘-네다’로 言述되어지는 傾向이 있다. 이런 傾向은 표준어의 影響에 의해지는 것이겠지만 앞으로 그 勢力을 더욱 번쳐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네다’의 /-네-/는 ‘-네다’의 /-네-/와 마찬가지로 直說法의 形態일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리하여 우리는 ‘-네다’를 分析할 적에 또한 直說法의 形態 /-네-/를 얻게 되는 바이다.

4.2.4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주로 壯年層의 對話에서 들을 수 있다.

(22) 철순 일 잘 하느니.

(철순은 일을 잘 하느니.)

(23) 이 강생인 아무거나 잘 먹느니.

(이 강아지는 아무것이나 잘 먹느니.)

(24) 이 애기 말 잘 존느냐?

(이 애기 말을 잘 하느냐?)

이들 發話에서 그 活用語尾는 ‘-느니’, ‘-느냐’로 끝나 있다. 이들

‘-느니’는 어떤 意義, 機能을 지닌 形態인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發話 (22)에서는 철수가 일을 잘 「한다」는 事實, 즉, 그 行動을 指示, 認定하여 말하는 것이고, (23)에서는 강아지가 아무것이나 잘 「먹는다」는 事實, 즉, 그 行動을 指示 認定하여 말하는 것이고, (24)에서도 애기가 말을 잘 「하는가 어떤가」의 事實, 즉, 그 行動을 指示하여 質問하는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이 그 行動, 動作을 指定하여 言述하는 것을 表示하는 形態는 어느 것일까?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느니’의 /-느-/이다.

이 ‘-느니’의 /-느-/가 直說法의 形態가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하여 方言 定動詞의 活用語尾 ‘-느니’를 分析하여서 直說法의 形態 /-느-/를 얻는 바이다.

4.2.5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語尾가 빈번히 言述해진다.

(25) 철순 학교에 가네.

(철수는 학교에 갔네.)

(26) 난 밥 먹었시네.

(나는 밥을 먹고 있네.)

(27) 간밤의 비 하영 오라시네.

(간밤에 비가 많이 와 있네.)

이들 發話에 있어서는 語尾가 ‘-네’로 끝나 있다. 그런데 이 語尾 ‘-네’는 語幹에 直接 連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先語末語尾 /-아-/ , /-었시-/ , /-아시-/에 連結되어 있다. 이 /-아-~-어-/에 대해서는 다음에 論하려 하거니와, /-았시-~-었시-/ , /-아시-~-어시-/에 대해서는 이미 2章에서 詳論한 바이므로 여기서는 語尾 ‘-네’에 대해서만 規明하기로 한다. 發話 (25)의 ‘철순 학교에 가네.’는 話者가 철수의 학교에 간 事實을 指示 認定하여 相對者에게 確認시켜 주고 있고, (26)의 ‘난 밥 먹었시네.’는 話者 自身이 밥을 먹고 있는 動作을 相對者에게 指示하여 確認시키는 發話이고, (27)의 ‘간밤의 비 하영 오

라시네.’는 話者가 相對者에게 비가 많이 온 事態를 指示하여 認識시키는 發話이다. 이와 같이 그 主體(動作主)의 動作, 狀態를 指示 認定하여 直接 말하는 意義를 지닌 語尾가 바로 ‘-네’이다. 그런데 이 ‘-네’는 主體의 動作을 指示 認定하여 直接 말하는 意義의 形態와 發話を 終結시키는 形態와가 化合된 것이라 본다. 그리하여 여기서 暫定的으로 ‘-네’를 /-니-/와 /-에-/로 分析하여 둔다.

4.2.6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 (28) 그 사람 오늘 오는가?
(그 사람이 오늘 오는가?)
- (29) 이것도 사람 먹는가?
(이것도 사람이 먹는가?)
- (30) 철수 공부 잘 하는가?
(철수는 공부를 잘하는가?)

이들 發話에서 ‘오는가, 먹는가, 하는가’ 들은 모두 그 語尾가 ‘-는가’로 끝나 있다. 이 ‘-는가’의 /-가/는 疑問法語尾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머지인 /-는-/이 어떤 意義, 機能을 지닌 語尾인지가 疑問이다. (28) ‘그 사람 오늘 오는가?’는 話者가 第3人稱者인 그 사람이 오늘 올 것인가 어떤가를 指定하여 相對者에게 묻는 것이고, (29)의 ‘이것도 사람 먹는가?’도 話者는 그 가까이 있는 물건을 가리켜서 이것을 사람이 먹는 것인가 어떤가를 相對者에게 指定하여 묻는 것이고, (30) ‘철수 공부 잘 하는가?’도 話者는 철수의 공부하는 行動을 指定하여 잘 하는가 어떤가를 相對者에게 묻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發話에서나 話者가 第3人稱者의 行動, 動作을 指定하여 相對者에게 質問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發話들에서 話者가 動作主의 行動, 動作은 指定하여 直接 言述하는 意義를 나타내는 語尾가 바로 /-는-/이다. 위와 같이 方言 定動詞의 語尾 ‘-는가’를 分析하여 直說法的 形態 /-는-/과 疑問法語尾 /-가-/를 얻는 바이다. 이상에서 論하여 온 바 方言에서

의 直說法의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diagup - 2 - 8 - \underline{2} - 8 - 4 \mid - 8 - 4 \mid - 8 - \frac{1}{2} - \diagdown$

들과 같다, 이들은 形態論的으로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基本形態를 {-느-}로 삼는다.

4.3 回想法

4.3.1 회想法이란 話者가「話者自身이나 相對者의 過去 經驗한 動作・性質・狀態를 回想하여 또는 回想시켜 말하는 叙法」을 말한다. 直說法이 話者 自身이나 또는 相對者의 經驗有無에 拘碍됨이 없이 動作者의 動作・性質・狀態를 指定하여 直接 말하는 叙法임에 반하여 回想法은 話者가 過去의 經驗을 回想하여 또는 相對者에게 過去의 經驗을 回想시켜 말하는 叙法인 것이다.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를 자주 들을 수 있다.

(31) 철순 어디 나갔더냐?

(철수는 어디 나갔더냐?)

(32) 는 그때 말 잘 존더라

(너는 그 때 말을 잘 하더라)

(33) 간 보난 일 다 흥엿더라.

(가서 보니깐 일을 다 했더라)

이들 發話에서 (32)의 ‘-더라’ 語尾는 語幹에 直接 連結되어 있고, (31)의 ‘-더냐’와 (33)의 ‘-더라’ 語尾는 先語末語尾에 /-앗-~-엇-/에 連結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發話나 다 話者의 過去의 經驗을 回想하여 言述하고 있다. (31)은 話者가 相對者 보고서 過去에 철수를 찾아갔을 때 철수가 어디 나가 버렸던가 어떤가? 그 經驗한 바를 回想시켜 묻는 것이다. (32)에 있어서도 話者는 相對者가 過去 어느 때에 있어서 말을 잘 하는 것을 보았었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言述하는 것이다.

(33)에 있어서도 第2人稱者 혹은 第3人稱者가 일을 다한 것을 話者는 過去에 가서 보았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言述하는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이 話者가 過去에 經驗한 것을 回想하여 또는 相對者의 過去 經驗한 것을 回想시켜 言述하는 것을 表示하는 形態는 어느 것일까? 그것은 語幹 또는 先語末語尾와 語末語尾 사이에 介在해 있는 /-더-/이다. 위와 같이 方言 定動詞의 活用語尾 ‘-더라’를 分析하여 回想法의 形態 /-더-/를 얻는 바이다.

4.3.2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 (34) 그 사람 일 잘 하^ㄷ데.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데.)
- (35) 그 사람 일 잘 하^엿데.
(그 사람이 일을 잘 하엿데.)
- (36) 철수 일찍 나가^ㄷ데.
(철수는 일찍 나가데.)
- (37) 철수 벌써 나^갓데.
(철수는 벌써 나갓데.)

이 ‘-데’ 語尾의 發話는 주로 同年輩들 사이에서 쓰이는데 아마 이 ‘-데’ 語尾는 改新派의 物결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위의 發話들에서 ‘-데’는 語幹에 直接 連結되어 있기도 하고 先語末語尾에 連結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語幹에 直接 連結되어 있는 ‘-데’이건, 先語末語尾에 連結되어 있는 ‘-데’이건, 마찬가지로의 意義, 機能을 지닌 形態이다. (34)의 ‘하^ㄷ데’는 話者가 過去에 第3人稱者인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는 것을 본 바가 있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言述하는 것이고, (35)의 ‘하^엿데’도 話者가 過去에 第3人稱者인 그 사람이 일을 잘 한 것 (일을 잘 한 그 行動의 完了)을 보았었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言述하는 것이다. (36)의 ‘나가^ㄷ데’도 話者는 철수가 일찌기 어데 나가는 것을 보았었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言述하는 것이고, (37)의 ‘나^갓데’도 話者가

過去에 철수를 찾아가 보았더니 벌써 나가 버렸었는데 그것을 회상하여 言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語幹에 直結되어 있는 ‘-데’ 이전, 先語末語尾에 連結되어 있는 ‘-데’ 이전, 모두 話者が 過去의 經驗을 회상하여 言述하는 意義를 表示하고 있음에는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들 發話에 있어서 話者が 過去에 經驗한 것을 회상하여 또는 相對者에게 그 經驗을 회상시켜 言述하는 것을 表示하는 形態는 ‘-데’의 /-ㄷ-/이다. 위와 같이 方言 定動詞語尾 ‘-데’를 分析하여 回想法의 形態 /-ㄷ-/을 얻는 바이다.

4.3.3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言衆들 사이에서 아주 빈번히 주고 받아진다.

- (38) 철순 학교에 갑데가?
(철수는 학교에 갑디가?)
- (39) 아방 일찍 돌아옴데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옴디가?)
- (40) 아진 밥 잘 먹으데다.
(아기는 밥을 잘 먹으디다.)
- (41) 그 학생 글 잘 익으데다.
(그 학생은 글을 잘 읽으디다.)

이들 發話는 모두 話者が 過去에 經驗한 第3人稱者의 行動에 대하여서 그것을 회상하여, 또는 相對者에게 그 經驗한 바를 회상시켜 言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發話는 모두 年少者が 年長者에게, 下位者が 上位者에게, 또는 話者が 相對者에게 尊待意向을 가질 때 그 相對者에게, 言述하여지는 것임은 直說法의 ‘-디까’, ‘-디데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디데가’, ‘-디데다’에서의 /-디-/은 尊待表示의 形態이고, ‘-가’는 疑問法語尾, ‘-다’는 平叙法語尾이다. 그 나머진 /-데-/를 過去에 經驗한 行勳을 회상하여 또는 회상시켜 言述하는 것을 表示하는 形態라 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이 /-데-/가 回想法의

形態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되다’ 語尾는 年少層의 發話에서 ‘되다’로 表現되어지기도 한다. 이 ‘-되다’의 /-디-/는 ‘-되다’의 /-데-/와 마찬가지로 回想法의 形態이다. 위와 같이 方言 發話에서의 語尾 ‘-되다’와 ‘-되다’를 分析하여 回想法의 形態로 各各 /-데-/와 /-디-/를 얻는 바이다.

4.3.4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아주 빈번히 주고 받아진다.

(42) 철수도 그거 보아라.

(철수도 그것을 보더라.)

(43) 그 사람 일 잘 하여라.

(그 사람 일을 잘 하더라.)

(44) 그 사람도 하영 먹어나?

(그 사람도 많이 먹어나?)

이들 發話에 있어서 ‘보아라, 하여라, 먹어나’들은 모두 그 語尾가 ‘-아라~-어라’ 또는 ‘-아냐~-어나’로 되어 있다. 이 ‘-아라~-어라’, ‘-아냐~-어나’가 어떤 意義, 機能을 지닌 語尾인가가 問題이다.

오늘날 표준어에서는 ‘-아라~-어라’들을 命令法語尾라고 한다. 그러나 方言의 語尾 構成에 있어서는 命令法 語尾가 아니다.

이들 語尾가 言述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42)의 發話는 話者가 過去에 ‘철수도 그것을 보는 것’을 目見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言述한 것이다. (43)의 發話는 역시 話者가 過去에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는 것’을 보았던 經驗이 있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言述한 것이다. 또 (44)의 發話는 相對者에게 過去 經驗한 바를 回想시켜 質問하는 疑問法語尾로 끝나 있다. 어느 發話에 있어서나 話者는 過去의 經驗한 바를 回想하여 또는 相對者에게 回想시켜 言述을 하는 것이다. 이 過去의 經驗을 回想하여서 言述하는 叙法을 回想法이라 한다 함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이다. 따라서 本項의 ‘-아라~-어라’ ‘-아냐~-어나’들을 回想法의 言述이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語尾 ‘-아라~-어라’, ‘-아

나~-어나' 들에서 回想法을 表示해 주는 形態는 어느 것일까? 이 '보아라, 햏여라, 먹어나' 들의 語形을 표준어로 '보더라, 햏더라, 먹더라' 로 밖에 더 옮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라~-어라', '-아나~-어나' 들을 '-더라', '-더나' 로 옮길 때 이-/-아-~-어-/-에 對當되는 것은 -/-더-/-이다. 이 -/-더-/-는 표준어의 叙法에서 回想法의 形態라 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方言에서의 -/-아-~-어-/-를 回想法의 形態라 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오늘날 方言에서의 語尾 '-아라~-어라', '-아나~-어나' 들을 考察할 때 그것은 命令法의 先語末語尾 -/-아-~-어-/-가 아니라 回想法의 形態 -/-아-~-어-/-로 分析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아-~-어-/-를 時相의 「完了相」이라고 보는 見解가 있으나,⁶⁾ 筆者는 단순히 回想法의 形態로 보는 바이다.

4.3.5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자주 주고 받아진다.

- (45) 그 사람 밥 햏영 먹언가?
(그 사람 밥을 많이 먹던가?)
- (46) 그 학생 글 잘 익언게.
(그 학생이 글을 잘 읽던데.)
- (47) 천순 잘 놀안게.
(천수는 잘 놀던데.)

이들 發話에 있어서는 그 語尾가 '-안가~-언가', '-안게~-언게' 로 끝나 있다. 여기서 -/-가/, -/-게/들은 물론 語末語尾이겠고 先語末語尾인 -/-안-~-언-/-이 問題이다. 이들 發話에서 -/-안-~-언-/-의 用法을 吟味해 보기로 한다. (45)의 '그 사람 밥 햏영 먹언가?'는 話者가 相對者의 過去 經驗, 즉, 第3人稱者인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을 相對者가 본 經驗이 있는데, 그것을 回想시켜 質問하는 것이고, (46)의 '그 학생 글 익언게.'도 話者가 過去에 그 학생이 글을 읽는 것을 본 經

注 6: 李承旭; *Ibid.*, p. 207

驗이 있는데 그것을 회상하여 言述한 것이고, (47)의 ‘철수 잘 놀안게.’도 話者가 철수의 잘 노는 行動을 過去에 본 經驗이 있어서 그것을 회상하여 言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언-/으로 話者 自身の 過去 經驗을 회상하여 또는 相對者에게 그 經驗한 바를 회상시켜 言述하는 意義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서 /-안-~-언-/이 회想法의 形態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하여 方言에서의 語尾 ‘-안가~-언가’, ‘-안게~-언게’를 分析할 때 회想法의 形態 /-안-~-언-/을 얻는 바이다.

4.3.6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48) 철수 인척 오라냐?

(철수 일찍 오더냐?)

(49) 그 사람 일 잘 하크라라.

(그 사람은 일을 잘하겠더라.)

(50) 그 학생 공부 잘 하크라고나.

(그 학생은 공부를 잘 하겠더구나.)

이들 發話에 있어서는 그 語尾가 ‘-라냐’, ‘-라라’, ‘-라고나’로 言述되어 있다. 이 ‘-라냐’, ‘-라라’, ‘-라고나’ 語尾들은 ‘오다’(來)의 ‘오-’ 語幹과 推測法の 形態, /-크-/에만 接尾되어지는 듯하다. 이와 같이 그 分布는 매우 限定되어 있지만, 이들 發話는 모두 話者의 過去의 經驗한 바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相對者의 過去의 經驗을 質問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48)의 ‘철수 인척 오라냐?’는 話者가 相對者에게 過去 철수가 오는 것을 본 그 經驗을 회상시켜 質問하고 있는 것이고, (49)의 ‘그 사람 일 잘 하크라라’도 話者가 過去에 그 사람의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을 잘 할 것 같이 推測되었는데 그것을 회상하여 言述하는 것이다. (50)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語尾 ‘-라냐’, ‘-라라’의 /-라-/는 話者의 過去 經驗한 것을 회상하여 또는 相對者의 經驗을 회상시켜 言述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회想法의 形態로 規定하

는 바이다.

이상에서 論하여 온 바 方言에서의 回想法의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더-으-디-으(-데-으-디-)으(-아-~-어-)으(-안-~-언-)으-라-/

와 같다. 이들은 形態論적으로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基本形態를 {-더-}로 삼는다.

4.4 推 測 法

4.4.1 推測法이란 話者가 「動作主의 動作, 性質狀態를 推測하여 말하는 叙法」을 말한다. 直說法이 動作主의 動作·性質·狀態를 指定하여 直接 말하는 것이지만 이 推測法은 動作者의 動作·性質·狀態를 「推測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 推測法에서는 動作主의 動作·性質·狀態를 단순히 推測하여서 말하는 그런 叙法에 限하지 않고 動作主의 動作의 「可能」을 意味하는 것들도 여기서 함께 다뤄 나가기로 한다.

方言의 言衆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を 아주 빈번히 주고 받는다.

(51) 오늘밤 비 오_키여.

(오늘밤에 비가 오겠다.)

(52) 철순 공부 잘 하_키여.

(철수는 공부를 잘 하겠다.)

(53) 올훤 곡식 잘 되_키여.

(올해에는 곡식이 잘 되겠다.)

이들 發話は 그 語尾가 ‘-키여’로 끝나 있다. 이 ‘-키여’가 어떤 意義·機能을 지닌 것인지, 다음에 이를 分析해 보기로 한다. 方言에서 體言이 叙述語일 때 ‘났이여’, ‘집이여’와 같이 言述되는데 이 ‘났이여’의

／-이-／를 叙述格語尾라 한다. 그리고 ／-여／는 肯定的 斷定을 表示하는 平叙法語尾이다.

이 叙述格語尾의 形態에 비추어 볼 때 위의 發話들에 나타난 ‘-키여’도 ‘-ㄱ+이여’로 分析이 可能的 것이 아닌지, 이렇게 分析이 되면 ／-ㄱ-／을 하나의 獨立된 形態라고 하게 된다.

그럼 ／-ㄱ-／이 어떤 意義, 機能을 지닌 것인지, (51)의 ‘오늘밤 비 오키여.’란 發話는 話者가 氣象을 보전대 아무래도 오늘밤에는 비가 올 것 같이 推測이 되어서 ‘비가 오겠다’고 言述을 한 것이다. (52)의 ‘ㅎ키여’ (53)의 ‘되키여’들 모두 話者가 推測을 하고서 言述한 것들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ㄱ-／을 話者의 推測을 表示하는, 즉 推測法의 形態라고 하게 된다.

方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發話도 아주 빈번히 주고 받아진다.

(54) 그전 나도 ㅎ키여.

(그것은 나도 하겠다.)

(55) 고기 ㅎ 굳은 나도 먹키여.

(고기 한 근은 나도 먹겠다.)

(56) 이 낭엔 나도 오르키여.

(이 나무에는 나도 오르겠다.)

이들 發話에서 語尾는 ‘-키여’로 끝나 있는데, 이들 ‘-키여’는 (51)~(53)의 ‘-키여’와는 그 意義를 달리하는 것이다. 즉, 이 (54)~(56)의 ‘-키여’는 「可能」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54)의 ‘그전 나도 ㅎ키여.’는 ‘그것은 나도 할 수 있다.’의 意味이고, (55)의 ‘고기 ㅎ 굳은 나도 먹키여.’는 ‘고기 한 근쯤은 나도 먹을 수 있다.’의 意味이고, (56)의 ‘이 낭엔 나도 오르키여’는 ‘이 나무에는 나도 오를 수 있다.’의 意味이다. 물론 앞에 든 (53)의 ‘울헐 꼭석 잘 되키여.’의 ‘-키여’도 可能을 意味할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推測的인 思考가 前提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

이 하여 (54)~(56)에서의 ‘-키여’의 /-ㄱ-/을 可能을 意味하는, 즉, 推測法의 形態라 하게 된다.

4.4.2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아주 빈번히 주고 받아진다.

(57) 오늘밤 비 오^ㄴ크^ㄴ라.

(오늘밤 비가 오겠^ㄴ다.)

(58) 는 아^ㄴ판 못 가^ㄴ크^ㄴ나?

(너는 아파서 못 가겠^ㄴ나?)

(59) 이 낭^ㄴ에 올랐^ㄴ당 털^ㄴ어지^ㄴ카?

(이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질^ㄴ까?)

이들 發話에서 (57)은 話者의 推測을 言述한 것이고, (59)도 推測을 言述한 것이다. (58)은 可能 與否를 質問한 것이다. 이 推測과 可能을 意味하는 形態는 ‘-크라’, ‘-카’의 /-ㄱ-/이다. 이것은 4.4.1에서 規명한 바 ‘-키여’의 /-ㄱ-/과 마찬가지로의 形態이다. 그리고, ‘-크라’, ‘-크나’의 ‘-으-’는 媒介母音이요, /-라/는 平叙法語尾이고, /-나/는 疑問法語尾이다.

4.4.3 方言에서는 言衆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發話を 아주 빈번히 주고 받는다.

(60) 그^ㄴ진 나^ㄴ도 하^ㄴ크^ㄴ다.

(그것은 저도 하겠^ㄴ습니다.)

(61) 오늘밤 비 오^ㄴ크^ㄴ가?

(오늘밤에 비가 오겠^ㄴ습니까?)

이들 發話에서의 (60)의 ‘-크다’는 可能을 意味하고 있고, (61)의 ‘-크가’는 推測을 意味하고 있다. 이들에서 推測法의 形態는 ‘-크다’, ‘-크가’의 /-ㄱ-/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크다’, ‘-크가’의 /-우-/는 이미 3章에서 規명한 바 「對者尊待」의 形態인 것이다.

4.4.4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를 들을 수 있다.

(62) 너의 돈당 부더지려.
(너무 뛰어가다가 엎드려질라.)

(63) 낭에 올랐당 떨어지려.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질라.)

이들은 모두 어른이 애들에게 推測, 警戒하여 말하는 發話들이다. (62)의 ‘너의 돈당 부더지려.’는 애들이 너무 빨리 뛰어 가다가 엎드려 지지나 앓을까 推測, 念慮하여서 警戒하여 말해 주는 것이고, (63)의 ‘낭에 올랐당 떨어지려.’도 애가 높은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지지나 앓을까 念慮되어서 警戒하여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럼 ‘떨어지려’, ‘부더지려’에서 推測法을 나타내는 形態는 어느 것일까? 그것은 ‘-려’의 /-리-/일 것이다. 다시 말하여 ‘-려’는 推測法の /-리-/와 平叙法語尾 /-어/로 分析되는 것이다.

4.4.5 方言 言衆들의 對話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를 들을 수 있다.

(64) 철수 보민 오죽 화내랴.
(철수가 보민은 오죽 화내랴.)

(65) 그 사람 오죽 일 잘 하랴.
(그 사람 오죽 일을 잘 하랴.)

이들 發話 (64), (65)는 모두 第3人稱者의 行動·動作에 대한 話者의 推測을 言述한 것이다. 이 ‘화내랴, 하랴’의 ‘-랴’로써 表現되는 推測은 여기서 第3人稱者의 確實性 있는 動作에 대한 推測이다. 이 推測法을 表示하는 形態는 ‘화내랴, 하랴’에 있어서의 ‘-랴’의 /-리-/이다. 이들 發話에서 ‘화내랴, 하랴’들을 分析할 때 推測法の 形態 /-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4.4.6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66) 오늘밤 비 올겔.

(오늘밤에 비가 올겔.)

(67) 그 사람은 모리 떠날겔.

(그 사람은 모레 떠날겔.)

이들 發話 (66)과 (67)이 모두 話者의 推測을 言述한 것인데, 이들은 確實性이 있어 보이는 事態에 대한 推測이다. 그 推測法은 表示하는 形態는 ‘올겔’에 있어서 ‘올-’의 /-ㄱ-/과 ‘떠날겔’에 있어서 ‘떠날-’의 /-ㄱ-/이다. 이와 같이 ‘올겔’과 ‘떠날겔’을 分析할 때 推測法의 形態 /-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말하여 온 바 方言에서의 推測法의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ㄱ-ㄴ-리-ㄴ-ㄱ-/

과 같다. 이들은 形態論으로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基本形態를 {-ㄱ-}로 삼는다. 이 /-ㄱ-/이 方言의 尊卑法의 「하라體」, 「하여體」, 「흠서體」에 두루 나타나서 그 分布가 가장 넓으므로 이것으로 基本形態를 삼는 것이다.

4. 5 意 圖 法

4.5.1 意圖法이란 話者가 「話者自身の 意圖를 言述하거나 혹은 相對者의 意圖를 質問하는 叙法」을 말한다. 이 「意圖法」(意志法)의 形態들을 推測法에 넣어서 다루는 일이 있으나 어떤 客觀的인 事態에 대하여 推測하여 말하는 것과 話者가 自己自身の 意圖를 言述하거나 혹은 相對者의 意圖를 質問하거나 하는 것과는 그 意義, 內容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節을 달리하여 考察하려는 것이다.

4.5.2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빈번히 주고 받아진다.

(68) 난 집의 가^ㅅ키여.

(나는 집에 가겠다.)

(69) 이제 어디 가^ㅁ쿠가?

(이제 어디 가겠읍니까?)

(70) 난 공부 하^ㅁ얌시크메.

(나는 공부를 하고 있겠어.)

(71) 이디서 놀^ㅁ암시크라?

(여기서 놀고 있겠어?)

이들 發話에서 (68)과 (70)은 話者(動作主)의 意圖를 言述한 것이다. 또 (69)와 (71)은 相對者의 意圖를 質問하는 것이다. 이들을 各各 分析하여 보면 (68)의 語尾 ‘-키여’는 4.4.1에서 본 바와 같이 ‘-ㄱ+이여’로 分析되고, (69)의 ‘-쿠가’는 또한 ‘-ㄱ+우가’로 分析된다. 이 두 發話에서의 /-ㄱ-/이 話者 또는 相對者의 意圖를 表示하는 形態인 것이다. (70)과 (71)의 /-암시-~-엄시-/는 2.4에서 詳論한 바「未完了存續相」이고, ‘-크메’의 /-메-/는「하여體」平叙法語尾이며, ‘-크라’의 /-라-/는「하여體」疑問法(反問)으로 쓰인 語尾이다. 이 (70), (71)에서도 /-ㄱ-/은 話者 또는 相對者의 意圖를 表示하는 形態인 것이다. 이와 같이 (68)~(71)에서의 發話를 分析하여 話者 또는 相對者의 意圖를 表示하는 形態 /-ㄱ-/을 얻는 바이다.

4.5.3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아주 빈번히 주고 받아진다.

(72) 이래 도^ㅁ라, 내 하^ㅁ저.

(이리 주어라, 내가 하겠다.)

(73) 오늘 내 하^ㅁ주.

(오늘 내가 하지요.)

(74) 그전 내 하^ㅁ주.

(그것은 저가 합지요.)

이들 發話에서 語尾는 ‘-저’, ‘-주’로 되어 있다. 이 ‘-저’, ‘-주’는 오늘날 濟州島 方言에서만 言述하여지는 特異한 語尾가 아닌가 한다. 이것은 話者의 意圖, 意欲을 나타내는 語尾이다.

叙 法 (I)

(72)의 ‘내 하저’는 ‘내가 하겠다’로 話者의 강한 意圖, 意欲을 나타내고 있고, (73), (74)의 ‘내 하주, 내 흠주’도 역시 話者의 意圖, 意欲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저’ 語尾가 話者의 意圖, 意欲을 나타내는 예를 古文獻에서 알아 보기로 한다.

16세기 초의 文獻인 「老乞大上」에는 終結語尾의 ‘-저’가 60餘 군데에 서나 나타나는데, 그 ‘-저’ 語尾가 請誘法으로 쓰인 것이 大部分이지만 그 중에는 意圖法으로 쓰인 것도 있다.

안직 방의 안자시라 가저	〈老乞上・33〉
제 모습사장 먹게 하저	〈老乞上・38〉
이 가개아래 안자서 밥먹게 하저	〈老乞上・40〉
더 버들 주저	〈老乞上・42〉

이들은 分明 意圖法으로 쓰여진 例들이다. 그런데 이런 /-저/ 語尾가 17세기 後期 文獻인 「老乞大諺解」本에서는 全部 ‘-자’ 形으로 변해졌고 그 意義도 모두 請誘法으로 변해 버린 것 같다. 또 16세기 초의 文獻이라고 하는 「朴通事上」에도 ‘-저’ 終結語尾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는 意圖法이라 할 것이 몇 군데에 나타난다.

그러나 「朴通事諺解」本에서는 全部 ‘-자’ 形으로 변해졌고 그 意義도 請誘法으로 변해졌을 것이다. 이 事實, 즉, 16세기 초의 文獻인 「老乞大上」이나 「朴通事上」에서는 意圖法の 語尾라고 할 ‘-저’ 形들이 나타나는데 17세기 文獻인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에는 그 語形과 意義가 모두 請誘法으로 변해 버렸다는 事實은 매우 重要的 暗示를 던져주는 듯하다. 즉, 15, 6세기 이전 아니 高麗, 新羅時代에는 ‘-저’가 意圖法으로 많이 쓰여졌던 것인데, 17세기 이후에 이르러서는 그 語形도 ‘-자’로 統合되고 意義도 請誘法에 合一되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高麗歌謠에서도 ‘-저’ 形이 나타난다.

아으 어저 녹저 하논디	〈動 動〉
--------------	-------

니를 훈더 녀가져 願을 비옵노이다	〈動 動〉
處容아비를 어여녀가져	〈處容歌〉

들과 같다. 또 新羅의 鄉歌에서나 吏文에서는 이 ‘-저’音에 主로 ‘齊’字를 썼다.

九世盡良禮爲白齊	〈禮敬諸佛歌〉
他道不冬斜良只行齊	〈常隨佛學歌〉
議定後良中沙申聞爲上決乙望白齊	〈大明律〉

들과 같이 나타난다.

梁柱東博士는 高麗歌謠에 나타나는 ‘-저’를 ‘現行語請誘法「하자」의 原形이므로 主로 願望請誘法에 쓰여짐이 事實인데 대체로「欲」字의 義에 該當한다’고 하였고「齊」도 根本적으로는「欲」의 義를 가진 것이라 하였다.⁷⁾ 이 ‘欲’은 바로 意欲, 意圖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저’의 意義를 意欲, 意圖를 意味한다고 할 때 그것은 오늘날 方言에서의 ‘-저’의 意義와 同一하다고 하게 된다. 國語史上에서 말하자면는 新羅, 高麗時代로부터 15, 6세기까지는 ‘-저’語尾가 欲望, 請誘 두 가지 意義에 쓰여 오다가 17세기 이후에 이르러서는 請誘法으로 統合되어 버렸지만 唯獨 濟州島 方言에서는 請誘法의 /-자/와는 달리 아직도 意欲, 意圖의 意義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意圖法의 ‘-저’形이 方言에서도 점점 消滅되어 가는 狀況에 놓여 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저’가 意圖法語尾로 歷然히 쓰이고 있으므로 여기서 意圖法의 形態를 設定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發話 (72)~(74)에서는 그 語尾가 ‘-저’, ‘-주’로 나타나 있다. 意圖法의 形態는 이 ‘-저’, ‘-주’의 두 語尾에서 共通的인 /-스-/으로 삼고자 한다.⁸⁾ 그리하여 /-어/와 /-우/는 各各 平叙法의 「하라體」, 「하여體」의 語尾로 보고

注 7: 梁柱東; *Ibid.*, pp. 139-40

8; 이 ‘-저’, ‘-주’는 ‘-저’, ‘-주’로 實際 發音이 實現되는 경우도 많고, 또 ‘-주’는 ‘-취’로 實現되기도 하나, 오늘날 原語民의 發音意識上 ‘-저’와 ‘-저’를 잘 區分하지 못하므로 여기 ‘-저’, ‘-주’로 表記하였다. 만일 ‘-저’, ‘-주’로 表記된다면 意圖法의 形態素는 /-지-/로 分析하게 된다.

자 하는 바이다.

4.5.4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아주 빈번히 주고 받아진다.

(75) 느 이제 집의 갈다?

(너 이제 집에 가겠냐?)

(76) 는 뭐 먹을디?

(너는 뭇을 먹겠니?)

(77) 느도 집의 갈다?

(너도 집에 가겠냐?)

(78) 느 오늘 집의 갈타?

(너 오늘 집에 가겠냐?)

이들은 모두 相對者의 意圖를 묻는 發話들이다. 그런데 그 疑問法語尾가 /-다-/ , /-다-/이나 또는 /-디-/이나에 따라서 그 앞에 配列되어지는 語詞가 달라지고 있다. 즉, /-다-/ , /-다-/ 語尾는 그 앞에 疑問詞가 配列되진 안되진 文章으로서 成立됨에 支障이 없지만 /-디/ 앞에는 반드시 疑問詞가 配列되어야만 文章으로서 成立된다. 一般的으로 ‘-고’가 接尾되는 疑問文을 說明疑問이라 하는데.⁹⁾ 方言에서 ‘-디’가 接尾되는 疑問文도 說明疑問이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위의 發話들에서 相對者의 意圖를 表示하는 形態는 語幹에 接尾되어 있는 /-르-/이다. 여기 ‘갈다, 먹을디, 갈타’들을 分析하여 意圖法의 形態 /-르-/을 얻는 바이다.

4.5.5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빈번히 주고 받아진다.

(79) 너 오늘 학교에 갈라?

(너 오늘 학교에 가겠냐?)

(80) 너 오늘 어디 갈리?

(너 오늘 어디 가겠니?)

注 9: 李基文;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72, p. 169

(81) 너 오늘 공부 홀레?

(너 오늘 공부를 하겠나?)

이들은 相對者의 意圖를 묻는 發話들이다. 이들 發話에서 相對者의 意圖를 表示하는 形態는 語幹에 接尾되어 있는 /-ㄹ-/이고, /-라/, /-리/, /-레/ 들은 各各 疑問法語尾라 하게 된다.¹⁰⁾ 여기 ‘갈라’, ‘갈리’, ‘갈레’ 들을 分析하여 意圖法을 表示하는 形態 /-ㄹ-/을 얻는 바이다.

이상에서 말하여 온 바 方言에서의 意圖法の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ㄱ-ㄴ-스-ㄴ-ㄹ-/

들과 같다. 이들은 形態論의으로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基本形態를 {-스-}으로 삼는다. 이 {-스-}이 그 分布가 가장 넓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4.5.3에서 論한 바와 같이 이 {-스-}이 가장 特異하게 方言에서 意圖法の 形態素로 活用하고 있고, 또한 推測法の 形態素, {-ㄱ-}과 區分하는 立場에서 이 {-스-}으로 基本形態를 삼아 둔다.

4. 6 叙法(I) 形態의 特徵과 그 國語史的 位置

4.6.1 위의 4.2에서 4.5에 이르면서 先語末語尾로써 表示되는 叙法에 대하여 考察하여 왔다. 그 중에서 좀 特異한 形態들에 대해서만 여기 考察하고 그 國語史的 位置를 推察하여 보기로 한다.

直說法の ‘-나’는 方言에서만 쓰이는 特異한 形態가 아닌가 한다. ‘-나’가 疑問法語尾로서는 어느 地域 方言에서나 使用되는 것이겠지만 平叙法語尾로서 ‘-나’(먹나, 심나, 잡나 등)가 쓰이는 것은 方言에서의 特異한 現象이라겠다.

注 10: 이 ‘-ㄹ라’, ‘-ㄹ리’, ‘-ㄹ레’ 들의 ‘-ㄹㄹ-’을 意圖法 形態라 하고 ‘-아’, ‘-이’, ‘-에’들을 疑問法語尾들이라 할 수도 있을 듯하나 여기서 暫定的으로 意圖法の 形態를 -ㄹ-로 하고 ‘-라’, ‘-리’, ‘-레’를 疑問法語尾라 하여 둔다.

直說法の ‘-네다’의 /-네-/는 /-느-/와 /-이-/가 化合해서 形成된 것이라고 본다. 17세기 文獻인 「捷解新語」에 다음과 같은 語形들이 나타난다.

안갓습느이다	〈捷解三・18〉
아름다와ㅎ느이다	〈捷解四・4〉
감격ㅎ여ㅎ옵느	〈捷解一・22〉
다 祝願ㅎ옵느	〈捷解五・14〉
오로 미덥습느	〈捷解四・30〉

이 同一 文獻에 ‘-느이다’와 ‘-느’ 두 語尾가 나타나고 있다. ‘-느이다’와 ‘-느’가 同時に 쓰인 것으로 보아 ‘-느’가 아직 單母音化하지 않았던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느’ 二重 母音이 單母音化하여 오면서 그것은 그 形式도 /-느-/에서 /-네-/로 변해져서 쓰여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直說法の ‘-네’도 方言에서 獨특하게 形成되어진 形態가 아닌가 한다.

4.6.2 다음, 回想法에서 /-네다/의 /-네-/는 /-더-/에 /-이-/가 化合된 形態이다. 「老乞大上」과 「捷解新語」에는 다음과 같은 語形들이 나타난다.

우리 이 물돌히 물 아니 머것더니	〈老乞上・31〉
두툼 은에 혼근 양육이라 ㅎ더라	〈老乞上・9〉
복르미 사오남더니	〈捷解一・12〉
그지 업서 ㅎ옵네	〈捷解三・4〉

16세기 초의 文獻이라고 하는 「老乞大上」에서는 ‘-너라’, ‘-더니’ 語尾가 나타나는데 17세기 文獻인 「捷解新語」에서는 「-더니」와 「-네」가 나타나고 있다. 18세기 末의 文獻이라고 하는 「隣語大方」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요거논 족히 ㅎ올만 ㅎ옵더이다	〈隣語大一・10〉
不關호 거지라도 空失호면 안갓습네	〈隣語大五・19〉

이 「隣語大方」에 ‘-더이다’ 語尾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더이다’ 語尾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테-/ 形態는 /-더-/와 /-이-/의 化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直說法의 形態 /-네-/가 ‘-늑이다’의 /-늑-/와 /-이-/의 化合음과 一致하는 現象의 것이라겠다. 그런데 18세기 末의 文獻인 「隣語大方」에 ‘-더이다’와 ‘-테-’ 두 語尾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혹이면 18세기 末까지도 ‘-테-’가 單母音化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17세기 文獻인 「捷解新語」에도 ‘-테’ 語尾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隣語大方」에서의 ‘-더이다’ 語尾는 記錄의 保守性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18세기 末에는 ‘-테-’가 單母音化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¹¹⁾

4.6.1에서 例示한 바와 같이 「捷解新語」에서는 /-늑-/가 빈번히 나타나는데 이 /-늑-/도 18세기 末에 이르러서는 單母音化하였을 것으로 보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文獻語에서의 /-네-/， /-테-/의 單母音化를 規定하고, 다음에, 그러면 濟州島 方言에서의 /-테-/， /-네-/의 國語史上 位置는 어떠한가 하면, 그것은 19세기의 狀態를 維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 回想法의 ‘-아라~-어라’의 /-아~-어-/는 오늘날 표준어에서는 命令法의 先語末語尾로 되어 있다. 그러나 16세기 초의 文獻인 「老乞大上」과 「朴通事上」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집시리 다 흥야다	〈老乞上・59〉
우리 밥도 머거다	〈老乞上・62〉
고티기 므차다	〈朴通上・43〉
죽재 바른 아라 올히 널어다	〈朴通上・15〉

이들 例에서의 先語末語尾 /-아~-어-/는 命令法의 것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過去 또는 發話時의 直前に 經驗한 行動에 대하여 回想하여

注 11 : 李基文 ; *Ibid.*, 1972, p. 202

言述한 것들이다.

이것은 方言에서의 ‘-아라~-어라’의 /-아-~-어-/와 同一한 意義, 機能을 지닌 回想法의 形態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形態는 15, 6세기 文獻에도 나타난다.

모다 닐오되 舍利弗이 이거여다
당티 못하여라

〈釋詳六・31〉

〈老諺上・39〉

이들의 /-어-/도 回想法의 形態가 아닌가 한다. 이 ‘-아라~-어라’ 語形에 대해서는 文獻上的 考證이 더 必要한 것이지만 여기서 方言 /-아-~-어-/의 國語史的 位置를 말한다며는 16, 7세기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 方言에서 ‘오라나, ㅎ크라나’ 들에서의 先語末語尾 /-라-/도 特異한 것이라겠다. 方言에서 回想法의 形態 /-라-/가 그 分布上 廣範圍하게 쓰이는 것은 아니어서, 用言에서는 ‘오다’(來) 動詞과 推測法의 /-ㄱ-/에 連結되어 쓰이고, 또 ‘누게라니?’, ‘철수라라.’와 같이 叙述語에서 名詞・代名詞에 直結되어지기도 한다. 高麗歌謠에,

살어리 살어리 랐다

〈靑山別曲〉

가 있는데 이 ‘-랏다’를 感嘆條件法助詞, 또는 ‘-닷다~-랏다’의 ‘-다-~-라-’를 半過去(追叙)의 助動詞라 하는데¹²⁾ 이 半過去 即 追叙는 回想法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方言의 回想法 /-라-/는 이 「靑山別曲」의 ‘-랏다’의 /-라-/에서 連脈을 이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4.6.3 다음, 推測法에서 /-ㄱ-/으로 推測・可能을 表示하는 것은 特異한 語尾라 아니할 수 없다. /-리-/ 또는 /-ㄹ-/로써 推測法을 表示하는 것은 다른 地域의 方言에서도 있는 것이겠지만 /-ㄱ-/으로 推測法을 表示한다는 것은 方言의 特異한 語尾活用이라 아니할 수

注 12: 梁柱東;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1947, pp. 308—9

없는 것이다.

4.6.4 다음, 意圖法에서 /-ㄱ-/으로 意圖를 表示하는 것도 또한 方言의 特異한 現象이다. 그런데 이 意圖法에서 또 한 가지 特異한 現象으로는 /-스-/으로써 話者 또는 相對者(聽者)의 意圖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4.5.3에서 詳論한 바와 같이 方言 語尾와 同一한 形態의 ‘-저’가 8, 9세기의 文獻語인 新羅時代의 鄉歌에서부터 15, 6세기의 文獻에 이르면서 줄곧 나타나고 있다.

4.5.3에 든 例 外에 다시 여기 例를 들어 보면,

心未際叱盼逐內良齊	〈讀者婆郎歌〉
間王冬留讚伊白齊	〈稱讚如來歌〉
佛佛周物叱供爲白齊	〈廣修供養歌〉
未際永良造物捨齊	〈懺悔業障歌〉

들과 같이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意欲, 意圖를 表示한 것으로 解讀되고 있다. 이 意欲을 表示하는 形態 ‘-저’에 ‘欲’字를 쓴 例도 있다.

三鳥賜教職麻又欲	〈悼二將歌〉
----------	--------

이 ‘欲’字를 ‘ㅎ저’로 읽고 있다.¹³⁾

다음 15, 6세기의 文獻에서 보면,

오늘 朝集을 因ㅎ야 얼좁저 ㅎ고	〈月釋二・69〉
물 調習ㅎ논 일 보라 가져	〈朴通上・26〉
안직 니르디 마저	〈朴通上・26〉
은 가져 오라 보저	〈朴通上・32〉

들과 같이 빈번히 나타난다. 그런데 이 「朴通事上」이나 「老乞大上」에 나타나는 ‘-저’ 語形이 17세기의 「朴通事諺解」나 「老乞大諺解」에서는 ‘-쟈’로 變形되었고 그 意義도 請誘法으로 變해진 듯하다. 그리하여 18세기 이후의 文獻語에서는 ‘ㅎ고저’ 形에, 오늘날 표준어에서는 ‘하

注 13 : 梁柱東 ; *Ibid.*, 1947, p. 394

고자'形에 意圖法の 餘脈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런데 오늘날 方言에서는 意圖法은 '-저'로써 나타나고, 請誘法은 /-자/로써 나타난다. 意圖法和 請誘法の 두 形態素가 語形上으로나 意義上으로 別個로 각각 存在한다.

이상과 같이 國語史上에서 意欲, 意圖를 表示하는 形態 '-저'가 저 新羅時代로부터 16세기 경까지는 使用되어 오다가 17세기 이후에 이르면서 그 形態가 請誘法에 統合되어 버려서 意圖法の 形態로서는 오늘날 그 餘脈을 '하고자'의 /-고자/에 남기고 있는 것이지만, 方言에서는 아직도 意圖法語尾로서 '-저', '-주'가 發話上에서 빈번히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方言 意圖法 形態의 國語史的 位置를 말하자면, 그것은 高麗時代 즉 12, 3세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6.5 이상과 같이 方言의 定動詞의 先語末語尾로써 表示되는 叙法の 形態들에 대하여 그 特異한 것들을 考察하고 또 그 國語史的 位置를 推察하여 왔다.

意圖法을 表示하는 形態 /-스-/은 方言의 發話上에서 아직도 빈번히 使用되고 있고, 한편 意圖法の 形態가 文獻上에서는 8, 9세기의 新羅時代 鄉歌에서부터 16세기까지 줄곧 나타나고 있는데, 이 文獻語의 形態와 方言의 '-저'와를 對照하고서는 方言의 意圖法 形態의 國語史的 位置를 12, 3세기라고 推定하였다. 回想法의 /-아-~-어-/를 놓고서는 그 國語史的 位置를 16, 7세기로 推察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直說法の /-네-/와 回想法의 /-데-/를 놓고서는 그 國語史的 位置를 19세기로 보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이 先語末語尾로써 表示되는 叙法 形態들을 總括하여 그 國語史的 位置를 推定할 때, 12, 3세기에서 18, 9세기에 이르는 約 7, 8백년 間의 間隔差가 있는 形態들이 오늘날 方言에서 共時的으로 使用되고 있다 할 것이다.

5. 叙 法(Ⅱ)

5.1 序 言

5.1.1 앞의 4章에서는 先語末語尾로써 表現되어지는 叙法, 즉,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意圖法 등에 대하여 考察하여 왔다. 이제 本章에서는 語末語尾로써 表現되어지는 叙法들에 대하여 考察하여 나가기로 한다. 叙法을 發話(文章)의 內容에 대한 話者の 心的態度가 叙述語의 語形變化上에 드러나는 것이라 한다면, 그 話者の 心的態度가 두드러지게 表現되어지는 發話(文章)의 終末에서이므로 이 發話(文章)를 終結시키는 語末語尾로써 表現되는 叙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部分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發話의 終末에서야 話者の 心的態度는 가장 두드러지게 表現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發話(文章)의 終末에서의 叙法은 平叙法, 疑問法, 命令法 등으로 나타난다. 다음, 이들 각 叙法の 語末語尾들을 圖表에서 보이면서 分析, 考察하여 나가기로 한다.

5.2 平 叙 法

5.2.1 平叙法語尾

尊卑法 叙法	尊 體	卑 體	尊 體
直說法	-나, -나 -느니 -네	-네 • -(으)메 • -아 /-어 -나게	-네네다 • -네니다 -우게

回 想 法	-더라 -라라 -아라／-어라	-네 -란게 -안게／-언게 -아고／-어고 -안걸／-언걸	-네다・네다 -란게마씀 -안게마씀／-언게마씀
推 測 法	-키여 -려 ○ ○	-크라・-크메 ○ -랴 -르걸	-쿠다・쿠게 -리우다 ○ ○
意 圖 法	-키여 -저	-크라・-크메 -주	-쿠다・크라마씀 -비주

※表에서 ○은 이 자리에 들어올 語尾가 없음을 나타내고, 아무 表示도 없는 空欄은 위의 語尾로 活用하게 됨을 나타냄. 예컨대 ‘-느니’ 語尾에 있어서 「하어體」는 ‘아／-어’, 「홀서體」는 ‘-네다’로 活用됨을 나타냄.

5.2.1.1 平叙法에서 먼저 「하러體」의 形態들을 分析하여 보려 한다.

먼저, 直說法에서 ‘-나다’와 ‘-나’는 4.2.1에서 詳論한 바 실제 發話에서 ‘본다, 먹나’와 같이 音韻論的 制約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나다’의 /-ㄴ-/과 ‘-나’의 /-ㄴ-/을 마찬가지로의 直說法 形態로 分析하게 되고, 平叙法語尾로서 /-다/와 /-아/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 /-다/와 /-아/의 意義도 마찬가지로 肯定的 斷定을 나타낸다. ‘-느니’의 /-느-/가 直說法의 形態임은 回想法의 形態 ‘-더라, -더니’와 對照하여 볼 때 더욱 明確해지는 것이며, /-니/는 平叙法語尾로서 肯定的 確定을 나타낸다.

‘-네’는 ‘먹읍시네, 보아시네’와 같이 주로 動作相의 形態들을 前接 시키고서 使用되어지는데, 이를 /-니-/와 /-에/로 分析하는 바이다. 여기서 /-에/는 相對者로 하여금 肯定的 認定을 재촉하는 意義를 나타낸다.

다음, 回想法에서 ‘-더라’의 /-더-/는 4.3.1에서 分析한 바와 같이 回想法의 形態이고, /-라/는 平叙法語尾이다. ‘-라라’의 /-라-/는 그 分布가 극히 制約되어 있지만 方言의 語尾構成體에서 볼 때 /-라-/

는 回想法의 形態로 分析되는 것이다. ‘-아라~-어라’의 /-아--~-아-/는 매우 그 分布가 넓고, 4.3.4에서 詳論한 바와 같이 方言의 語尾構成體에서 볼 때 回想法의 形態이다.

다음, 推測法에서 ‘-키여’의 /-ㄱ-/은 推測 혹은 可能을 意味하는 形態이고, /-여/는 肯定的 判斷을 나타내는 平叙法語尾이다. ‘-려’는 推測法의 /-리-/와 平叙法語尾의 /-어/로 分析되는 것이다.

다음, 意圖法에서 ‘-키여’의 /-ㄱ-/은 話者 또는 相對者의 意圖를 表示하는 形態이고, /-여/는 推測法에서와 마찬가지로 肯定的 判斷을 나타내는 平叙法語尾이다. ‘-저’는 4.5.3에서 詳論한 바와 같이 話者의 意圖, 意欲을 表示하는 /-스-/과 平叙法語尾 /-어/로 分析되는 것이다.

이상 分析하여 온 바를 綜合하면 直說法에 連結되는 平叙法語尾로서 /-다/·/-아/·/-니/·/-에/ 들을, 回想法과 連結되는 것으로 /-라/를, 推測法과 連結되는 것으로 /-여/·/-어/ 들을, 意圖法과 連結되는 것으로 /-여/·/-어/ 들을 각각 얻는다. 이들 「하라體」에 나타나는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다~-아)ㄴ-니-에-라-여-어/

들과 같다. 이들은 形態論의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基本形態를 {-다}로 삼는다.

5.2.1.2 平叙法에서의 「하여體」의 形態들을 分析하여 보려 한다.

먼저, 直說法에서 ‘-네’는 語幹에 直結되기도 하고, ‘먹엄네, 보앗네’와 같이 動作相의 形態에 連結되기도 하는데 直說法의 形態 /-ㄴ-/와 平叙法語尾 /-에/로 分析된다.

‘-메’는 ‘먹으메, 보메, 가메’와 같이 語幹에 直結되기도 하고, ‘먹엄시메, 보아시메’와 같이 動作相의 形態에 接尾되기도 하여 사용되는 데, 여기 /-메/에는 直說法의 形態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그 意義로 보아서 現在 또는 未來의 動作·狀態에 대하여 指定하여 言述

하는 것이므로 여기 直說法에 넣는 바이다.

／-아~-어／는 語幹에 直結된다. ‘먹어’, ‘보아’와 같다. 이 ‘먹어’, ‘보아’들의 ／-아~-어／에서도 直說法의 形態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먹어’, ‘보아’는 「하라體」의 ‘먹나’, ‘본다’에 對應되는 「하어體」語形으로서 여기 直說法에 넣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形態들을 zero異形態라 하게 된다.”

다음, 回想法에서 ‘-네’는 直說法의 ‘-네’와 對立을 이루는 形態로 回想法의 ／-ㄷ-／과 平叙法語尾 ／-에／로 分析된다. ‘-란게’는 回想法의 ／-라-／와 平叙法語尾 ／-게／로 分析하게 되는데, 이 ／-게／는 肯定的 認定을 재촉하는 意義를 나타낸다.

‘-안게~-언게’도 回想法의 ／-안-~-언-／과 平叙法語尾 ／-게／로 分析되는데, 이 ／-게／도 肯定的 認定을 재촉하는 意義를 나타낸다.

‘-아고~-어고’도 回想法의 ／-아-~-어-／와 平叙法語尾 ／-고／로 分析되는데, 이 ／-고／는 肯定的 認定을 表示한다.

‘-안걸~-언걸’의 ／-안-~-언-／도 回想法의 形態이고 ／-걸／을 平叙法語尾라 하게 된다. 이 ／-걸／은 그 分布가 매우 制約되어서 이 ／-안-~-언-／과만 連結되어지는데 그 意義는 어떤 動作·狀態에 대하여 肯定的 認定을 表示한다고 하게 된다.

다음, 推測法으로 ‘-크라, 크메’의 ／-ㄱ-／은 推測·可能을 表示하는 形態이고, ／-라／, ／-메／는 各各 平叙法語尾라 하게 된다.

‘-랴’는 推測法의 ／-리-／와 平叙法語尾 ／-아／로 分析되고, ‘-르걸’은 ／-ㄹ-／을 推測法의 形態라 하고 ／-걸／은 平叙法語尾라 하게 되는데, 이 ／-걸／의 意義는 어떤 動作·狀態에 대하여 肯定的 認定을 表示한다고 하게 된다.

다음, 意圖法으로 ‘-크라, -크메’의 ／-ㄱ-／은 話者 또는 相對者의 意圖를 表示하는 形態이고 ／-라／, ／-메／는 推測法에서와 마찬가지로

注 1: H. A. Gleason, Jr.;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New York, 1961, pp. 75-6

로 平叙法語尾라 하게 된다. ‘-주’는 方言에서의 特異한 形態인데 이것은 「하라體」에서의 ‘-저’와 對應되는 「하여體」의 語形으로서 이것을 意圖法의 /-스-/과 平叙法語尾 /-우-/로 分析하여 둔다.

이상에서 分析하여 온 「하여體」의 平叙法語尾들을 綜合하면 直說法에 連結되는 語尾로서 /-에/·/-메/·/-아~-어/ 들을, 回想法과 連結되는 語尾로서 /-에/·/-게/·/-고/·/-결/ 들을, 推測法과 連結되는 語尾로서 /-라/·/-메/·/-아/·/-결/ 들을, 意圖法과 連結되는 語尾/ -라/·/-메/·/-우/ 들을 각각 얻는다. 이들 「하여體」에서 나타나는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에-메-(아~-어)-게-고-결-라-결-우/

들과 같다. 그 語尾 形態가 매우 多樣하다. 이들은 모두 形態論의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基本形態를 {-어}로 삼는다. 이 {-어} 形態가 5.2.2에서 高찰할 平叙法語尾의 形態들 하고 統合하여 생각할 때 다른 形態들보다 그 分布가 넓기 때문이다.

5.2.1.3 平叙法에서의 「하서體」의 形態들을 分析하여 보려 한다.

먼저, 直說法에서 ‘-되네다, -되니다’의 /-되-/에 대해서는 3.3에서 詳論하였고 /-네-/ , /-니-/에 대해서도 4.2.3에서 論하였으므로 여기 다시 論할 것도 없이 /-네-/와 /-니-/는 直說法의 形態이고 /-다/는 肯定的 斷定을 表示하는 平叙法語尾이다.

‘-우게’는 ‘먹읍수게, 보았수게’와 같이 動作相 形態에만 接尾되어 나타나는 그 分布가 매우 限定되어 있는 形態이지만 이 先語末語尾 /-우-/는 3.2에서 詳論하였으므로 여기 다시 論할 것 없고, /-게/는 5.2.1.2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肯定的 認定の 재촉을 表示하는 平叙法語尾이다.

다음, 回想法에서 ‘-되네다, -되디다’의 /-네-/ , /-디-/는 4.3.3에서 論한 바와 같이 直說法의 ‘-되네다’의 /-네-/와 對應되는 回想法의 形態이다.

‘-란게마씀’은「하여體」의 語尾 形態에 尊待 表示의 ‘-말씀’添辭가 첨부되어「흙서體」를 形成시킨 것이므로, 여기서 平叙法語尾로서의 分析 對象에서 除外된다.

다음, 推測法에서 ‘-쿠다, -쿠게’들의 /-쿠-/은 推測·可能的 意義를 나타내고 /-다/는 肯定的 斷定을 나타내고, /-게/는 肯定的 認定을 재촉하는 意義를 나타낸다. ‘-리우다’의 /-리-/는 推測法의 形態, /-우-/는 3.2에서 論한 尊待表示의 形態, /-다/는 肯定的 斷定을 表示한다.

다음, 意圖法에서 ‘-쿠다’의 /-쿠-/은 4.5.2에서 論한 바와 같이 話者 또는 聽者의 意圖를, /-우-/는 3.2에서 論한 바와 같이 尊待를, /-다/는 위에서 누누히 言及한 바와 같이 肯定的 斷定을 表示한다.

‘-리주’의 /-리-/은 3.3에서 論한 바「對者尊待」의 形態이고, ‘-주’는 /-스-/이 4.5.3에서 論한 바와 같이 話者의 意圖, 意欲을 表示하는 形態이다. 그리고 /-우/는 여기서는 平叙法語尾이다.

이상「흙서體」의 平叙法語尾들을 分析하여 왔는데 그것들을 綜合하면 直說法에 連結되는 語尾로서 /-다/·/-게/들을, 回想法에 連結되는 語尾로서 /-다/를, 推測法에 連結되는 語尾로서 /-다/·/-게/들을, 意圖法에 連結되는 語尾로서 /-다/·/-우/들을 각각 얻는다. 이들「흙서體」에서 나타나는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다-게-우-/

들과 같다. 이들은 모두 形態論的으로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基本形態를 {-다}로 삼는다.

5.2.2 平叙法語尾

尊卑法 動作相	하 라 體	하 여 體	흙 서 體
未完了相	-암저/-엄저 -암다/-엄다	-암주/-엄주 -암고/-엄고	-암주마씀/-엄주마씀 ○

完了相	-았저/-엇저 -앗다/-엇다	-았주/-엇주 -았고/-엇고	-았주마씀/-엇주마씀 ○
未完了相 存續相	○	-암서/-엄서	-암수다/-엄수다
完了存續相	○	-아서/-어서	-아수다/-어수다 -앗수다/-엇수다

5.2.2.1 動作相과 連結되는 平叙法語尾의 形態들을 分析하여 보려 한다.

먼저, 「하라體」에서 ‘-암저~-엄저’의 /-암~-엄-/은 2.2에서 詳論한 바와 같이 未完了相의 形態, /-저/는 肯定的 斷定을 表示하는 平叙法語尾이다.

‘-암다~-엄다’의 /-다/도 여기서는 肯定的 斷定을 表示하는 平叙法語尾이다.

‘-았저~-엇저’나 ‘-앗다~-엇다’의 /-았~-엇-/은 2.3에서 詳論한 바와 같이 完了相의 形態이다.

‘-암다~-엄다’와 ‘-앗다~-엇다’의 /-다/ 語尾는 주로 年少層 間의 對話에서 사용해진다.

이상 「하라體」에서 分析하여 온 바 平叙法語尾는 /-저/와 /-다/이다. 이 두 /-저/와 /-다/는 話者의 年齡層에 따라 發話해지는 頻度上的 差異는 있겠으나 話者의 意思에 따라 自由로 擇할 수 있는 隨意的인 變異形態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基本形態는 {-다}로 삼아 둔다.

5.2.2.2 다음, 「하여體」의 平叙法語尾들을 分析하여 보려 한다.

‘-암주~-엄주’, ‘-암고~-엄고’의 /-암~-엄-/은 2.2에서 詳論한 바와 같이 未完了相의 形態이고, /-주/, /-고/는 肯定的 認定을 表示한다.

‘-암서~-엄서’와 ‘-아서~-어서’의 ‘-서’는 2.4와 2.5에서 詳論한 바와 같이 두 形態로 分析되는 것이다. 즉, 存在辭 /시-/의 變異形態로서

의 /ㅅ-/와 /-어/이다. 여기의 /ㅅ-/는 앞의 /-ㅁ-~-ㅅ-/과 化合이 되어서 未完了存續相의 形態를 構成하고, 또 앞의 /-ㅁ-~-ㅅ-/ 또는 /-ㅁ-~-ㅅ-/과 化合되어서는 完了存續相의 形態를 構成하는 것이다. 그 나머진 /-어/는 여기서 平叙法語尾가 되는 것이다.

이상 「형체」에서 分析하여 온 바 平叙法語尾는 未完了相, 完了相과 連結되는 것이 /-주/와 /-고/이고, 未完了存續相, 完了存續相과 連結되는 것이 /-어/이다.

이들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주-고-어/

들과 같다. 이들은 모두 形態論으로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基本形態를 {-어}로 삼는다.

5.2.2.3 다음, 「흥서體」의 平叙法語尾들을 分析하여 보려 한다.

‘ㅁ수다~ㅅ수다’의 ‘-ㅁ수~ㅅ수-’는 2.4에서 詳論한 바와 같이 두 形態로 分析되는 것이다. 즉, /-ㅁㅅ-~-ㅅㅅ-/와 /-우-/이다. 이 /-ㅁㅅ-~-ㅅㅅ-/가 未完了存續相의 形態이고, /-우-/는 對者尊待의 形態인 것이다. 그리고 /-다/는 위에서 누누히 말한 바와 같이 肯定的 斷定을 表示하는 平叙法語尾이다.

‘ㅁ수다~ㅅ수다’, ‘ㅁ수다~ㅅ수다’의 ‘-ㅁ수~ㅅ수-’ 또는 ‘-ㅁ수~ㅅ수-’는 2.5에서 詳論한 바와 같이 各各 두 形態로 分析되는 것이다. 즉, 完了存續相의 /-ㅁㅅ-~-ㅅㅅ-/ 또는 /-ㅁㅅ-~-ㅅㅅ-/과 對者尊待의 /-우-/이다.

이상과 같이 「흥서體」에서 分析하여 온 바 平叙法語尾는 未完了存續相과 完了存續相에 連結되는 것으로서 /-다/ 하나뿐이다. 따라서 이 「흥서體」에 있어서 動作相 形態들과 連結되는 平叙法語尾의 形態素는 {-다} 라고 하게 된다.

5.2.2.4 그런데 여기 한 가지 添言해 둘 것은 動作相 形態들과 連結되는 平叙法語尾로서 未完了存續相과 平叙法語尾, 完了存續相과 平叙法語

尾의 連結된 形態가 「하라體」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分明히 「構造上的 缺陷」(hole in the pattern)이다.²⁾ 이러한 構造上에 빈 자리가 생기면 그 構造體系는 固定되기가 어렵고 動搖하기 시작하는 것이 言語의 一般的인 傾向인데, 그러고 보면 方言에서의 이 動作相體系도 未久에 動搖되기 시작하여, 장차는 未完了相과 未完了存續相이 合一되고, 또 完了相과 完了存續相이 合一되는 그런 結果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에 있어서는 다음에 考察할 疑問法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未完了存續相과 疑問法語尾, 또 完了存續相과 疑問法語尾의 連結된 各 形態가 「하라體」에 있어서 각각 나타나고, 또 各 動作相의 形態들이 對立的으로 存在하므로 2章에서 論究한 바와 같이 未完了相對 完了相, 未完了存續相對 完了存續相의 各 形態들을 設定하였던 바이다.

5.2.3 이상 平叙法에 있어서 先語末語尾로써 表示되는 叙法과 連結되는 平叙法語尾의 形態들과 動作相과 連結되는 平叙法語尾의 形態들을 各各 設定하여 왔는데 그것들을 여기 整理하여 보면,

尊卑法	變異形態	基本形態
하라體	/(-다~-아)ㄴ-니ㄴ-에ㄴ-라ㄴ-여ㄴ-어ㄴ-자/	{-다}
하여體	/-에ㄴ-메ㄴ(-아~-어)ㄴ-게ㄴ-고ㄴ-걸ㄴ-라ㄴ-걸 ㄴ-우ㄴ-주/	{-어}
홉서體	/-다ㄴ-게ㄴ-우/	{-다}

이 세 尊卑法에서 나타나는 平叙法語尾의 基本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다ㄴ-어/

와 같다. 여기서 平叙法語尾의 궁극적인 基本形態는 {-다}이다. {-다}는 「하라體」와 「홉서體」두 군데서 나타나므로 이것을 代表的인 基本形態로 삼게 된다.

注 2 : K. L. Pike; *Ibid.*, p. 117

5.3 疑 問 法

5.3.1 疑問法語尾

尊卑法 叙法	하 라 體	하 여 體	흡 서 體
直 說 法	-느냐 -느니 -나 -냐 -니	-는가 -는고 -아-/-어	-비네까 • -비니까
回 想 法	-더냐 -더니 -아냐/-어냐 -아니/-어니 -라냐 -라니 -안다/-언다 -안디/-언디 -안다/-언다	-던가 -던고 -안가/-언가 • -아 /-어 -안고/-언고 -란가 -란고 -안/-언	-비메가 • 비디가 -안가마씀/-언가마씀 -아마씀/-어마씀 -비메가 • 비디가 -란가마씀 -비메가 • 비디가
推 測 法	-크냐 -크니	-크까 • -카 • -큰가 • -큰까 • -크라 -코	-쿠가 • -카마씀 -코마씀
意 圖 法	-리다 -리디 -리티 -리다 -리타 -리라 -리리 -리레	-젠 • -크라 • -큰가	-쿠가 • -젠마씀

5.3.1.1 先語末語尾로 表示되는 叙法 形態와 連結된 疑問法語尾를 分析하기로 한다.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들에서 /-냐/를 分析해 낼

수 있다. 이 /-냐/의 分布를 보면 直說法의 /-느-/와 推測法의 /-ㄱ-/에 連結되어지고, 回想法과는 /-더-/ , /-아-~-어-/ , /-라-/들에 연결되어진다.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들에서 /-니/를 分析해 낼 수 있다. 그 分布를 보면 直說法의 /-느-/와 推測法의 /-ㄱ-/에 連結되어지고, 回想法과는 /-더-/ , /-아-~-어-/ , /-라-/들과 연결되어진다.

直說法에서 ‘-나, -냐, -니’가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4.2.1에서 詳論한 바와 같이 方言에서는 平叙法語尾로서도 쓰이지만 疑問法에서도 使用되는 것이다. 이 ‘나’가 直說法의 /-ㄴ-/과 /-아/로 分析된 是 두말 할 것 없고, 여기서 疑問法語尾로서 /-아/를 얻게 된다. /-냐/는 單一形態로서 疑問法語尾가 되기도 하지만 文脈的 環境에 따라서는 直說法의 /-니-/와 疑問法語尾 /-아-/로 分析되기도 한다. /-니/도 單一形態로서 疑問法語尾가 되기도 하지만 文脈的 環境에 따라서는 直說法의 /-ㄴ-/과 疑問法의 /-이/로 分析되기도 한다. 이 경우 /-ㄴ-/을 直說法 /-느-/의 形態論的 異形態라고 하고, /-이/를 /-냐/의 短縮된 異形態라고 보기도 한다.³⁾

回想法과 意圖法에서 /-다/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그 分布를 보면 回想法의 /-안-~-언-/과 意圖法의 /-ㄹ-/에 連結되어진다.

回想法과 意圖法에서 /-디/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그 分布를 보면 回想法의 /-안-~-언-/과 意圖法의 /-ㄹ-/에 連結되어진다. 또 이 /-디/는 意圖法 /-ㄹ-/과의 連結에서 /-티/로 實現되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티/를 分析하여 내게 된다.

回想法과 意圖法에서 /-다/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그 分布를 보면 回想法의 /-안-~-언-/과 意圖法의 /-ㄹ-/에 連結되어진다. 또 이 /-다/는 意圖法 /-ㄹ-/과의 連結에서 경우에 따라 /-타/로 實現되어지기도 한다. 이 때에는 /-타/를 分析하여

注 3 : 高永根 :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대한 構造的研究”, 「語學研究 10-1」, 서울大, 1974, p. 132

내게 된다.

그리고 意圖法の /-근-/에 /-라/, /-리/, /-레/들이 連結되어진다.

이상 分析하여 온 바를 綜合하면 直說法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냐/, /-니/, /-아/, /-이/ 들을, 回想法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냐/, /-니/, /-다/, /-더/, /-다/ 들을, 推測法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냐/, /-니/들을, 그리고 意圖法과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는 /-다/, /-더/, /-다/, /-티/, /-타/, /-라/, /-리/, /-레/ 들을 각각 얻는다. 이들 「하라體」에서 나타나는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냐-니-아-이-다-더-티-타-라-리-레/들과 같다. 이들은 形態論의으로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여기서 基本形態를 {-냐}로 삼는다.

5.3.1.2 先語末語尾로 表示되는 叙法 形態와 連結된 「하어體」의 疑問法語尾에 대해서 分析하기로 한다.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意圖法 들에 대해서 /-가/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이 /-가/의 分布를 보면 直說法의 /-는-/과, 回想法의 /-던-/ , /-안-~-언-/ , /-란-/ 들과, 推測法の /-큰-/과, 意圖法の /-큰-/들에 각각 連結되어진다.

直說法과 回想法에서 /-고/를 分析해 낼 수 있다. 그 分布를 보면 直說法의 /-는-/과 回想法의 /-던-/ , /-란-/ , /-안-~-언-/ 들에 각각 連結되어진다.

直說法에서 疑問法語尾 /-아~-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아~-어/는 平叙法語尾 /-아~-어/와 그 形式이 同一한데, 音調型을 달리 하여서 疑問法語尾의 機能을 다하게 되는 것임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아~-어/ 形態가 回想法에도 分布되고 있다. 直說法에서는 疑問法の 「하라體」 語尾인 ‘-나’ (먹나?, 보나?)에 對應되는 「하어

體」語尾로서 /-아~-어/(먹어?, 보아?)가 發話되어지고, 回想法에서는 역시 疑問法의 「하라體」語尾인 ‘-아냐~-어나’(보아냐?, 먹어나?)에 對應되는 「하여體」語尾로서 /-아~-어/(보아?, 먹어?)가 發話하여진다. 말하자면, 이 回想法에서의 /-아~-어/ 疑問法語尾는 그 語末語尾로서의 疑問法의 語尾 形態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推測法에서는 疑問法語尾로서 /-아/가 나타난다. 이 /-아/는 語幹 母音에 따라 變異되는 일이 없다.

回想法에서 疑問法語尾 /-안~-언/ 이 나타나고 있다. 이 「하여體」의 疑問法語尾 /-안~-언/은 「하라體」의 ‘-안다~-언다’에 對應되는 「하여體」語尾로서 이 /-안~-언/ 疑問法語尾에 있어도 그 語末語尾로서의 疑問法의 語尾 形態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라고 할 것이다.

推測法에서 疑問法語尾 /-까/가 나타나고 있다. 이 /-까/는 推測法의 /-ㄱ-/ , /-ㅋ-/에 連結되어진다.

또 推測法과 意圖法에서 疑問法語尾 /-라/가 나타나고 있다. 이 /-라/는 推測法과 意圖法の /-ㅋ-/과 連結되어 지는데, 이것은 反問의 疑問法語尾이다.

또 推測法에서 疑問法語尾 /-오/가 나타나고 있다. 이 /-오/는 推測法の /-ㅋ-/에 연결된다.

意圖法에는 疑問法語尾로 /-엔/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엔/은 意圖法の 形態 /-스-/에 연결되어 反問의 疑問法語尾가 된다. 이 /-젠/의 形態 構成은 意圖平叙法語尾 /-저/에 /-이-/와 /-ㄴ/이 連結된 形態인데, 이것이 相對者의 意圖를 反問하는 疑問法語尾로 쓰인다.

이상 分析하여 온 바를 종합하면 直說法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가/, /-고/, /-아~-어/ 들을, 回想法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가/, /-고/, /-아~-어/, /-안~-언/ 들을, 推測法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까/, /-아/, /-가/, /-라/, /-오/ 들을, 意圖法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엔/, /-라/, /-가/ 들을 각각 얻는다.

叙 法 (Ⅱ)

이들 「하여體」에서 나타나는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가으-고으(-아~-어)으(-안~-인)으-끼으-라으-오으-엔／

들과 같다. 이들은 形態論的으로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여기서 基本形態를 {-가}로 삼는다. 다른 變異形態들에 비하여 가장 그 分布가 넓기 때문이다.

5.3.1.3 先語末語尾로 表示되는 叙法 形態와 연결된 「흠서體」의 疑問法語尾에 대해서 分析하기로 한다.

直說法에서 ／-까／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이 ／-까／는 直說法的形態 ／-네-／나 ／-니-／에 連結된다.

回想法에서는 ／-가／가 나타난다. 이 ／-가／는 回想法의 形態 ／-데-／나 ／-디-／에 連結된다.

推測法과 意圖法에서는 ／-가／가 나타난다. 이 推測法과 意圖法에서의 ／-가／는 「對者尊待」인 ／-우-／에 連結된다.

「흠서體」에서의 疑問法語尾는 위와 같이 매우 간단하다. ／-까／와 ／-가／뿐이다. 이 ／-까／와 ／-가／는 隨意的인 變異일 듯하지만 실제 發話에서 直說法的 形態 ／-네-／와 ／-니-／ 다음에서는 ／-까／가 나타나고, 回想法의 形態 ／-데-／와 ／-디-／ 다음에서는 ／-가／가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들을 形態論的으로 制約된 變異形態라 하게 되는 데, 그 基本形態를 {-가}로 삼는다. 그 分布가 가장 넓기 때문이다.

5.3.2 疑問法語尾

尊卑法 動作相	하 라 體	하 여 體	흠 서 體
未 完 了 相	-압다／-엄다 -압디／-엄디 -압다／-엄다 -압나／-엄나 -압니／-엄니 -압나／-엄나	-압고／-엄고	-압고마쑈／-엄고마쑈

完 了 相	-안다/-언다 -안디/-언디 -안다/-언다 -앗나/-엇나 -앗니/-엇니 -앗나/-엇나	-안/-언 -앗고/-엇고 -안고/-언고 -안가/-언가	-비데가·비디가 -앗고마썸/-엇고마썸 -안고마썸/-언고마썸 -안가마썸/-언가마썸
未存 完續 了相	-암시나/-엄시나 -암시니/-엄시니 -암시아/-엄시아	-암신가/-엇신가 -암신고/-엄신고 -암서/-엄서	-암수가/-엄수가 -암신고마썸/엄신고마썸 -암수가/-엄수가
完存 續 了相	-아시나/-어시나 -아시니/-어시니 -아시아/-어시아	-아신가/-어신가 -아신고/-어신고 -아서/-어서	-앗수가/-엇수가 -아신고마썸/-어신고마썸 -아수가/-어수가

5.3.2.1 動作相 形態와 連結된 「하라體」 疑問法語尾들을 分析하여 보려 한다.

未完了相 또는 完了相의 形態와 連結된 疑問法語尾 /-다/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그 分布를 보면 未完了相의 形態 /-암-~-엄-/과 完了相의 形態 /-안-~-언-/에 연결되어진다. 이 /-암-~-엄-/이나 /-안-~-언-/에 /-다/가 연결된 語形의 發話는 相對者(聽者)에 대한 直接的인 質問이 된다. 未完了相 또는 完了相의 形態와 連結된 疑問法語尾 /-다/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또 未完了相 또는 完了相의 形態로부터 /-디/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앞의 /-다/나 이 /-디/가 마찬가지로 未完了相의 形態 /-암-~-엄-/과 完了相의 形態 /-안-~-언-/에 連結되어지는데, /-디/ 疑問法語尾는 반드시 그 앞에 疑問詞를 前置시킨다. /-다/나 /-디/ 疑問法語尾도 앞에 疑問詞를 前置시키는 일이 있지만 /-디/의 경우와 같이 필수적이지 아니다.

未完了相 또는 完了相의 形態로부터 /-나/를 分析해 낼 수 있다. 이 /-나/의 分布를 보면 未完了相의 /-암-~-엄-/ , 完了相의 /-앗-~-엇-/ , 未完了存續相의 /-암시-~-엄시-/ , 完了存續相의 /-아시-~-어시-/에 각각 連結되어지므로 그 分布가 가장 넓다.

未完了相 또는 完了相의 形態로부터 /-나/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그 分布를 보면 未完了相의 /-암-~-엄-/과 完了相의 /-앗-~-엇-/과만 連結되어진다.

未完了相 또는 完了相의 形態로부터 /-니/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이 /-니/의 分布를 보면, 未完了相의 /-암-~-엄-/ , 完了相의 /-앗-~-엇-/ , 未完了存續相의 /-암시-~-엄시-/ , 完了存續相의 /-아시-~-어시-/에 각각 連結되어진다. 그런데 이 /-니/ 疑問法語尾는 그 連結 形態에 따라서 疑問詞를 반드시 前置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고, 疑問詞를 前置 안시켜도 文章으로서 成立되는 경우가 있다. /-니/가 完了存續相 /-아시-~-어시-/와 連結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疑問詞를 前置시키고, 完了相 /-앗-~-엇-/과 連結되는 경우에는 疑問詞를 前置시키거나 안시키거나 文章으로서 成立함에는 支障이 없다. 그리고 未完了存續相 또는 完了存續相의 形態로부터 /-아/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이상 分析하여온 바를 綜合하면 未完了相 /-암-~-엄-/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다/ , /-디/ , /-다/ , /-나/ , /-니/ , /-냐/들을, 完了相 /-안-~-언-/과 /-앗-~-엇-/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다/ , /-디/ , /-다/ , /-나/ , /-니/ , /-냐/들을, 未完了存續相 /-암시-~-엄시-/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냐/ , /-니/ , /-아/들을, 完了存續相 /-아시-~-어시-/에 연결되는 疑問法語尾로서 /-냐/ , /-니/ , /-아/들을 얻는다. 이들 「하라體」에서 나타나는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다-의-디-의-다-의-나-의-니-의-냐-의-아/

들과 같다. 이들은 形態論의으로 제약된 變異形態들이다. 여기서 基本形態를 {-냐}로 삼는다.

5.3.2.2 動作相 形態와 連結된 「하라體」의 疑問法語尾들에 대하여 分析하기로 한다.

未完了相, 完了相, 未完了存續相, 完了存續相의 形態로부터 /-고/

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그 分布를 보면 未完了相의 形態 /-압-~-엄-/，完了相의 形態 /-안-~-언-/과 /-앗-~-엇-/，未完了存續相의 形態 /-압시-~-엄시-/，完了存續相의 形態 /-아시-~-어시-/들에 각각 連結된다.

完了相，未完了存續相，完了存續相들의 形態로부터 /-가/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그 分布를 보면 完了相의 形態 /-안-~-언-/，未完了存續相의 形態 /-압시-~-엄시-/，完了存續相의 形態 /-아시-~-어시-/에 각각 連結된다.

「하라體」의 完了相 形態 /-안다-~-언다/에 對應되는 形態로서 「하여體」에서는 /-안-~-언/으로 나타난다. 이 /-안-~-언/은 疑問法語尾의 機能을 다하게 되는데, 이것은 疑問法의 語尾 形態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라 하겠다.

未完了存續相，完了存續相들의 形態에서 /-어/를 分析하여 낼 수 있다. 이 /-어/의 分布는 未完了存續相의 形態 /-압시-~-엄시-/와 完了存續相의 形態 /-아시-~-어시-/에 連結된다.

이상 分析하여 온 바를 綜合하면 未完了相의 /-압-~-엄-/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고/를，完了相의 形態 /-안-~-언-/과 /-앗-~-엇-/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고/，/-가/，/-안-~-언/들을，未完了存續相의 形態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가/，/-고/，/-어/들을，完了存續相의 形態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로서 /-가/，/-고/，/-어/들을 얻는다. 이들 「하여體」에서 나타나는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고-가(-안-~-언)-어/

들과 같다. 이들은 形態論的으로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基本形態를 {-가}로 삼는다.

5.3.2.3 動作相 形態와 連結된 「하서體」의 疑問法語尾들에 대하여 分析하기로 한다. 이 動作相 形態와 連結된 「하서體」의 疑問法語尾는

叙 法 (Ⅱ)

오직 /-가/ 하나뿐이다. 이 /-가/가 完了相의 形態 /-데-/ , 未完了存續相의 形態 /-았수-~-었수-/ , 完了存續相의 形態 ‘-았수-~-었수-’ 와 ‘-아수-~-어수-’에 각각 連結된다.

5.3.3 이상 疑問法에 있어서 先語末語尾로써 表示되는 叙法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의 形態들과 動作相에 連結되는 疑問法語尾의 形態들을 각각 設定하여 왔는데, 그것들을 여기 整理하여 보면,

尊卑法	變 異 形 態	基本形態
하라體	/-냐-니-아-이-다-디-티-다-타-나-라-리-레-/	{-냐}
하여體	/-가-고-아-어(-안~-연)-까-라-오-엘-/	{-가}
흠서體	/-까-가-/	{-가}

이 세 尊卑法에서 나타나는 疑問法語尾의 基本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냐-가/

들과 같다. 여기서 疑問法語尾의 궁극적인 基本形態는 {-가}이다. 이 {-가}가 「하여體」와 「흠서體」 두 군데서 나타나므로 이것으로 代表的인 基本形態를 삼게 되는 것이다.

5.4 命 令 法

5.4.1 命令法語尾

尊卑法 動作相	하 라 體	하 여 體	흠 서 體
未完了 存續相	-(으)라	-아/-어 • -게 • -자 • -취 • -십시오	-(으)라서
完了 存續相	-았시라/-었시라 -아시라/-어시라	-았서/-었서 -아서/-어서	-았십시오/-었십시오 -아십시오/-어십시오

5.4.1.1 오늘날 方言의 命令法語尾는 「하라體」에서는 /-라/이다. 표준어에서는 命令法語尾가 /-아라~-어라/로 나타나지만 方言에서는 ‘가라, 먹으라, 오라’ 등과 같이 /-라/로 言述해진다.

改新派의 影響을 받은 年少層의 發話에서는 경우에 따라 /-아라~-어라/ 語尾가 전혀 言述 아니해지는 바는 아니지만 方言 言衆들의 發話에서는 거의가 /-라/ 語尾로 言述해진다.

이 命令法의 /-라/ 語尾는 16, 7세기의 文獻에는,

다시 저기 소곰 두라	〈老乞上・22〉
네 상노코 묻져 머그라	〈老乞上・22〉
아모가히 이리 오라	〈捷解一・1〉

와 같이 빈번히 나타난다. 그런데 이 「하라體」에서는 ‘-암시라~-엄시라’와 ‘-아시라~-어시라’들이 또한 命令法語尾로 쓰인다.

이것은 動作相의 未完了存續相 또는 完了存續相의 形態에 /-라/가 결합된 語尾인데 이러한 命令法의 活用語尾도 國語史的으로 볼 때에 12, 3세기에서부터 쓰여왔던 것으로 보는 바이나 장황한 論說을 要할 것이므로 別稿로 미룬다. 여기 「하라體」命令法에서 {-라} 語尾를 얻는다.

5.4.1.2 命令法의 「하여體」語尾는 매우 복잡하다. ‘먹어, 잡아’와 같이 /-아~-어/ 語尾가 一般的으로 자주 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억게’, ‘잡자’, ‘가줘’, ‘먹십’ 등 語尾가 命令法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중에 ‘먹십’ 語尾는 婦女子들의 發話에서 言述하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암서~-엄서’ 또는 ‘-아서~-어서’들도 쓰이는데, 이들에서는 그 命令法語尾가 /-어/이다. 여기 「하여體」의 命令法語尾에 나타나는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아~-어)ㄴ-게ㄴ-자ㄴ-줘ㄴ-십/

들과 같다. 이들 중에는 隨意的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形態論적으로 제약된 變異形態들이다. 여기서 基本形態를 {-어}로 삼는다. 다른 變異形態들보다 그 分布가 넓기 때문이다.

5.4.1.3 命令法の「흠서體」語尾는 ‘-ㅅ서’ 하나뿐이다. ‘-ㅅ서’ 語尾의 形成은 對者尊待의 形態 /-ㅅ-/과 /-서/와의 結合이다. 이 /-ㅅ-/에 대해서는 이미 3.3에서 對者尊待 形態로 規明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言及할 것이 없고, /-서/에 대해서만 살펴 보기로 한다. /-서/는 相對尊待法の 形態 /-쇼서/의 縮約形이다.⁴⁾ 이런 縮約形은 古文獻에도 나타난다.

내 보아져 ㅎ느다 슬바썸

〈釋詳六·14〉

엇데 부테라 ㅎ느릿가 그 ㅅ들 닐어썸

〈釋詳六·16〉

이 15세기 文獻에 나타나는 /-썸/形이 方言에서는 오늘날 /-서/로 나타남이 一般이지만 發音傾向에 따라서는 /-썸/로도 實現된다. ‘닐어썸’의 /-썸/가 /-쇼서/보다는 그 等分이 낮다고 할 수 있겠지만 相對者尊待의 語尾임은 두말 할 것 없다.⁵⁾ 그러나 이것이 命令法語尾라고 할 때에는 그 尊待 表示의 機能은 매우 희미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所願法」이라기도 하는데,⁶⁾ 方言의 /-서/語尾도 오늘날 尊待 表示의 그 機能을 거의 상실하여 버렸고, 따라서 /-서/ 形만으로는, 즉, ‘*ㅎ서’, ‘*먹으서’ 形으로는 尊待 表示를 하지 못하고, 그 앞에「對者尊待」의 形態인 /-ㅅ-/을 前接시키고서야 비로소 尊待를 表示하는 機能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方言의 尊待法에서 尊待命令法으로 ‘-ㅅ서’ 語尾가 生成되어진 것이라겠다.

5.4.2 이상 命令法에 있어서 그 語尾를 尊卑法에 따라 設定하여 왔는데, 여기 그것들을 整理하여 보면,

尊卑法	變 異 形 態	基本形態
흠라體	/-라/	{-라}

注 4 : 李東林 ; 「注解 釋譜詳節」, 東國大出版部, 1959, p. 106

5 : 許雄 ; *Ibid.*, p. 27

6 : 李崇寧 ;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1961, p. 197

형체	/(-아~-어)ㄴ-게ㄴ-자ㄴ-취ㄴ-십/	{-어}
합서체	/-ㅅ서/	{-ㅅ서}

이 세 尊卑法에서 나타나는 命令法語尾의 基本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라ㄴ-어ㄴ-ㅅ서/

들과 같다. 여기서 命令法語尾의 궁극적인 基本形態를 {-라}로 삼는다. 그 分布도 넓거니와 命令法語尾의 素性を 가장 特徵적으로 表示하는 것이 때문이다.

5.5 叙法(Ⅱ) 形態의 特徵과 그 國語史的 位置

5.5.1 위의 5.2~5.4에서 語末語尾로 表示되는 叙法들에 대하여 考察하여 왔다. 그 중에서 特異한 것에 대해서 考察하고 國語史的 位置를 推察하여 보기로 한다.

平叙法語尾에서 /-저/는 오늘날 유독 濟州島 方言에서만 쓰이는 特異한 形態이다. 그러나 이 /-저/는 8,9세기의 新羅語에서부터 高麗時代를 통하여 줄곧 쓰여 오던 定動詞語尾인 듯하다.⁷⁾「大明律直解」其他 吏讀 文獻에는 '齊'字로 表記된 定動詞語尾가 빈번히 나타난다.

官民家舍良中連及斃亡令是在乙良笞五十齊	〈大明律〉
議罪申聞爲伏候上決齊	〈大明律〉
軍亦妄告去等遠方發送充軍齊	〈大明律〉
爲良教齊 ㅎ아이시저	〈典律通補〉
爲白良結 ㅎ畝아저	〈儒得必知〉

들과 같다. 이들에서 보다시피 /-저/는 8,9세기의 新羅語의 表記에서부터 朝鮮朝 初·中期까지의 吏讀 表記에 있어서 줄곧 쓰여졌던 定動詞語尾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羅·麗를 통해서 줄곧 쓰여지던 /-저/

注 7 : 李基文 : *Ibid.*, 1972, p. 76

叙 法 (II)

語尾가 오늘날 濟州島 方言에서는 平叙法語尾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特徵的인 사실은 오늘날 濟州島 方言에 있어서는 이 平叙法語尾와 同一한 形式의 /-저/가 意圖法語尾로서도 쓰여지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 意圖法語尾에 대해서는 앞의 4.5.3과 4.6.4에서 詳論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國語에서도 /-저/ 語尾가 定動詞語尾로서 新羅時代로부터 朝鮮朝 初·中期까지도 쓰여졌던 것인데, 여기서 方言의 平叙法語尾 /-저/의 國語史的 位置를 말하자면은 그것은 羅·麗로부터 朝鮮朝 初·中期까지에 있어서 그 中間 時代인 高麗時代, 즉, 12, 3세기로 말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5.2 疑問法語尾 /-다/가 /-안-~-언-/과 連結되어서 構成되는 疑問法語尾는 15, 6세기 이후의 文獻에서 비교적 쉽게 그 例들을 얻을 수 있다.

모덕 杜撰을 마롭디니 아란다

〈蒙法·20〉

惟正上座는 能히 아란다 물란다

〈蒙法·21〉

들과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안다~-언다’의 疑問法語尾가 그리 흔하게 쓰였던 것 같지는 않다.⁸⁾ 17세기의 「老乞大諺解」, 「朴通事諺解」에는,

네 언제 王京의서 떠난다

〈老諺下·3〉

네 언제 온다 굿그적의 왔노라

〈朴諺上·46〉

이 두 例 外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17세기 이후에 있어서는 이 ‘-안다~-언다’ 疑問法語尾가 점점 쓰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 아닌지, 좀 더 廣範圍한 文獻語의 調査를 요할 일이지만, 어쨌든 15, 6세기의 文獻上에서 이 ‘-안다~-언다’ 疑問法語尾가 나타나고, 17세기 이후 文獻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回顧하여 올라 가서 15, 6세기 이전인

注 8: 李崇寧; *Ibid.*, 1961, p. 178

13, 4세기에는 이 ‘-안다~-언다’ 語尾가 보다 흔히 쓰여 오다가 16, 7세기에 이르면서는 점점 안쓰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推測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推測이 容認된다면 오늘날 方言에서 ‘-안다~-언다’ 語尾가 흔하게 쓰여지는 狀態는 저 15, 6세기 이전의 狀態에 해당된다고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위에 例示된 資料를 중심으로 하여 方言 ‘-안다~-언다’ 語尾의 國語史的 位置를 15, 6세기라고 推定하는 데 그치려 한다.

5.5.3 疑問法語尾 /-디/가 /-안-~-언-/과 連結되어서 構成되는 疑問法은 文獻上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朴通事諺解」에는 다음과 같은 例가 發見된다.

아디 못게라 엇디 돌아난디	〈朴諺下・55〉
모로리로다 언메련디	〈朴諺下・30〉

이런 例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찌기는 國語에서도 ‘-안디~-언디’ 疑問法이 쓰였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이 以上の 文獻語를 얻기가 어렵다.

疑問法語尾 /-다/가 /-안-~-언-/과 連結되어서 構成된 疑問法은 方言의 特異한 것이라겠다.

5.5.4 疑問法語尾 ‘-르다’는 文獻語에서도 그 例가 흔하다.

네 能히 내게 풀다 못홀다	〈圓覺下三의一・88〉
大臣을 請畵다	〈月二一・195〉
漢人의 글 비화 므슴 홀다	〈老乞上・6〉
네 므슴 밥을 머글다	〈老乞上・20〉
네 즐겨 내어미를 효양홀다	〈小學諺六・50〉

들과 같이 朝鮮朝時代에 줄곧 使用되었던 語尾임을 알 수 있다. 이 ‘-르다’ 語尾를 놓고 方言의 國語史的 位置를 말하자면, 이 ‘-르다’ 語尾가 高麗時代에도 빈번히 쓰여졌을 것이므로 해서, 高麗時代인 12, 3

세기에서부터 17, 8세기까지에 있어서 그 中間 時代인 15, 6세기로 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意圖法 ‘-르디’, ‘-르다’ 들, 그리고 이들과 隨意的으로 變異하는 ‘-르타’, ‘-르타’ 들은 方言에서의 特異한 語尾들이다.

5.5.5 方言의 命令法語尾는 5.4.1.1에서도 規明한 바와 같이 /-라/ 이다. 이 /-라/ 命令法語尾는 文獻語에서도 15, 6세기로부터 17, 8세기에 이르면서 줄곧 나타난다. 여기 16, 7세기 文獻語의 例를 들어보면,

다시 저기 소곰 두라	〈老乞上・22〉
아모가히 이리 오라	〈捷解一・1〉
먹이기를 잘 하라	〈朴謔上・39〉
네 도히 가라	〈老謔下・50〉
슬커든 네 다룬덕 사라 가라	〈老謔下・55〉

들과 같이 흔히 나타난다. 18세기 文獻에서도 이러한 例는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슬러 올라가서 高麗時代 즉 12, 3세기에는 命令法語尾가 어떤 形으로 나타났을까가 疑問이다. 저 12세기 초의 文獻인 「鷄林類事」에서 알아 보기로 한다.

來曰烏囉
凡呼取物皆曰都囉

이들 ‘오라’, ‘도라’는 오늘날 濟州島 方言에서 使用해지는 語形 그 대로이다. 이 외에도 「鷄林類事」에 採錄되어 있는 命令法語尾들이 있다.

이와 같이 命令法語尾 /-라/가 12세기인 高麗時代 言語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라/ 語尾는 저 新羅時代에는 흔히 쓰였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 方言의 命令法語尾 /-라/의 國語史的 位置는 15, 6세기라고 하여 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라/ 語尾가 文獻語에서는 8, 9세기로부터 17, 8세기에 이르면서 줄곧 쓰여졌

던 語尾인데, 그 中間 時期 이후로 잡아서 15, 6세기로 推定하는 바이다.

5.5.6 方言의 尊待 命令法語尾는 ‘-ㄴ서’이다. 이 /-서/는 相對者 尊待의 形態 /-쇼서/의 /-서/에서 轉變된 것이고, /-ㄴ-/ 또한 「對者尊待」의 形態인데, 이 形態가 結合되어서 「尊待」의 命令法語尾를 생성시킨 方言 特有의 語尾이다.

5.5.7 이 상에서 平叙法語尾와 疑問法語尾, 그리고 命令法語尾의 그 特異한 것들을 들어 살펴보고 그 國語史的 位置를 推察하였다. 여기 그 中 重要的 것들의 國語史的 位置를 綜合하여 말한다면, 平叙法語尾의 /-저/가 12, 3세기이고, 疑問法語尾의 ‘-안다~-언다’와 ‘-ㄴ다’, 그리고 命令法語尾 /-라/들이 모두 15, 6세기로 推察되었다. 이 外에 17, 8세기의 形態에 해당될 語尾들이 있을 것임은 여기서는 論及치 않았다. 結論에서 綜合의으로 言及될 것이다.

6. 結 論

本論에서 方言의 定動詞語尾를 分析하고서는 動作相, 尊待法, 先語末語尾로 表示되는 叙法으로서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 意圖法, 그리고 語末語尾로 表示되는 叙法으로서 平叙法, 疑問法, 命令法 등의 各 形態들을 얻었고, 그것들에 대하여 各 考察하여 왔다. 다음에 그 考察한 바를 綜合하여 言及하고서 結論으로 삼으려 한다.

1. 濟州島 方言 平叙法에서 ‘-암저~-엄저’가 빈번히 쓰이는데, 이 /-암~-~-엄-/은 方言에서의 動作相으로서 「未完了相」의 形態이고, /-저/는 平叙法語尾이다. /-암~-~-엄-/은 文獻語에서 그 例를 찾아 볼 수가 없고 他地域 方言에서도 그 類例를 볼 수 없는 形態로 濟州島 方言 特有의 것이다. 이 /-저/는 8, 9세기에서부터 15, 6세기까지의 文獻上에 줄곧 나타나는 語尾이다. 이 /-저/의 國語史的 位置는 12, 3세기라 할 수 있겠다.

2. 위의 ‘-엄저~-엄저’와 對立되는 動作相 形態는 「完了相」의 ‘-앗저~-엇저’인데, 이 /-앗~-~-엇-/은 12, 3세기에서부터 17, 8세기까지 줄곧 쓰였던 形態이다. 여기서 濟州島 方言 /-앗~-~-엇-/의 國語史的 位置는 16, 7세기라 할 수 있겠다.

3. 方言의 疑問法에서 ‘-안다~-엄다’가 빈번히 쓰이는데, 이 /-암~-~-엄-/은 1.項에서 본 바와 같이 動作相의 「未完了相」이고, /-다/가 疑問法語尾이다. 이 疑問法語尾는 方言 特有의 것이다.

4. 위의 ‘-안다~-엄다’에 對立되는 疑問法의 動作相 形態는 「完了相」의 ‘-안다~-언다’이다. 이 ‘-안다~-언다’ 疑問法語尾는 15, 6세기 文獻에는 나타나지만 17세기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15, 6세기

文獻에 나타나고 그 이후의 文獻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15세기 전에는 빈번히 쓰였던 것으로 推測할 수 있으므로 해서, 또 方言에서 이 ‘-안다~-언다’가 아직 빈번히 쓰이므로 해서, 方言 ‘-안다~-언다’의 國語史的 位置를 15, 6세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또 方言의 動作相 形態素로서 「未完了存續相」의 /-암시-~-엄시-/가 發話에서 빈번히 쓰인다. 이 形態도 方言에서 獨特하게 形成되어진 것이다. 文獻上에서 그 例를 찾을 수가 없다.

6. 위의 /-암시-~-엄시-/에 對立되는 動作相 形態로서 「完了存續相」의 /-아시-~-어시-/가 있다. 이 /-아시-~-어시-/는 文獻上에서 8, 9세기에서부터 17, 8세기까지도 쓰여졌던 形態인데, 오늘날 方言의 /-아시-~-어시-/의 國語史的 位置는 12, 3세기라 할 수 있다.

7. 위의 1. ~ 6. 에 이르면서 살핀 바와 같이 方言 定動詞의 活用語尾에는 動作相을 表示하는 形態로 「未完了相」의 形態 /-암-~-엄-/ 對 「完了相」의 形態 /-안-~-언-/ (變異形態 /-앗-~-엇-/)이 있고, 또 「未完了存續相」의 形態 /-암시-~-엄시-/ (變異形態 /-암스-~-엄스-/) 對 「完了存續相」의 形態 /-아시-~-어시-/ (變異形態 /-앗스-~-엇스-~-아스-~-어스-/)들이 相互 對立體系를 이루고 共時的으로 使用되고 있다.

8. 方言 定動詞語尾로서 表示되는 尊待法에는 相對者를 尊待하는 「對者尊待法」이 있고, 「主體尊待法」은 아직 確立되어 있지 못하다. 이 「對者尊待」를 表示하는 形態에 세 가지가 있다.

9. 「對者尊待」의 形態 ‘-우다’의 /-우-/는 新羅時代 鄉歌 表記인 ‘-古如’의 /-고-/와 그 語尾 形成法에 있어서나 그 意義에 있어서나 同一한 形態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方言 ‘-우다’의 /-우-/가 國語史上 8, 9세기의 語尾 形態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本攷에서는 提示함에 그친다.

10. 「對者尊待」의 形態 /-日-/은 원래 「客體尊待」를 表示하던 ‘습’이 「對者尊待」形態素로 轉變해진 것인데, 方言에서 쓰여지는 /-日-/은 18세기 狀態의 것이라 할 수 있다.

11. 「對者尊待」를 表示하는 또 하나의 方法에 方言 定動詞의 「하여體」語尾에 ‘-마씀’添辭를 添付하여 相對者를 尊待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세 가지 「對者尊待」를 表示하는 形態 중 가장 나중에 形成되어진 것이라 본다.

12. 方言에서는 /-ヲ-/으로써 推測法과 意圖法을 表示한다. 이것은 方言에서의 特異한 叙法 形態이다.

13. 方言의 先語末語尾로 表示되는 叙法 중에서 가장 特異한 것의 하나는 /-ス-/으로 意圖法을 表示하는 것이다. 이것은 8,9세기인 新羅時代의 鄉歌 表記에서부터 15,6세기에 이르면서 文獻에 줄곧 나타나는 것인데, 國語에서는 이미 廢語化되고, 方言에서만 아직도 使用되고 있다. 이 /-ス-/의 國語史上 位置는 12,3세기라 할 수 있다.

14. 方言에서는 直說平叙法語尾로서 ‘-나’가 쓰인다. 이것은 方言 平叙法語尾의 特異한 語尾 形態이다.

15. 方言에서는 回想平叙法語尾로서 ‘-아라~-어라’가 빈번히 쓰이는데, 이것은 文獻上에 그리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4.6.2에서 論한 바와 같이 國語史上 位置는 16,7세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6. 方言에서는 疑問法語尾로서 ‘-리다’가 흔히 쓰이는데, 이 語尾는 15,6세기 내지는 17,8세기의 文獻에 줄곧 나타난다. 이 語尾가 15세기 文獻에 빈번히 나타나므로 13,4세기에서도 使用되었던 것이라 보겠는데 오늘날 方言 ‘-리다’의 國語史的 位置는 13,4세기에서 17,8세기의 中間時期인 15,6세기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7. 方言에서는 또 疑問法語尾로서 ‘-리디’, ‘-리다’가 빈번히 使用

되는데, 이들의 隨意的 變異인 ‘-르티’, ‘-르타’가 또한 빈번히 使用된 다. 이들은 方言에서 獨특하게 形成되어진 語尾이다.

18. 方言의 命令法語尾는 /-라/이다. 이 /-라/ 語尾는 12세기 초의 文獻에서부터 17, 8세기에 이르면서 줄곧 나타난다. 이 方言 /-라/ 語尾의 國語史的 位置는 15, 6세기라 할 수 있다.

19. 方言에서 尊待의 命令法語尾는 ‘-느서’이다. 이 /-서/는 相對 尊待의 形態 ‘-쇼서’의 /-서/에서 轉變된 것인데, 이것이 「對者尊待」의 形態 /-느-/과 結合되어서 尊待의 命令法語尾를 生成시킨 方言 特有的 語尾이다.

이 상에서 方言의 定動詞語尾로써 表示되는 形態들의 特異한 것들을 살펴 보았다. 그 중에서 動作相이 「未完了相」對「完了相」, 「未完了存續相」對「完了存續相」으로 相互 對立體系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方言의 特異한 現象이 아닐 수 없다.

尊待法에 있어서도 「對者尊待法」을 表示하는 方法만이 세 가지나 存在하고 「主體尊待法」이 確立되어 있지 않은 것도 方言 特異의 現象이다.

叙法에 있어서도 12, 3세기의 形態인 平叙法語尾의 /-저-/와 意圖法語尾의 /-스-/ , 推測法과 意圖法을 表示하는 形態 /-ㄱ-/ , 또 意圖法의 /-르티/ , /-르디/ , /-르다/ , /-르타/ 들은 모두 方言의 特異한 現象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國語史的으로 볼 때에는 12, 3세기에서 17, 8세기 내지는 20세기까지의 國語 定動詞語尾의 形態들이 部分的 이나마 오늘날 濟州島 方言에서 共時態로 使用되고 있다. 다시 말하여 近 千年間의 間隔差가 있는 形態들이 오늘날 方言에서는 共時態로 使用되고 있는 狀態이다.

이 史的으로 近 千年間이나 年紀差가 있는 定動詞 語尾의 形態들이 오늘날 共時態로 使用된다는 것도 濟州島 方言의 特異한 現象이다.

이것은 저 語彙分野에서의 近 千年間의 間隔差가 있는 語形의 語彙가 共時態로 使用해지는 狀態와 흡사한 現象이다.

參 考 文 獻

- 高柄翊 “鷄林類事の 編纂年代”, 「歷史學報 10」, 1958
- 高永根 「現代國語의 叙法體系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 15), 서울大, 1965
「國語接尾辭의 研究」, 光文社, 1974
- 金敏洙 「國語文法論研究」, 通文館, 1960
「國語文法論」, 一潮閣, 1971
- 金芳漢 “構造方言學”, 「語學研究 4—1」, 서울大, 1968
- 金英培 “未來時制의 한 考察”, 「東岳語文論集 8」, 1972, pp.43—54
- 金完鎭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3」, 1963
- 金亨奎 「韓國方言研究」, 서울大出版部, 1974
- 나진석 “국어 움직씨의 때때집 연구”, 「한글 134」, 1965, pp.50—147
- 南廣祐 “名詞曲用에 있어서의 ㄱ의 考察”, 「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一潮閣, 1957, pp. 219—260
「國語學論文集」, 一字社, 1962
- 南基心 “現代國語時制에 關한 問題”, 「국어국문학 55—57」, 1972, pp.213—238
- 朴昌海 “국어의 없힘음운에 관한 연구”, 「東方學志 6」, 1963, pp.19—46
- 方鍾鉉 “鷄林類事研究”, 「東方學志 2」, 1955
- 成耆徹 “經驗의 形態 {—있—}에 대하여”, 「문법연구 1」, 1974, pp.237—269
- 安秉禧 “韓國語發達史 中 文法史”, 「韓國文化史大系 V」, 1967, pp.167—261
“主體謙讓法의 接尾辭「습」에 對하여”, 「震檀學報 22」, 1961, PP.103—126
- 梁柱東 「古歌研究」, 一潮閣, 1965
- 李基文 “鷄林類事の 再檢討”, 「東亞文化 8」, 1968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72
- 李崇寧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1961
「國語學論攷」, 東洋出版社, 1960
“敬語法研究”, 「震檀學報 25·6·7」, 1964, pp.307—366
- 李東林 「註解釋譜詳節」, 東國大出版部, 1959
- 李承旭 「國語文法體系의 史的 研究」, 一潮閣, 1973
- 李翊燮 「새 국어 문법」, 서울大出版部, 1970
“國語敬語法의 體系化 問題”, 「國語學 2」, 1974, pp.39—64
- 李仁模 “中世國語의 叙想法의 研究”,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1963, pp. 403—428
- 李鍾徹 「現代國語의 時制와 相의 研究」, (國語研究 12), 서울大, 1964,
- 李熙昇 「새 고등문법」, 一潮閣, 1957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 研究

- 李熙昇 “存在詞 ‘있다’에 對하여”, 「서울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第三輯」, 1956
- 張奭鎮 “時相의 樣相; 繼續・完了의 生成的 考察”, 「語學研究 9-2」, 서울大, 1973
- 鄭寅承 「표준고등말본」, 계몽사, 1956
- 崔世和 “‘아니’語發”,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1963, pp.609—625
- 崔鶴根 「全羅南道方言研究」, (韓國研究叢書 17), 1962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59
- 허웅 「中世國語研究」, 정음사, 1963
- 「註解龍飛御天歌」, 正音社, 1956
-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 第1輯 資料篇」, 精研社, 1962
- “濟州島方言 ‘더’音에 對하여”, 「國文學報 2」, (濟州大學), 1964. pp.3—34
- “濟州島方言에서의 ‘나무’와 ‘나물’語辭에 對하여”, 「國語國文論集 7・8」(東國大), 1968
- “濟州島方言의 母音體系”, 「國文學報 3」, (濟州大學), 1969
- 洪淳鐸 “吏讀研究—動詞攷—”,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1963. pp.647—673
- “靑山島方言語彙”, 「湖南文化研究 4」, (全南大), 1966
- Bloomfield, L. *Language*, New York, 1933
- Charleston, B.M. *A Reconsideration of the Problem of Time, Tense and aspect in Modern English*, English Studifs Vol. XXXVI
- Deutschbein, M. *System der neuenglisch Syntax*, Cöthen, 1917
- Gleason, H.A. Jr. *An Introduct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New York, 1961
- Jakobson, R. *Selected Writings*, The Hague, 1962
- Jespersen, O.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1951
- Nida, E.A. *Morphology*, Ann Arbor, 1963
- Pike, K.L. *Phonemics*, Ann Arbor, 1947
- Ramstedt, G.J. *A Korean Grammay*, Helsinki, 1939
-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elsinki, 1949
-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I Formenlehre*, Helsinki, 1952
- Sapir, E. *La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New York, 1921
- Sweet, H. *A New English Grammar, Pt.1*, London, 1891
- 市河三喜 「英語學辭典」, 東京, 研究社, 1956
- 小倉進平 「郷歌及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1929
- 「朝鮮語方言の研究 上卷」, 東京, 岩波書店, 1944
- 「朝鮮語方言の研究 下卷」, 東京, 岩波書店, 1944

参考文献

- 大塚 高信 「英文法シリーズ第二集」, 東京, 研究社, 1959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攷一缺語考一」, 京城, 1942
小林英夫 「言語學方法論考」, 東京, 三省堂, 1949
中島文雄 「意味論」, 東京, 研究社, 1939
服部四郎 「言語學の方法」, 東京, 岩波書店, 1960
「元朝秘史の蒙古語を表はす漢字の研究」, 1946
前間恭作 「鶏林類事麗言攷」, 1925
山田孝雄 「日本文法論」, 東京, 寶文館, 1942

The island of Cheju, situated a good distance away from the main land, is a repository of some of the rarest archaic forms of the Korean language. Thus the island has been referred to as "the treasure house of archaisms" or "the frontier of Korean linguistics."

The Cheju dialect is characterized by two phonological systems, i.e., two different vowel structures employed by the islanders. The adult generation uses a 9-vowel system presumably similar to that of the 17th or 18th century standard Korean whereas the younger generation relies on a 7-vowel system.

What then are some of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eju dialect? This study aims at answering this question by analyzing the nature of the principal finite verbal endings of the dialect. Through the use of finite verbal endings one may establish aspect (Aktionsart), honorific, indicative, retrospective, presumptive, and volitive moods, the latter three being rendered by means of prefinal verbal endings, and declarative, interrogative, and imperative moods which are indicated by final verbal endings.

some of the noteworthy features of these forms and their historical derivations are as follows:

1. The forms '-amcə~--əmcə' are frequently used in the declarative mood of the Cheju dialect. The form /-am~--əm-/ represents anim-perfective, one of the features of the aspectual system of the dialect, whereas the form /-cə/ is an ending signalling the declarative mood. The form /-am~--əm-/ is unique to the Cheju dialect with no written record found so far and no other regional dialect containing its equivalent. The declarative ending /-cə/ is a form with its early written records dating from the 8th or 9th century and continuing throughout the 15th and 16th centuries. The /-cə/ form may in all fairness be said to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12th or 13th century from a diachronic viewpoint.

2. The aspectual counterparts of the '-amcə~--əmcə' forms are the "perfective" '-atcə~--ətə', which were used from the 12th or 13th century to the 17th or 18th century without interruption. The /-at~--ət-/ forms originated in the 16th or 17th century.

3. The interrogative ending '-amda~-əmdə', which is frequently used in the dialect, is unique to the island.

4. The aspectual counterparts of the preceding '-mada~-əmda' forms are the '-anda~-anda' forms of the perfective variety. The latter's interrogative endings are often found in the literature of the 15th and 16th centuries but rarely in the writings of the 17th century and thereafter. Consequently, it might be presumed that these forms were widely used prior to the 15th century. Hence their plac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dates from the 15th or 16th century.

5. Another aspectual morpheme of the Cheju dialect frequently encountered today is the imperfective continuative /-amsi~-əmsi-/forms. These are forms unique to the island with no written records found anywhere else.

6. The aspectual counterparts of the /-amsi~-əmsi-/ forms are the imperfective continuative /-asi~-əsi-/forms. The latter were literary forms used from about the 8th or 9th century to the 17th or 18th century. They might be presumed to date from about the 12th or 13th century.

7. As outlined in sections 1 through 6 above, the finite verbal conjugation system of the Cheju dialect contains the imperfective morphemes {-am~-əm-} as contrasted with the perfective morphemes {-an~-ən-} (with the variant forms /-at~-ət-/) in its aspectual system, and imperfective continuative forms {-amsi~-əmsi-} (with the variants /-ams~-əms-/) as contrasted with the perfective continuative forms {-asi~-əsi-} (with the variants /-ats~-əts-/-as~-əs-/). These forms constitute a symmetry and are used synchronically.

8. In the honorific mood indicated by finite verbal endings only the "hearer-oriented honorific system" has been developed whereas the "speaker-oriented honorific system"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hearer-oriented honorific system" has three different forms.

9. The /-u-/ of the '-uda-' form used for the hearer-oriented hono-

rific system is presumed to be identical with the /-ko-/ of the 'koda' (-古如), form used in the 8th and 9th centuries during the Silla period, derivationally as well as semantically. The statement that the /-u-/ of the 'uda' form may have originated from the verbal endings of the 8th or 9th century, however, can only be conjectural.

10. The /-p-/ form of the "hearer-oriented honorific system" is a variation of the /-sep-/ form of the "speaker-oriented honorific system." The form /-p-/ as now used in the Cheju dialect is identical with that used in the 18th century.

11. Another mode of indicating the "hearer-oriented honorific" is to add the affixal form /-massum/ to the finite verbal ending 'hɔjə'. This was the last one to be developed of the three different modes of the "hearer-oriented honorific system."

12. In order to indicate the presumptive and volitive moods the Cheju dialect employs the verbal ending /-kh-/. This modal form is peculiar to the dialect.

13. One of the most peculiar modal forms of the Cheju dialect is the /-c-/ form used to indicate the volitive. The written records of this form date from about the 8th or 9th century and last through the 15th or 16th century. The form has become obsolescent in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however. Its presumed origin may be in the 12th or 13th century.

14. The '-na' ending is used to signal the declarative in the Cheju dialect. This also is a form unique to Cheju.

15. For a retrospective ending the '-ara~-əra' forms are frequently used in the island's dialect. Written records for this ending are scanty and its origin may be said to be in the 16th or 17th century.

16. The interrogative ending '-lda', frequently employed by the islanders, is found in the written records from about the 15th or 16th century to about the 17th or 18th century. The fact that this ending appears in the literature of the 15th century may lead one to surmise that it was also used in the 13th or 14th century. Thus the origin

of this ending may be in the 15th or 16th century, midway between the 13th or 14th century and the 17th or 18th century.

17. The '-lda' and '-ldja' forms occur frequently in free variation with the '-lthi' and '-lthja' forms as interrogative ending in the dialect of Cheju Island. All these forms are unique dialectal features of the region.

18. The imperative ending used in the Cheju dialect is the /-ra/ form. This form appears consistently in the writings from the early part of the 12th century to the 17th or 18th century. Its origin may be traced to the 15th or 16th century.

19. The honorific imperative ending is signalled by the /-psə/ form in the island's dialect. The segment /-sə/ is a variation of the /-sja/ of the hearer-oriented honorific form /-sjosja/, whereas the /-p-/ is a hearer-oriented honorific form.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elements to indicate the honorific imperative is unique to the Cheju dialect.

These are some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finite verbal endings of the Cheju dialect. Of special significance is the symmetry of the imperfective vs. perfective, the imperfective continuative vs. perfective continuative in the aspectual system. Also noteworthy is the existence of the three different modes of the "hearer-oriented honorific system" while the "speaker-oriented honorific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The peculiar ways in which the declarative ending /-cə/, the volitive ending /-c-/ , the interrogative ending '-lda' of the 15th or 16th century and the '-ldi', '-ldja' forms elsewhere, the imperative ending /-ri-/ and /-psa/, the presumptive and the volitive forms /-kh-/ are all features unique to the Cheju dialect.

The finite verbal endings used between the 12th or 13th century and the 17th or 18th century or even in the 20th century in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are being used synchronically in the Cheju dialect today. Indeed, forms that are almost a thousand years old are being actively employed synchronically in the dialect of Cheju Island. This phenomenon may veritably be termed the synchronic existence of lexical forms that are separated by a gap of nearly a thousand years.